

이정옥(대원성 · 연꽃모임 회장)
평생 '신행'으로 살아온 '우바이'
"가진 것 버리면 마음 채워져"
16 · 17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11월 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24호 2014년 12월 25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장로게경〉
좋은 것을 탐닉하는 사람은
복을 만들 기회를 놓치고 만다.
달콤한 화살은 뽑아내기 어렵다.

선출 진행 vs 원점 검토 동국대 총장 선거 '파행'

跛行

16일 이사회서 적법성 놓고 격론… 결국 선출 보류

동국대 제18대 총장 선출이 종단 외압에 의한 후보사퇴 논란 속에 결국 연기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정련)는 12월 16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이사회를 열었지만 격론 끝에 총장선출안의 안건상정을 못한 채 폐회했다.

이사회 회의에서는 유력후보였던 김희옥 총장의 사퇴에 대한 조계종단의 외압 논란과 총장 후보 3명 중 2명이 사퇴해 선출권이 제한된 상황에 대한 이사들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11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종단 수뇌부와 회동 후 "종단 뜻을 받들겠다"며 후보직을 사퇴했으며, 조의연 후보는 14일 "종단 개입으로 선거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일면 · 명신 · 성타 · 호성 · 삼보 스님을 비롯한 다수의 이사들은 '후임 총장을 뽑아 안정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영담 스님은 '종단 외압에 의한 후보사퇴는 이사회 선출권을 제한하기에 총장 선출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각각 펼쳤다.

이사회는 총장선출안은 안건 채택부터 진통을 겪어 점심시간이 돼서야 채택됐다. 정회 이후 오후 이사회 개회에 앞서 이사장 정련 스님은 "(김희옥 총장과의)호텔 회동이 덕담자리인줄 알았다. 미리 말해줬다면 다른 방식으로 뜻을 전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서운함을 표했다. 이사장 정련 스님은 대다수 이사들의 거듭된 총장선출안 상정 요구에도 '논의를 더 해야 한다'며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이사 일면 스님 등은 "현 총장이 후보로 나와 떨어지는 것도 망신이기에 스님 총장을 모시자는 종단의 여론과 분위기를 미리 전달하고자 회동을 한 것으로 압력을 행사코자 함이 아니었다"고 회동 취지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영담 스님은 "종단의 지도부 스님들이 모여 '이번에는 스님이 총장을 했으면 한다'는 말을 듣고 압력으로 느끼지 않은 재가자가 어디 있겠느냐"며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의 후보자에서 적합한 1명을 뽑도록 한 이사회의 선출권이 침해됐기에 오늘 선출해서는 안된다. 학내 구성원들의 입장도 반영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 3명 중 2명 사퇴
선출권 제한 상황에 대해
교육부 질의 후 논의키로

학생 · 불자 비판 성명 지속
"이사 아닌 다수 스님들의
사퇴 권유는 명백한 월권"

이사들은 회의 내내 총장선출에 대해 같은 주장을 하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으며 그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이연택 이사가 "교육부에 선출권이 제한된 상황에 대한 질의를 한 뒤 유권해석을 얻어 다시 열자"고 제안한 뒤 정련 스님은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동국대 이사회는 교육부의 유권해석 후 다시 열기로 했다.

이사회에는 김희옥 총장을 제외하고 이사장 정련스님을 비롯해 일면 · 영담 · 명신 · 심경 · 호성 · 성타 · 삼보 · 미산스님 · 이연택 · 김선근 · 안채란 이사 등 12명이 참석했다.

한편, 잇따른 총장 후보들의 사퇴 이후 동국대 구성원들은 총장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수습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국대 교수협의회(회장 한만수)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사회와 관련없는 다수 스님들이 사퇴를 권유했다면 이는 명백한 월권"이라며 "구성원들의 뜻을 존중하고, 민주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국대 차기 총학생회인 제47대 총학 준비위와 제31대 일반대학원 총학 준비위도 15일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의 개입으로 민주적 절차가 훼손됐기에 총장 선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6일 이사회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18일 현재 동국대 커뮤니티 '디연'에는 총장 선출에 대한 수십 건의 글이 올라온 상태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재가불자들의 눈도 곱지 않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종단 자정을 위한 불자모임 공동대표들은 12월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조계종 스님들의 동국대 총장 선거 개입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11일 모인 6명의 스님들 가운데 총장 선출권을 가진 동국대 이사는 정련 스님과 일면스님 두 분 뿐"이라며 "이런 이들이 모여 특정후보를 마음대로 사퇴시킬 수 있다면 동국대 재단이사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총장후보 추대위는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공동대표는 △총장 선출과정에 불순하게 개입한 종단 지도부의 공개 참회 △이사장 정련 스님과 이사 일면 스님의 사퇴 △학내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한 민주적 선출 절차를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마음합창단 '선법가' 부르며 세계평화 염원

음성포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은 12월 13일 안양 아트센터에서 창단 3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열고 묘공당 대행 선사가 강조한 자성을 밝히는 마음공부의 가르침을 아름다운 선율로 2500여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이날 공연에는 한마음선원 스님 64명으로 구성된 승가합창단, 합창단 초창기 멤버들로 이루어진 한뿌리 합창단을 비롯해 보살 · 거사 · 청년 · 어린이합창단 등 총 340명의 계층별 합창단이 무대에 올랐다. 〈관련 기사 5면〉

이나은 기자 · 사진제공=한마음선원

조계종, 내년 첫 1급 승가고시 실시

고시위 17일 회의… 8기 위원장에 지안 스님

조계종이 내년부터 법랍 25년 이상 스님들을 대상으로 첫 1급 승가고시를 연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는 12월 17일 회의를 열고 2015년 각급 승가고시 일정을 확정했다.

종단 최초로 시행되는 1급 승가고시는 내년 4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리며 대상자는 010년 2급 승가고시를 합격해 대덕 · 혜덕 법계를 수지하고 교육원 연수교육 점수가 연간 30점씩 총 150점 이상인 스님이다.

평가는 논술 · 설법 대신 수행 및 교화활동 이력과 향후 활동계획을 점검하는 갈마로 진행된다. 심사갈마위원회는 비구 종사 이상 7명, 비구니 명덕 이상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비구는 비구 종사 7명이, 비구니는 비구 종사 이상 4명과 비구니 명덕 이상 3명 등 7명이 심사한다.

4급 승가고시는 내년 3월 27일 중앙승가대 지혜관에서, 5급 승가고시는 3월 23일 김천 직지사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이날 고시위원회에서는 제8기 고시위원장으로 6 · 7기 고시위원장을 역임한 지안 스님을 선출했다.



위원장 지안 스님〈사진〉은 회의 후 기자들과 가진 자리에서 "역사적으로 승가고시가 잘 시행될 때 불교도 발전했다. 승가고시 활성화를 통해 한국불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첫 시행되는 1급 고시에 대해서는 "승납 25년 이상이라면 지도자로서 교단과 사회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처음 치러지는 것이어서 갈마 위주로 심사하지만 향후 고시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승가고시 합격률이 높아진 데에서는 스님들의 학구열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지안 스님은 "시험 난이도가 낮아지지 않았는데도 합격률이 높아지는 것은 스님들의 학구열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고시 응시 스님들이 지역별로 모여 그룹 스터디를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스님들의 면학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승가고시의 긍정적 여파"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재정확충 방안 모색 나선다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주경)가 종단 재정구조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재정분과위는 12월 1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종단 재정현황에 대한 전반을 살피고 재정확충을 위한 연구와 법제화 등을 추진할 '종단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는 재정분과위원장 주경 스님과 간사 설암 스님 등 7인으로 구성됐다.

논의될 내용은 △토지처분금 활용 방안 △신도시포교 예산 확보 방안 △공정성과 형평성에 기초한 사찰분담금 현실화 △중앙종무기관 예 · 결산 심사 및 심의 등이다.

신성민 기자

사고

기자를 찾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불교전문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모집부문	모집인원	응시자격	전형절차 1차	전형절차 2차
경력기자 수습기자	각 0명	① 경력기자 2년 이상 경력자 ② 수습기자: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③ 공 통: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남자는 병역필 및 면제자)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 접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1.접수기간 : 2014년 12월 31일(수)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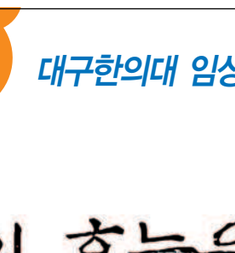
2.접수방법 : 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http://www.hyunbul.com) 또는 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현불뉴스(http://www.hyunbulnews.com)에 접속하시면 모집공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접수: cgseo@hyunbul.com

3.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시험당일에 제출하십시오.

4.1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인터넷 공고 (문의전화 : 02-2004-8204)

1024호 INDEX

기획 8
2014 불교계 10대 뉴스



불교로 읽는 고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강의〉 24

당뇨!! 대구한의대 임상실험 - 효과검증!!

침향의 효능을
甘露茶半으로 즐기다
감 로 다 반

지리산 찻잎을 침향으로 발효하여 정성껏 달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원액을 담았습니다
깊고 온유한 맛과 향에 침향의 효능을 가미한 힐링음료입니다

NAVER 검색창에 감로다반 으로 검색하세요

취운향당 자회사 -
(주) 기바
070-4694-7366 www.giva.kr



GOOD DESIGN 산업통상자원부선정

임상실험을 통한 당뇨 검증!
• 신비의 침향발효 특허!
• 즉석 희석음용 원액파우치!
•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액상 침향발효차 甘露茶半 감로다반

지리산자락에서 재배한 친환경 유기농 찻잎을 침향으로 발효시키고 7시간 중탕으로 달여 위생적인 파우치에 담아낸 차 원액으로 다구 없이 편리하게 물에 희석하여 즐기는 건강음료입니다.

침향이란?
침향나무가 분비하는 치유물질로 베트남산 침향을 으뜸으로 치며 동의보감 등 옛 한의서에 간, 폐, 위, 갑상선 등에 효험있다고 기록

감로다반의 효능
임상실험 결과 항당뇨, 항비만, 항고지혈, 간 및 신장 보호에 효과 (대구한의대학교 임상실험 결과)

음용법
- 파우치 1포(50ml)를 기호에 따라 10배 정도 희석하여 음용
- 다구 없이 사무실, 가정, 여행지 등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냉 · 온수 자유롭게 사용

조계종, 폐교 위기 탈북자 학교 지원

자승 스님 등 17일 삼정학교에 1억원 기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인사 스님들이 주축이 돼 북한 이탈주민자녀의 대안학교인 삼정학교(교장 채경희) 운영을 지원한다.

스님들은 12월 17일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1억1천5백만원을 기부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삼정학교는 2010년 3명의 전교생으로 이루어진 삼흥학교로 개교한 후, 현재 3개 학급 50여명의 초등학생의 교육 ·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독교계의 보증금 후원이 중지되면서 힘들어진 운영 탓에 내년에는 학교를 폐교해야할 상황에 놓였다.

이 소식을 접한 스님들은 각기 모금 활동을 전개해 1억여원의 학교 운영기금을 모았다. 5천만원을 쾌척한 자승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정만 스님, 호법부장 세영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진화 스님,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이 각 1천만원, 향림사 주지 일관 스님이 2천만원, 종책특보단장 정념 스님이 5백만원을 기부했다.

자승 스님은 "2억 원의 임대보증금 중 모자란 8천5백만원은 지속적인 모금으로 채워나가야 하지 않겠냐"며 불자들의 많은 후원을 당부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종단 주요 인사 스님들이 북한이탈주민자녀의 대안학교인 삼정학교에 운영기금 1억1천5백만원을 기부했다.

조계종 군종교구 "군승 수급 이상 없다"

17일 성명 발표… 천태종 측 주장 반박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군승 공급이 해마다 미달 사태를 보이고 있다"는 천태종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군종교구는 12월 17일 성명을 통해 "천태종이 주장한 군승 수급 인력 50%, 해마다 미달 사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최근 5년 동안 매년 11~14명의 군승을 파송해왔다. 이는 국방부가 요구하는 인력의 96%를 충족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군종교구에 따르면 조계종은 2010년 14명, 2011년 14명, 2012년 12명, 2013년 11명, 2014년 13명 등 총 64명의 군승을 파송했다. 국방부의 군승 파송 TO는 67명이다.

군종교구는 "파송되지 않은 3인은 우수자원을 확보 차원에서 검증과정에서 제외시킨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검증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당해 연도 충족되지 못한 인력은 다음해에 추가 반영해 파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종교구는 "조계종 종헌종법에 따라 선발된 군승과 군사찰을 관리, 군포교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예비 군승자원 역시 60여명을 관리하고 있어 인력수급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장학승 장학증서 전달

18명에게 1억4천여 만원 지급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2015년 종단 장학승에 대한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번에 선발된 인원은 국내 8명, 해외 4명, 사찰승가대학원 6명 등 총 18명으로 국내 연간 4700만원, 해외 연간 8400만원, 사찰승가대학원 연간 1200만원으로 총 1억43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선발된 종단 장학승에게는 해당 과정 수료시까지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금은 각 학교의 등록금과 연구비, 생활비 등을 감안해 매 학기별로 수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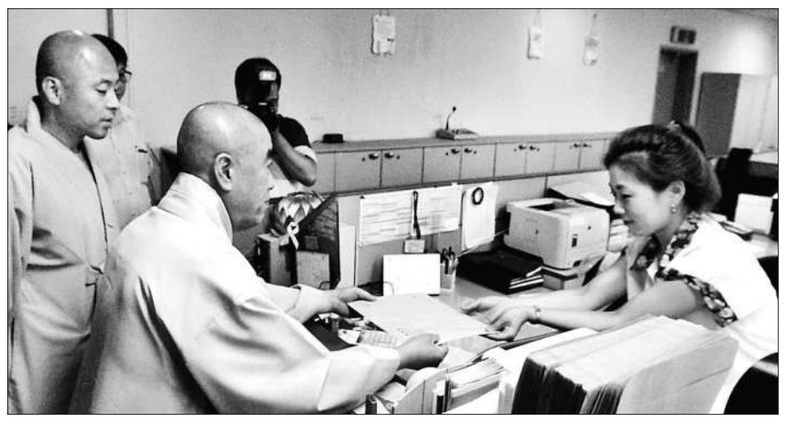
한편 조계종은 2011년 6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2명의 장학승을 선발했다.

신성민 기자

갈등·내홍… 내년엔 화합·소통을

2014 주요 종단 결산

2014년 한국불교 주요 종단들의 한해는 갈등과 내홍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관련해 선학원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쳤고,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팔공총림 동화사와 제2교구본사 주지 인선을 놓고도 마찰을 겪었다. 태고종 역시 총무원장과 반대 세력이 나눠져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주요 종단들의 이 같은 갈등 상황은 대부분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어 불자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는 상황이다.


선학원 이사와 감사 스님들이 6월 30일 조계종에 제적원을 전달하고 있다. 법인관리법으로 빚어진 갈등은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지식 송담 스님 탈종 '충격'
법인법 갈등… 선학원 독자행보
스님들 범계행위 여전 대책없나
주요종단 · 단체 대형불사 시작

'구설수의 홍수' 속 조계종

조계종은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승가청규를 제정하고 승려법을 개정해 범계행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신도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스님 등이 문서 견책으로 낮은 형량을 호계원에서 받아 문제가 됐다.

여기에 음주 범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상좌 2명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고, 급기야 총무원 호법부는 금족령에 가까운 지침을 일선 사찰에 하달하기도 했다.

본사 주지 인선을 놓고도 심각한 내부 마찰을 빚었다. 팔공총림 동화사는 지난 3월~5월 동안 전 주지 성문 스님과 종정예경실장 효경 스님이 주지를 놓고 서로 힘겨루기를 했다. 급기야는 어렵게 만든 총림을 해제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원로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던 덕문 스님이 동화사 주지로 부임하고 종정 진제 스님이 유시를 내리면서 사태는 마무리됐다.

제2교구본사 용주사도 주지 인선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은 지난 8월 10일 문중 의사 결정 기구인 용주사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를 것을 당부하는 유시를 내렸으나 이는 곧 진위 논란에까지 제기되며 내홍을 겪었다. 선거를 거쳐 성월 스님이 당선됐다. 하지만 후속 주지 인선이 보복성 인사라는 논란이 이어져 한동안 몸살을 앓았다.

이 같은 문중 내홍, 법인관리법 등에 회의를 느낀 송담 스님은 '조계종 탈종' 이라는 강수까지 뒀다. 송담 스님 탈종 이후 재가자들을 중심으로 진정한 종단 정화와 쇄신을 위한 선언과 토론회가 잇달아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법 갈등, 해결책 없나

조계종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인법' 은 6월 열린 중앙종회에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후 11월 중앙종회에서 일부 개정돼 문호를 넓혔다.

하지만 선학원과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6월 30일 선학원 이사, 감사 스님들은 '조계종 종헌 종법을 따를 수 없다' 면서 종단에 제적원을 제출하며 갈등은 커졌다. 이후 이사장 법진 스님은 멸빈의 징계를 받았다.

선학원은 분원장 회의를 잇달아 열며 종단에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결과적으로 10월 1일부로 승적과 사찰등록업무를 개시했다. 사실상 독자 행보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선학원은 11월 3일 이사회에서 '제2정화운동 선언문' 을 채택하고 사부대중의 동참을 호소하고 나서기도 했다.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은 내년 제2 라운드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18일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선학원 정상화 위원회를 종단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내년 초 구성이 완료되는 위원회는 선학원과의 협의와 법적 대응을 함께 진행할 수 있어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것으로 보인다.

태고종 갈등 끝이 안보이네

지난해 선출된 총무원장 도산 스님 체제의 태고종은 1월 22일 투명한 종무행정 등 8대 핵심기조를 발표하면서 기대를 모았다. 이어 2월 10일 태고종 발전특위(위원장 · 정경조 신도회장)를 출범시키면서 종단 발전에 기틀을 닦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종단 내부에 곪은 상처는 8월 말 결국 터졌다. 원로회의는 종정 혜초스님이 재가했다며 총무원장과 종회의장, 호법원장의 동시 퇴진을 촉구했다. 이후 반대 측은 종회를 열고 도산 스님 불신임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별도의 총무원 집행부를 구성했다. 이에 도산 스님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징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과 종연 스님에 대한 '효력정지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을 신청했다.

종단 대형 불사 시작 잇달아

다사다난했던 주요 종단과 단체들의 올해 성과 중 하나는 대형불사의 시작이 잇달았던 것이다.

조계종은 핵심 주요과제로 '조계사 총본산 성역화 사업' 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지난 11월 17일 '총본산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봉행했다. 10.27 법난기념관 등이 지어지는 성역화 사업을 통해 조계종은 조계사 일대를 해원 ·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10.27법난기념관 건립에 국고 2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해 성역화 사업이 내년도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진각종은 3월 10일 진각문화국제체험관 및 교육관 기공식을 봉행했다. 진각문화국제체험관은 국고보조금 30억원을 포함해 총 70억원을 들여 부지 3,969.6㎡에 연면적 4,963㎡의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규모로 건축된다.

선학원도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신축불사에 들어갔다. 11월 20일 선학원은 지하 4층 지상 2층 연건평 1991.74㎡ 규모로 지어질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기공식을 통합민주당 정세균 의원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이 기념관은 내년 말 완공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종단협 내년 예산 11억 여원 확정

17일 이사회서 결의… 내년 사업 계획 논의

1월 16일 조계사서 신년하례식
그간 동결된 회비 10% 인상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 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종단협)가 2015년 예산을 11억4650만원으로 확정했다.

종단협은 12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14년 제3차 이사회' 를 열고 내년 예산 안과 주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종단협은 내년도 예산을 일반회계 7억3350만원, 특별회계 4억1300만원 등 11억4650만원으로 결정했다. 세입부분에서 7년 동안 동결했던 회원종단 정기회비를 10% 인상하기로 했으며 적립금으로 종단협 사무처 사무실을 마련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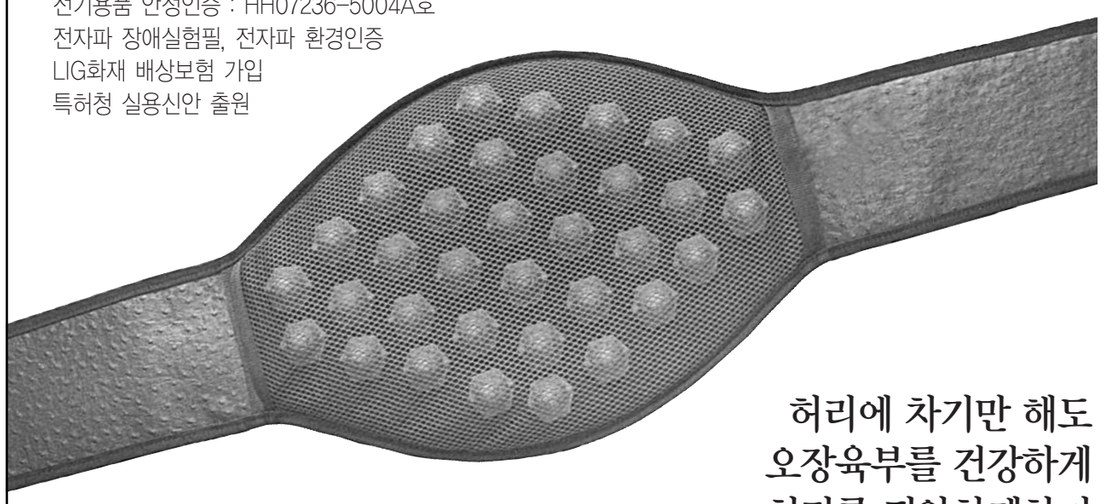
내년 주요행사로는 신년하례법회를 1월 16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키로 했으며, 3월10일 오전 10시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서는 4~5월 다채로운 봉축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9월 14~16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제18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에 참석하며 비정기적으로 실시됐던 해외성지순례는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화엄종의 종단협 가입을 승인했으며, 종단 대표 및 인사이동에 따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을 부회장으로, 총화종 총무원장 혜각스님, 법화종 총무원장 도성스님, 태고종 총무부장 대각스님 등을 상임이사로 각각 변경했다. 감사는 대승종과 본원종, 미륵종에서 맡기로 결의했다.

또한 7월17일 열린 제2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진행된 회원종단 현황조사에서 활동이 미비하거나 자격요건이 미달된 것으로 밝혀진 종단에 대해서는 조정과정을 거쳐 차기 이사회에서 회원자격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종단협 회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등 이사 34명 가운데 위임 포함 31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조계종, 분단 70년 맞아 '불교통일선언' 추진

민추본 18일 불교통일담론 개발 중간 발표회서 밝혀

공존과 상생, 합심을 기치로 한 불교통일선언이 이르면 5월께 발표된다. 이로써 내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남북통일문제에 관한 조계종단의 입장과 방침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종단은 이를 위한 불교통일담론 개발작업에 착수, 종도들과 국민들에게 사회통일론을 선도할 계획이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는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존과 상생, 합심의 불교통일담론 연구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부 · 실장 스님,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 민추본 임원등이 참석했다.

불교통일담론의 주요 내용은 화쟁사상에서 통일원리를 찾고 공존과 상생을 중심으로 남북이 합심해 통일을 이루어나가자는 것이다.

지난 10월부터 관련 연구사업에 참여한 조성렬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는 "화쟁통일론의 핵심은 이문일심(二門一心)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남북간 합심이 통일의 출발점"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통일론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조 박사는 합심의 저해요소로 남북사회의 이질성과 서로의 불신, 적대감 등으로 인한 '마음의 분단'을 꼽으며 "정치화해, 평화체제 구축 등을 통한 공존조치와 문화재 공동발굴, 경제협력, 이산가족상봉 제도화 등의 상생조치를 통해 남북간 이질적 마음문화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사업에는 이창희 교수(동국대, '최근 불교 통일운동의 역사적 흐름과 논리'),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 '한국 전통불교와 마음의 통일'), 조성렬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소, '공존 · 상생 · 합심의 불교통일담론'), 고유환 교수(동국대, '불교계 통일준비와 실천적 역할') 등이 참여하고 있다.

남북불교간 교류는 꾸준히 이어져왔지만 불교통일에 관해서는 이렇다할 방법론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 지홍 스님은 이번 사업을 두고 "통일에 대한 불교의 이론 · 실천적 지침을 세우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민추본은 이번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불교통일선언 초안 마련을 시작해 중앙종회 본회에서 결의문 채택을 추진한 후 5월 불교통일선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12월 18일 불교통일담론 연구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내년 5월경 발표… 관련 담론연구
공존 · 상생 골자로 한 통일론 전망
종단 통일 이론 · 실천적 지침될 것
종도 · 불자 · 국민 확산 사업 계획도

선언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서는 사찰 불교대학 등에서 진행하는 교육 과정에 편입시키는 방법을 채택, 실천 캠페인과 함께 추진하고 앞으로 민추본의 남북불교교류사업 역시 통일선언과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4년 전 평양 방문 당시 서로 더불어 살 수 있는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이질감 해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공존과 상생을 벗어나 유불리를 따지면 통일과 멀어진다는 기본 원칙을 스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유환 교수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분단으로 인해 야기되는 소모적 대립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히며 "통일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고 교수는 "중앙권력 중심의 통일 담론을 넘어 민간차원에서도 이런 작업을 선도해 정부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며 "불교에서도 평양에 학교와 병원, 문화회관 등 하루속히 거점을 마련해 교류 사업 폭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쌍용차 해고자 대승적으로 품어야"

노동위, 15일 쌍용차에 호소

지난 12월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이창근, 김정욱 씨가 평택 쌍용차 공장 70m 굴뚝 위에서 고공 농성에 들어갔다. 이 씨는 "사법부도 정치권도 모두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에 등을 돌렸기에, 마지막으로 현재 공장서 일하고 있는 동료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고 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도 12월 1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쌍용차 노동자들의 희생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공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노동자들의 소망을 이제는 회사, 사회, 정치권, 종교인이 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위는 "농성에 들어간 노동자들은 투쟁을 하기위해 굴뚝을 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약한 존재임을 알리고 도와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라며 쌍용차를 향해 "극한적, 대립적, 배타적인 생각으로 해고노동자들을 대하지 말고 그들을 대승적으로 과감히 포용하는 경영정책을 펼치라"고 촉구했다.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회사 경영과 이미지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에게도 "쌍용차 노조, 국민들에게 했던 공약을 지금이라도 되새겨 실천 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현진 기자**

"비구니회 現 집행부 사퇴하라"

열린모임 18일 공청회서… 결의대회 개최도 천명

제16대 조계종 중앙종회 비구니 의원 선출 논란으로 촉발된 전국비구니회의 내홍이 확산되고 있다.

열린비구니모임은 12월 1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한국 비구니의 청정성 회복과 승가상 확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비구니회 총회 소집과 집행부 사퇴, 비구니 종회의원 재선출"을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 법룡사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참석자들은 결의했다.

첫 발제에 나선 열린비구니모임 공동위원장 임대 스님은 "비구니 종회의원 추천 과정은 말그대로 파행이었다"면서 "모든 절차가 생략됐고, 운영위원들은 어떤 스님이 몇 명이나 후보등록을 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선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비구니회 내에 산재해 있는 차별과 비합법적인 운영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전국비구니 스님들의 공의를 모아 회칙 제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지회 재무 재범 스님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투표도, 거수도 없이 종회의원을 선출했다. 현재 비구니회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관행만 남아 있다"고 토로했다.

삼선불학승가대학원 학감 수경 스님은 전국비구니회가 발표한 '발전계획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발전 계획안은 운영위원회의 권한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그 예로 '비구니 스님 주지 품수 시 전국비구니회장의 추천서를 받도록 한 것'과 '법룡사 주지를 운영위원 가운데 선출하고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등록권을 운영위원에게만 부여하도록 한 것'을 들었다.

수경 스님은 "비구니회가 종단의 주지 품신에까지 관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다수 비구니 스님들에게 이중 족쇄가 될 것이 자명하다. 전국비구니회 현 집행부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 직후 열린비구니모임은 "비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비구니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전국비구니의 의견을 수렴을 위한 총회 개최 △전국비구니회를 파행으로 운영한 비구니회장과 운영위원장 사퇴 △비구니 종회의원 재선출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매서운 추위에도 250여 명의 비구니 스님이 동참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은 12월 17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열고 예수 탄생을 축하했다.

"예수의 사랑과 마음을 닮아가자"

조계종, 17일 조계사 앞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조계사에 종교간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는 트리가 불을 밝혔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2월 17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열고 예수 탄생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하얀 빛 가득히 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린다"며 "2014년 오늘, 예수의 이름은 희생과 사랑이다. 대한민국의 아픔인 세월호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고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다시 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부모와 형제, 이웃은 모두 부처와 같이 대하며 우리 주변의 아픔과 고통을 보듬어 내 자신을 예수로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점등식에 이어 산타 복장을 한 조계사 소년소녀합창단이 '창밖을 보라' '루돌프 사슴코'를 합창했으며, 참가자들도 합창단의 노래에 박수갈채를 보내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다.

점등식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과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김희중 대주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등이 참가했다.

이에 앞서 자승 스님은 자비나눔의 일환으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각각 2000만원 상당의 영 · 유아 용품을 전달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 승려복지 지원나선다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회장 박종수)는 12월 13일 한마음선원 본원에서 송년회를 열고 2015년에 진행할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송년회에는 봉은사, 도선사, 화계사, 동국사, 노적사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30여개 사찰 신도회장 및 부회장 70여 명이 참석했다.

박종수 직할교구신도회장은 개회사에서 "직할교구신도회는 전국 교구신도회의 모범이 돼 수도권을 대표하는 내실있는 신도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2015년에는 중점적으로 계획한 승려복지, 나란다축제, 천진불어울림한마당 등의 지원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직할교구신도회는 승려복지회 지원을 위해 내년 2월 경 직할교구신도회 화합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 열리는 나란다축제와 천진불어울림 한마당에 전국 사찰의 초등학생과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후원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제6회 이수예 개인전

아름다운 빛깔 단청

범어사 대웅전 단청

lee su yea the 6st Solo Exhibition

2014. 12. 24. - 30.

• 오픈식 : 12/24(수) 오후 3시
축하공연·연주

장 소 _ 서울 종로구 관훈동 188번지 가나인사아트센터 ☎ 02)736-1020
후 원 _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주 관 _ 사)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02)462-9994



일 주 문



소외계층 김치 700포기 전달

민주평통 서대문구협의회 회장 현성 스님은 12월 12일 서대문구 지역 내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청소년가장 등 130세대에게 김치 700포기를 전달했다.



제9회 동지 팥죽 나눔행사

의왕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12월 19일 의왕 · 성남 지역에서 총 1600명에게 팥죽 나눔을 진행했다.



한국마사회 강연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은 12월 18일 광주 한국마사회 광주지부 9층에서 '화! 어찌할까?' 를 주제로 강연했다.

불교신문 신임사장에 영배스님 임명



불교신문 제45대 사장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영배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불교신문 신임 사장 영배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경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영배 스님은 1966년 사미계, 1971년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제11, 12, 13, 14, 15대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호법부장, 불교방송 상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을 역임하고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울산 흥덕사 주지를 맡고 있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신임 회장에 법정 스님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신임 회장에 법정(法政)스님〈사진〉이 당선됐다. 전국비구니회는 12월 10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고 차기 비구니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선거에는 전(前) 전국비구니회장 법선스님과 이천 화계사 주지 법정스님이 후보로 나와 법정스님이 42표, 법선스님이 39표를 얻어 법정스님이 당선됐다(총 81명 투표).

선거가 끝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혜일 스님은 법정스님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법정 스님은 당선소감을 통해 "먼저 전국비구니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전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선재동자의 구도행을 본받아 모든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보현행을 하고자 한다. 앞으로 화계사에 전국비구니회관을 건립하는 등 종단과 비구니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전국비구니회장 법정 스님은 백운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99년 백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2003년 혜초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중앙승가강원 대교과와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전국비구니회 문화국장과 감사를 역임했다. 현재 대한민국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범패부문 이수자이다.

"인권한국 위해 시민단체와 연계"

4대종단 이주 · 인권 협의회 공동위원장 회일 스님



지난 8월 고용허가제 폐지 요구도
분기총회 통해 정부정책 및 제도 평가
"이주노동자 피해사례 적극 알릴 터"

이주민의 날을 하루 앞둔 12월 17일, 불교, 가톨릭, 기독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이 기독교회관에 모여 '이주 · 인권 협의회'를 발족했다. 170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용인하기에는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폭력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판단에서 제동장치마련을 위해 종교계가 뜻을 모은 것이다.

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회일 스님(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공동대표 · 사진)은 "세계 인권선언에는 태어날때부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도 노예 상황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있지만 유독 한국 이주노동자에게만은 혹독한 차별이 자행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스님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작업장 선택을 제한당하고 퇴직금을 출국하고 수령하게 하는 등 차별을 법제화한 현실만 보더라도 한국이 보편적 인권국가로서 성숙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일갈했다.

이주노동자는 사용자가 폐업하거나 해고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열악한 조건에 있더라도 한 사용자와만 일해야 한다.

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월 3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100여만원의 저임금을 받고 냉난방 설비는 물론 화장실조차 없는 열악한 숙소에서 지내며 각종 폭력에 노출돼 있다. 산재 · 고용 ·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이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는 인신매매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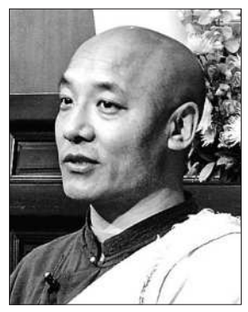
회일 스님은 "제도 부실이 극에 달했다"며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는 영역에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들을 들여와 일을 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은 인권유린을 양산시키고 있다"고 강도높게 정부를 비판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껏 종교계는 종단별 이주민 센터와 인권협의회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4대종단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이다. 얼마 전에는 '이주노동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지난 8월에는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일 스님은 앞으로 이주 · 인권 협의회의 활동 계획에 대해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를 통해 허울뿐인 모임으로 전락시키지 말자는 것이 공의"라며 "이주노동자의 피해사례 등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며 정부정책 평가 작업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종차별이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에 정착되도록 정부에 명확한 기준마련을 요구할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계해 국내외적으로 발을 넓혀나간다는 계획도 내놨다. **배현진 기자**

"고통을 삶의 비료로 받아들이길"

아남 툽텐, 12월 13일 동국대 법문



미국에서 활동중인 티베트 명상수행자 아남 툽텐(Anam Thubten · 사진) 린포체가 12월 13일 동국대 국제선원 대각전에서 '조건없는 행복을 찾는 법'이라는 주제로 청중 50여 명을 대상으로 법문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번뇌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 뒤 "마치 이 세계가 하나의 정신병원 같다는 생각을 한다.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오염됐고 서로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준다. 전쟁은 국가간에도 일어나지만 내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현재를 진단했다.

이어 번뇌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화나 질투, 자책감 등이 올라올 때마다 불순하고 물리쳐야 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이를 다루듯 순수한 사랑으로 감싸안으라"고 조언했다.

또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난다고해서 자신을 그 감정과 동일화시키지 말라고도 했다. 대신 "하늘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며 "흰 구름,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을 수 있지만 광대한 하늘은 모든 모양과 색이 일어나도록 허용한다.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어떤 것을 경험하든지 깊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남 툽텐 린포체는 자신이 심하게 아팠던 경험을 언급하며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는 "아프기전에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과장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때도 있었지만 아파보고 나니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할 때마다 즉각 이해되기 시작했다"며 "그 후로 고통이 환영이다는 말 대신 그것이 주는 어려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고통은 아파하는 이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최상의 스승이었다"고 말했다.

아남 툽텐 린포체는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동국대 대중수련과 한산사 집중수련차 방한했으며 이번 한국방문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아남 툽텐 린포체는 티벳에서 태어나 1990년대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후 참다운 본성의 깨달음을 통해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발견하도록 돕는 수행공동체인 다르마타 재단을 설립해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며 수행지도를 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공부하는 불자들의 꿈, 현지사서

현지사 영산불교대학 14일 졸업식… 555명 배출



영산불교대학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고 있다.

현지사 영산불교대학은 12월 14일 현지사 부산분원 대적광전에서 5기 졸업생 555명과 신도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영산불교대학이 있는 대전 현지사는 총 6층으로 불교대학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급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현지사 제2본산인 제주분원에도 제주불교대학이 부설되어 있다. 이날 자리에는 영산불교대학 5기 졸업생을 비롯해 제주불교대학 2기 졸업생이 졸업식에 참여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광명만덕, 자재만현 스님이 졸업식 전 부처님 전에 특별공양을 올렸다. 이어 열린 졸업식에서 자재만현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을 구족하시고 연화장세계에 여여히 계신다. 진정 불법을 믿는다면 신심 하나만은 잃지 말라"며 불자들이 신심을 갖기를 강조했다. 스님은 "우리 모두가 구업을 많이 짓고 있다"며 "이타행으로 모두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문에 이어 졸업식에서는 영산불교대학 학생 10개팀이 참가한 장기자랑 대회가 열렸다.

한편, 현지사 영산불교대학은 매월 격주로 주말에 두 번 수업이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보살행 펼치는 지도자 양성에 최선"

부산불교지도자포럼 제5대 회장 박수관 취임



"불교 지도자 모임의 역할을 다지고 사회에 답을 제시하는 포럼이 되도록 이끌겠습니다."

12월 18일 창립 제8주년 기념 및 회장 이 · 취임법회에서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이하 지도자 포럼 · 사진) 제5대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박수관 회장은 이와 같이 포부를 밝혔다.

일찍이 2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박수관 회장은 "세월의 연륜에 따른 지혜로 흩어졌던 회원들을 아우르는데 주력하겠다. 창립 당시의 모임 취지인 불교지도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지도자 포럼의 결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부산불교지도자포럼의 향후 계획에 대해 박수관 회장은 정기법회와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들었다. 부산불교지도자포럼은 지금까지 매달 삼광사, 범어사 등 지역 사찰에서 법회와 함께 사랑의 이불나누기 봉사활동 등을 해왔다.

"지도자포럼 구성원들은 그 이름대로 학문, 문화, 재계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불교의 자비 정신이 사회 곳곳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의 역할을 다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법문을 수시로 듣고 스님들의 깨어있음을 거울삼아 삶을 돌아보는 것은 당연 한 일일 것입니다."

박수관 회장은 "지도자의 역할은 사회 환원"이라며 "그동안의 봉사활동을 매달 진행하는 등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창립된 부산불교지도자포럼은 각계 불교지도자 육성 및 불교문화 창달에 관계되는 사업을 지원해왔다. **하성미 기자**

동산, 제4대 이종현 이사장 취임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은 12월 13일 동산반야회관에서 이종현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 제4대 이사장이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종현 신임 이사장〈사진〉은 "초대법주 무진장 대종사 스님과 창립자 김재일 초대 이사장을 재조명해 동산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신임 이사장은 동산불교대 불교한문학과를 졸업하고 동산반야회 연수원장과 신도회장을 역임했다.

이 신임 이사장은 "1인 1도반 추천운동, 청년불자클럽육성, 가족법회 등으로 동산 발전을 꾀할 것"이라며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이취임법회에는 안동일 전 이사장을 비롯한 동산불교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장 인경 스님, 진관 스님, 만춘 스님, 법현 스님, 홍윤식 박사, 김형준 교수, 이수광 자연보호독도중앙연맹 총재 등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 육 과 정

(1) 초 · 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 · 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개강일시 : **수시모집 가능**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강주스님 : 성 우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동 가산로 1045

한 국 불 교 태 고 종 대 구 경 북 교 구 종 무 원

서울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초발심자경문에서 대방광불화엄경까지...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셨던 인명논리로 바라본 나란다식 경율론 삼장교육

◘ 모집인원 : **20명 (선착순)**
◘ 교육대상 : 모든 종단의 비구, 비구니 스님을 포함한 승가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재가자 가능)
◘ 강 사 진 : 학회장 스님과 학회 소속 지도교수 특강강사
◘ 교육과정 : • 전 문 과 정 2년
• 연 구 과 정 4년
• 교수사과정 7년
◘ 개 강 : **2015년 3월 7일 개강**
◘ 강의시간 : **주 2회 6시간**
(금요일 저녁 3시간, 토요일 오전 3시간)
◘ 등 록 금 : 년 100만원

입학문의 : 서울승가대학 교학과 / 02)414-1222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를 주제로 2회에 걸쳐 마련된 공연에는 스님 64명으로 구성된 승가합창단, 합창단 초창기 멤버들로 이루어진 한뿌리 합창단을 비롯해 보살 · 거사 · 청년 · 어린이합창단 등 총 340명의 계층별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목소리와 선율로 마음의 가르침을 전했다.



64명의 스님들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선법가를 불러 공연의 첫 문을 열었다.



'Let it be' 를 개사해 재밌는 꽁트 형식으로 노래하는 거사합창단.

2천 청중 법열에 젖은 노래 향연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 30주년 기념음악회… 13일 안양 아트센터서

"앞으로는 마음공부를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온다. 그러니 마음 도리를 노래로 만들어 사람마다 가정마다 부르게 되면 어려움을 많이 면하게 될 것이다."

- 대행 선사 법어 中

2012년 열반하신 한마음선원장 묘공당 대행 선사는 불자들에게 생활 속 수행을 항상 강조했다. 그 가운데서도 선법가를 통한 음성포교를 중요시했다. 마음의 도리를 노래로 부르다 보면 지극하게 자기 마음을 지켜보며 관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선법의 도리를 노랫말로 한 선법가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선사의 뜻에 따라 선원에서는 어머니로 구성된 보살합창단이 탄생했다.(現 한뿌리 합창단) 이어서 거사합창단이 출범했으며 현재는 청년 · 어린이 합창단까지 구성 되어 한마음선원을 대표하는 신행 단체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마음선원은 선법합창단 30주년 기념음악회를 12월 13일 안양 아트센터에서 열었다. 이날 선법합창단은 창단 3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자성을 밝히는 마음공부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를 주제로 2회에 걸쳐 마련된 공연에는 스님 64명으로 구성된 승가합창단, 합창단 초창기 멤버들로 이루어진 한뿌리 합창단을 비롯해 보살 · 거사 · 청년 · 어린이합창단 등 총 340명의 계층별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목소리와 선율로 마음의 가르침을 전했다.

공연은 1 · 2부로 나누어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의 발자취를 시대별로 보여주었는데, 1부는 대행 선사의 법어 영상과 선법 합창단의 탄생 과정을 담은 오프닝 영상으로 문을 열었다. 1984년부터 1994년까지 초창기 합창단의 여정과 불교음악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故 서창업 선생님의 소개 및 1994년 창단된 거사합창단의 이야기가 영상으로 소개됐다.

이어 첫 공연은 스님들의 '선법가는' 합창으로 시작됐다. 스님들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선법가를 불러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다음으로 창단 멤버인 '한뿌리 합창단' 이 붉은 치마에 흰 저고리를 맞춰 입고 초창기 공연 때의 모습을 재현 하며 '누가 하는가요' '마음의 불씨' '큰절을 받으소서' 를 불렀다. 이후 거사합창단이 '부처님 계신 곳' '생명의 실상' 을 합창하며 남성 불자 특유의 중후함을 과시했다.

대행 선사 법문 · 게송
선법가로 부른지 30년
주지 스님 '정진' 당부

이어서 '둘 아닌 도리를 실천하다' 를 주제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활동을 담은 영상이 소개됐다. 이 시기에 대행 선사는 국내 · 외로 왕성한 포교활동을 펼쳤으며, 2001년과 2004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큰 규모의 합창제가 열렸고, 공연에서 마련된 수익금은 심장병어린이와 간암환자들을 위해 기부돼 불교계 안팎으로 귀감이 됐다.

영상의 뒤를 이어 한마음선원의 지휘를 맡아온 김원규 지휘자가 독창으로 '정신 발전의 길' 을, 청년합창단이 '공심 공체 둘 아닌 노래' '푸르게 살라' 등을 역동성 있게 불렀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선법합창단은 더욱 장중해지고 다채로워지는 시기를 갖는다. 연등축제를 비롯해 세종문화회관에서 대규모로 열려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2011년 한마음음악제, 2013년 오대산 월정사에서 열린 '탄허대종사 탄신100주년 기념합창제' 등을 통해 불교계 내에서 펼쳐지는 공연예술의 수준을 한층 더 높였다. 영상에서는 이 시기의 모습을 소개한 뒤 이어서 창단 24주년을 맞은 어린이합창단이 메들리형식으로 '한사랑' '마음속 씨앗' '내 한생각 법이 되어'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를 해서 무엇에 쓸 것인가' 를, 혼성 합창단이 '서천의 푸른 나무'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를 불렀다.

2부 공연은 대행 선사의 게송과 함께 서윤재 선법합창단 지휘자의 독창 '자유인의 한마음' 을 시작으로 피아노 병창을 하는 최준 군의 '갈까부다' '대장부 Ⅱ' 가 이어졌다. 최준 군은 국악과 서양음악을 접목해 만든 피아노 병창이라는 장르를 통해 새로운 불교음악의 가능성을 선보였다.

또한 보살합창단은 스님이 가사를 바꾸기도 하며 즐겨 듣던 '사의 찬미' '하숙생' '그대 없이는 못살아' 등을 불렀으며, '노란샤쓰의 사나이' 를 '노란샤쓰의 부처님' 으로 개사해 율동과 함께 선보였다.

거사 합창단은 개그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Let it be' 를 개사해 재밌는 꽁트 형식으로 노래해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밖에 마지막 피날레에서는 혼성합창단과 청년합창단이 다함께 '모난 것을 둥글게 쓸 줄 알아야 자유인이 된다' '공식으로 흐르네' 를 불러 장엄하면서도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편 이날 공연에는 주지 혜원 스님, 한마음선원 전국 지원장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 '현대불교' 박개성 공동대표, 안양의왕군포사암연합회장 성무 스님(삼막사 주지), 지장선원장 현오 스님, 이필운 안양시장, 이채원 BBS 불교방송 사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2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선법가 한 구절 한 구절에는 대행 선사의 간절한 자비의 눈물도 담겨 있지만 우리의 의식을 깨어나게 하는 벼락같은 사자후 또한 담겨 있다"며 "현대를 사는 불자들이 바쁘게 생활하는 속에서도 노래를 통해 다시 그 마음을 살펴보고 정진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한마음선원은 대형음악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찬불가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포교원에서도 이번 계기를 통해 전국에서 이런 음악회를 열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재원 한마음선원 상임고문은 "선법가는 한마음선원 신도들의 마음이 맑아지고 자비로워지고 법열이 생기게 하는 노래이다. 대행 선사께서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부처님 가르침을 부를 수 있게 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합창단 뿐 아니라 모든 불자들이 선법가를 불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진제공=한마음선원

객석



공연후 리셉션에서 기념촬영을 한 포교원장 지원 스님, 주지 혜원 스님, 이지혜 아나운서, 이필운 안양시장 부부, 포교부장 송묵 스님(사진 왼쪽부터)

"선법가는 그대로 화두"

부처님 계신 곳

대행 선사 작사/김용호 작곡

부처님 어디 있나 내 맘속에 계시네
중생은 어디 있나 내 맘속에 있다네
내 맘은 어디 있나 한마음속에 있으니
한마음 어디 있나 찾는 맘에 있어라
아아 찾는 맘에 부처님 성품 보이네
아아 찾는 맘에 부처님 성품 보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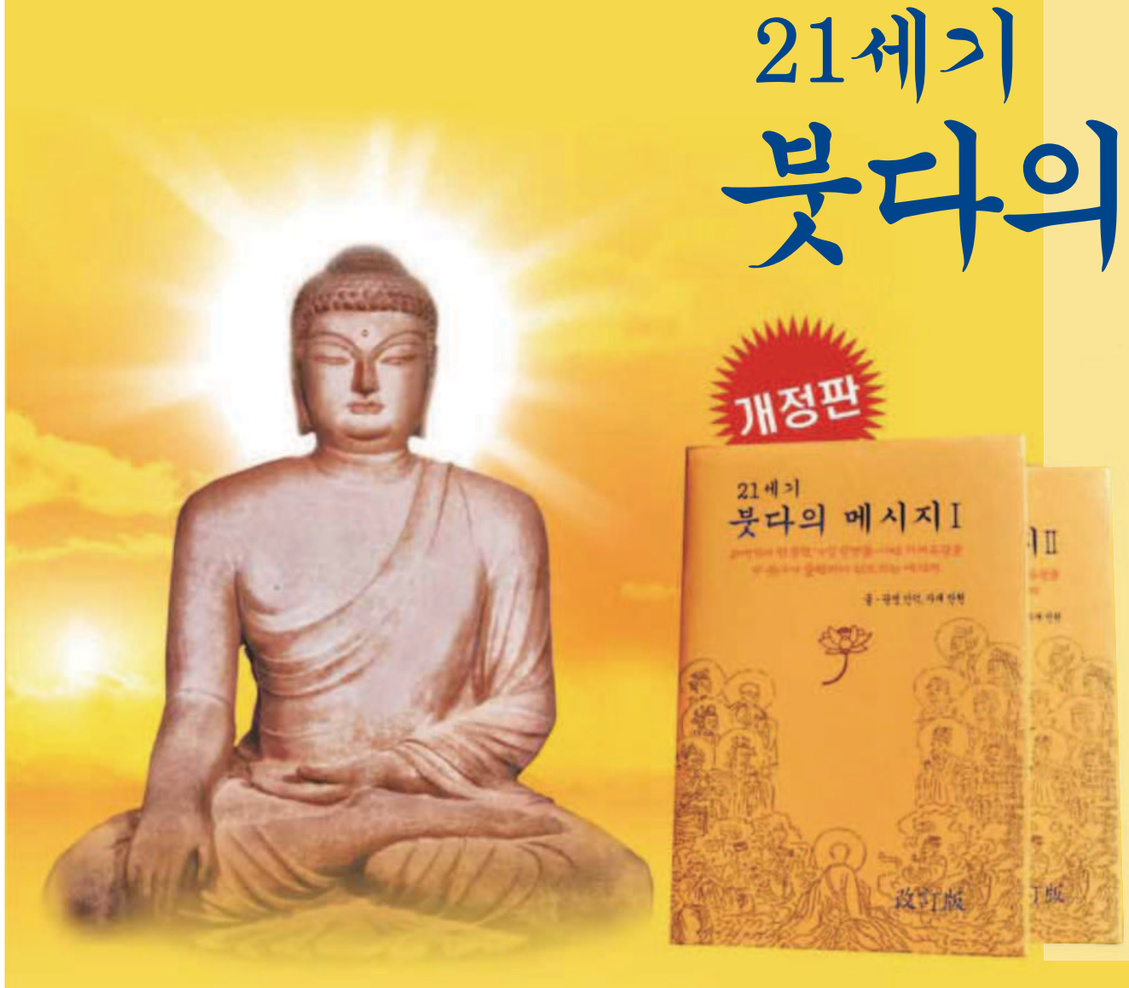
보고듣고 말하게 하는 자 그가 누군가
육신을 참 나라 알면 정말 어리석어
육신을 관장하는 그 자가 내 주인
내 주인 어디있나 찾는 그 맘 속에 있네

거사합창단의 '부처님 계신 곳' 합창이 울려 퍼지자 법열감으로 눈물을 훔치는 불자들이 객석 곳곳 눈에 띄었다. 한마음선원 선법가의 가사는 수행의 지침이 되고 근본이 되는 가르침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사람들에게 마음의 도리를 전할 수 있는 음성포교로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이번 선법가 3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스님은 "거사합창단이 부른 '부처님 계신 곳' 이 기억에 남는다. 마음 밖에 부처님 없다는 말이 있듯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처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 자꾸 중생의 삶을 살아가며 분별 · 집착한다"며 "그러나 한마음이 되면 내가 부처고 부처가 나라고 생각하면 대비심이 일어난다. 선법가의 가사들은 내용이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일러주고 있다"고 말했다.

공연을 관람하면서 두 번이나 법열의 눈물을 흘렸다는 송묵 스님은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대중에게 던져주는 거룩한 말씀이다. 이런 노래들을 재가불자들에게 전달해준다면 불자들이 빨리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오는 12월 20일 토요일 속리산에서 열리는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에서 한마음선원 선법가를 지도법사들과 함께 불러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7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고
불신으로 한국 땅에 오셨음을 증언한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진실을 밝혔다!!

▪ 춘천본사 T.033-243-1795,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02-3672-7181
▪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안내

• 현지사 부산분원 정기법회
• 1월 4일 (일), 오전 9시 30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53회)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 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갈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지역별로 버스운행됩니다.

문의 춘천본사 033)243-1787,1795
부산분원 051)554-5150

‘힐링’ 열풍 반영한 명상·상담심리·수행 인기

2014 신행·포교 결산

2014년 불교 신행 · 포교 활동은 지난 해 열풍을 일으킨 ‘힐링’을 반영한 것들이 많았다. 마음과 정신의 상처치유를 강조하는 힐링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불교 심리상담과 명상 · 수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불교계에서는 명상 워크숍, 심리상담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일반인들을 불교 심리학 분야로 안내했으며, 중 ·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명상 · 수행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앞장섰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활동도 활발했다. 불교상담개발원과 불교여성개발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잇달아 개설했으며, 중앙신도회는 ‘행복바라미 나눔문화 캠페인’을 열어 모연금을 사회복지망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분했다. 또한 수행 결사를 맺고 염불 · 절 · 참선을 수년간 꾸준히 해온 재가불자 단체는 불교계에 큰 귀감이 됐다. 올 한해의 교계 신행 · 포교의 패턴은 어떠했는지 살펴본다.

수행 결사, 불자 신행 트렌드로 ‘부상’

불자들의 신행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사찰 정기법회나 49재, 초하루기도 등에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방식에서 종교적 지향을 공유하는 이들끼리 신행 실천의 약속을 맺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수행을 함께 하는 신앙공동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청화 스님(1924~2003)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일상에서 수행을 실천하는 인터넷 수행카페 ‘금강 불교입문에서 성불까지(이하 금강)’의 정기 오프라인 모임인 ‘금강정진회’는 지난 5월 100회 회향을 맞았다. 이들은 매월 둘째 화요일에 모여 경전을 독송하고 불교서적을 읽고 매월 넷째 주 토 · 일요일 전국사찰을 순례하며 철야정진을 해오고 있다.

일산 덕양선원(주지 법상)은 2004년부터 신도들과 천수대비주(신묘장구대다라니) 다라니 정근을 해오고 있다. 365일 행주좌와로 끊이지 않는 수행을 이어온 덕양선원은 올해 ‘대비주 수행 10년 결사’를 회향하는 법회를 지난 4월 거행했으며, 수행정진의 열기는 경북 구미에서도 이어져 지난 11월에는 구미 수행회가 발족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매월 3천배 정진을 해온 ‘아비라’ 카페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제주 등 전국에서 모이는 아비라 카페 회원들은 매월 해인사 백련암에서 3천배 정진을 하고 있다.

상담 · 명상 심리 관심 고조

심리치유와 마음공부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교계에서도 심리학과 관련된 책 읽는 공부모임을 비롯해 명상심리학 강의, 워크숍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마음의 위안을 찾고 있다. 이러한 모임들은 특히 서구에서 유행하는 현대 심리학과 마음챙김 등을 불교와 조화시켜 공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책 읽는 공부모임을 진행해오고 있다. 학생, 주부, 직장인, 교수, 스님, 의료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책을 읽고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존 카밧진이 개발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MBSR 과정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MBSR연구소(소장 안희영)가 마련한 과정에는 일반인을 비롯해 의사, 심리치료사, 상담사 및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환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마음과 정신의 상처치유를 강조하는 힐링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불교 심리상담과 명상 · 수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①보리수선원이 한국, 중국, 미얀마, 티베트 스님을 초청해 6월 11~22일이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바른 집중을 말하다’ 현장. ②아비라 카페 회원들이 카페 창립 10주년을 맞아 해인사 백련암에서 3천배 정진을 하고 있다. ③부산 동명대 세계선센터에서 선요가를 체험하는 외국인 학생들. ④ 불교방송서 열린 명상심리학 강의현장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2000년부터 ‘산사에서 만나는 수행과 상담’ 워크숍을 진행해오고 있다. 매년 하 · 동계로 나누어 15차례 진행했으며, 일반인을 비롯해 불교상담심리사, 자원봉사자, 심리학 전공자 등 60~80명의 인원이 참석해 불교에서 심리상담의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이밖에 풍경소리는 글쓰기, 스피치, 그림그리기 등을 명상에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런 명상과 심리상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11월 혜거 · 용타 · 인경 · 마가 스님 등 국내를 대표하는 명상 지도자들이 모여 불교명상 활성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열려 불교명상지도자협회가 발족되기도 했다.

해외 명상 지도자들 활발한 활동

수행과 명상에 대한 열기가 그치지 않는 가운데 해외 명상지도자들이 방한해 활발한 활동도 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지난 10월 명상을 접목한 기업인재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한 차드 멍 탄을 초청해 명상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했다. 차드 멍 탄은 베스트셀러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의 저자로서 달라이라마 및 아시아 국가의 선승과의 만남을 통해 형성된 명상 기법을 개발해 기업인들을 가르치며 세계적인 명상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미얀마와 티베트에서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해온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정체험을 나누고 직접 수행을 실참하는 수행의 장도 열렸다. 보리수선원(원장 붓다락키따)은 지난 6월 서울시청에서 500여 명을 초청해 각국의 스님들이 전하는 법문과 수행법을 들으며 ‘바른집중’ 수행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또한 초기불교와 위빠사나 수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미얀마 파욱 숲속 사원에서 수행지도를 해온 우실라 스님이 한국에 체류하며 지난 9~12월 3개월간 불자들을 대상으로 사마타 · 위빠사나 수행을 지도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밖에 티베트 출신 아남 툽텐(Anam Thubten) 린포체와 캐나다 출신 글렌 멀린(Glenn Mullen) 법사가 지난 12월 13 · 20일 동국대 국제선센터에서 티베트 명상수행법에 대해 지도 법문을 펼쳤다.

중고등 · 대학에서 명상 프로그램 강화

불교계는 학업 · 취업스트레스로 시달리는 중 ·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도 보급해 포교에 앞장섰다.

2011년 8월 개원한 동국대 국제선센터(원장 수불)는 ‘간화선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해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대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간화선을 지도해 참가자들의 정서순화를 돕고 있다.

범어사는 지난 9월 부산대 평생교육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불교문화체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강좌에서는 스님과 문화재 전문가들이 불교문화에 대해 소개하고 템플스테이를 진행해 일반인들에게 불교를 쉽게 알리는데 노력했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부산 동명대 세계선센터는 170명이 동시에 이용 가능한 수련장과 다도실, 탈의실, 샤워실 등 총 800㎡(240평) 규모의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재학생 인성교육뿐 아니라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선체험 등 한국 정신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개원과 함께 ‘대학생을 위한 마음치유와 인성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한 동명대는 재학생들의 인성 함양은 물론 불자와 시민들의 심신 치유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서울 · 강원 · 경상 · 전라 등 8곳 지역에서 전국 중고등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집중명상 △명상상담 △감정조절 △심성개발 등을 시행하기도 했다.

사회적 약자 위한 나눔활동 활발

소외계층에 대한 심리 · 정서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불교계 단체들도 타인의 치유를 위해 불자들을 상담사로 양성하는 과정을 개설해 동참하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과 자비의전화 및 불교여성개발원은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해 웰다잉, 노인상담사, 아동정서지원 멘토를 양성하는 과정을 열고 강좌 이수자들을 취약계층이 밀집한 복지관 등에 파견해 사회적 참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행복바라미 나눔문화 캠페인’을 열어 모연금을 사회복지망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분했으며, 조계종 포교원은 한마음선원, 봉녕사, 불광사 등 사찰과 연계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역과 종교를 초월해 진행되는 가정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공불련, 제12차 사회봉사의 날 개최

일산노인복지관서 배식봉사 및 보시금 전달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인, 이하 공불련)는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이웃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불련 회원 30여 명은 12월 13일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화)을 방문해 ‘공불련 제12차 사회봉사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는 공무원불자로서 부처님 자비를 믿고 따르며 몸과 마음 다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수행의 자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관장 성화 스님의 인사말과 기관소개 및 담당 직원의 일정 안내를 듣고 식당으로 이동한 참가자들은 식판설거지 및 청소, 점심준비와 국수 배식을 했으며, 행정자치부 및 기관불자회에서 준비한 보시금을 전달했다.

성화 스님은 인사말에서 “해마다 복지관을 찾아주시는 공무원 불자들께 감사하며, 현장 봉사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 나눔 가르침을 배우며,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불련 회원 30여 명이 일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설거지 봉사를 하고 있다.

김상인 공불련 회장은 “동참해 주신 회원 및 가족들에게 감사하다. 불교계 복지관의 대 사회적인 활동에 동참해 불자로서 이웃과 함께하는 수행의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불련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수행의 자세를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사회봉사의 날을 지정해 매년 연말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연말에는 집중수행으로 마음 다스려요

보리마을 · 보림선원, 연말 집중 수행 프로그램 실시

수행과 철야정진으로 보내는 연말 수행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성주 자비선 명상센터 **보리마을**(지도법사 원허, 054-931-8874)은 경내에서 12월 20~21일, 27~28일 1박2일 수행과 템플스테이를 차례로 실시한다.

원허 스님이 고안한 자비수관법 수행을 중점적으로 실천하게 된다. 자비수관법은 자비심이 담긴 상상의 손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집중 수행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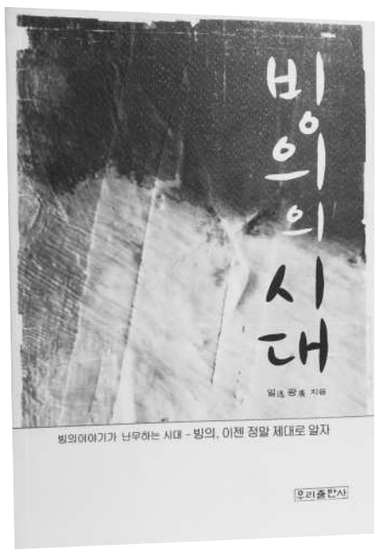
산청 보림선원(원장 전근흥, 055-972-9555)은 12월 27일 오후 9시부터 내년 1월 2일 오전까지 1주일 동계철야정진을 실시한다.

장좌불와(長坐不臥)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철야정진은 45분 좌선, 백봉거사 법문 녹취록 듣기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나은 기자

빙의환자를 위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 환자를 위한 일광逸廣 도인의 전언!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빙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또 그 치료법은 무엇인가?
일평생 빙의치료를 공부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사후 영역에 있어야 할 귀신이
인간한테 접신되는 과정과,
귀신을 천도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등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빙의는 퇴마가 아니라 귀신을 천도遷度해 줌으로써 치료된다

사람의 병에는 지수화풍의 불균형, 즉 생활습관이나 음식 등으로 생기는 병, 귀신이 붙어서 생기는 병, 전생의 업 때문에 생기는 병 등 세 종류가 있다. 이 가운데 생활습관이나 음식 등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지만, 귀신이 붙거나 전생의 업에 의해서 생기는 병은 오로지 도통한 도인만이 고칠 수 있다.

- ▶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 꿈에 죽은 사람이 자주 보이고 가위눌림에 시달리시는 분
- ▶ 몸에 통증은 있지만 병원의 진단에는 이상이 없는 분
- ▶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 ***8세 미만의 자폐증 환자***
- ▶ ***8세 미만의 뇌성마비 환자***

※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010-5040-7679 로 전화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나누고 합심하고 보듬고… 불교 위상 제고 견인차

2014 불교계 사회 · 복지분야 결산

2014년. 불교계 사회 · 복지분야에도 굵직한 사업들이 이어져왔다. 1994년 출범한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며 교계 장기기증 나눔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고,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필두로 불교계 NGO 단체들이 합심해 국제개발협의체를 발족시켰다. 그런가하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학교 건립사업 역시 공사를 앞두고 있다. 약자와 소외계층을 품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 이주여성모자가족과 부자(父子) 생활시설건립도 잇따랐다. 고령화시대에 걸맞게 각 복지관마다 노인복지사업을 활발히 펼친 것도 손꼽을만했다. 밖으로는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안으로는 불교적 가치에 충실하며 사회에 헌신해 온 것이다. 이번 한 해 불교계 사회 · 복지분야를 갈무리해본다.

교계 장기기증 사업 20년

불교계 장기기증운동을 주도해온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올해로 설립 20년을 맞았다. 1994년 생명공양실천본부로 출범해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키며 불교 자비사상에 바탕해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해온 전법의 길이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그동안 장기기증희망등록 4만여 명, 조혈모세포희망등록 3만여 명을 모집하고 7백여 명의 환자들에게 약 27억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며 국민 건강과 복지에 기여해왔다. 또 신장례문화를 선도하고 불교의 사회적 위상도 높였다는 의미가 있다.

불교계 NGO 협의체 구축

교계 NGO단체들이 합심해 불교계 최초 국제개발협력 협의체를 내년 발족하기로 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불교계의 안정적 사업수행 및 역량강화와 공통 현안 과제에 전략적 대안 수립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 지난 10월에는 기후변화대응 아시아 시민사회 컨퍼런스 한국조직위원회를 발족, 내년에 아시아 20개국에서 참가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했다.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네트워크로서 불교 단체가 주축이 돼 기독교, 천주교 등의 종교단체와 일반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탄자니아 농업학교 '순항'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아프리카 학교건립 사업을 추진하기로 공식 발표한 것은 지난해. 경기도 광주 곤지암 우리절 주지 동봉 스님이 소유해온 탄자니아 부지 4만평을 기증받아 사업에 탄력을 붙인 아름다운동행은 올해 학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시작을 앞두고 있다. 학교명도 '보리가람' 으로 지어졌다.

불교계 지원이 미진했던 아프리카 대륙에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시작된 학교건립에는 꾸준히 불자들의 정성이 이어져 약 2년간 12억여원을 모연하게 됐다. 2015년 완공 예정으로 개교는 2016년 할 계획이다.

아름다운동행은 이외에도 탄자니아 지역에 어린이 독서 장려 지원 프로젝트 '토토의 꿈' 과 급식 지원 사업 '하피존' , 우물 지원을 통한 식수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지역개발사업 또한 병행하고 있다.

소외계층시설 영역 확대

한부모가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온 불교계. 최근 그 결실을 맺었다. '꿈을이루는사람들' 은 지난 11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모자 자립시설 '달팽이모자원' 을 개관했다. 12월에는 진각복지재단이 부자(父子)생활시설 '선재누리' 의 문을 열었다. 달팽이모자원의 경우 전국 217곳에 다문화 지원센터가 들어설 정도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반면, 가정폭력으로 더 이상 가정을 지속할 수 없는 이주여성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는 인식에서 설립하게 됐다. 선재누리 역시 전국 120곳의 한부모가정 자립시설 중 두 번째로 개관하게 된 부자가족시설이다.

실버복지 전성기

어르신이라고 다 같은 어르신이 아니다. 각자 흥미있어하는 분야에 따라 올 한해 교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실버 프로그램들도 연극, 요리, 사진, 메이크업 등 다양화됐다.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만큼 각 복지관마다 어르신들의 제2인생 설계에 앞장선 것이다. 노년기 삶의 방식과 마무리에 대해 이야기장을 열며 진지하게 어르신들의 삶에 접근(송파노인요양센터)하는가 하면 홀몸 어르신들의 미팅 '두번째 프로포즈' 를 주선해 고립으로부터 오는 우울증 예방(연천군노인복지관)에 나서기도 했다.

또 매년 이어져오는 노인일자리사업도 순풍이었다. 인생을 활기차게 살고자하는 어르신들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문화해설가로 나서기도 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올해 플러스카페 채용경쟁률이 20대1이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열기는 후끈했다.



생명나눔 20주년 기념식(11월 11일)


탄자니아 농업기술고등학교 보리가람 조감도



모자가정 시설 달팽이모자원 입소식(3월 5일)


중림종합복지관의 남성 홀몸 어르신 요리강좌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제로투세븐, 1억원 상당 물품 후원

매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해와

매일유업 자회사인 (주)제로투세븐(대표이사 김정민)이 12월 17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1억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후원받은 영유아 물품은 국내 소외가정 어린이들에 지원한다.

재단은 "영유아 후원 물품은 전국 사회복지시설 및 영유아 보호시설을 통해 소외계층 아동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스님은 "제로투세븐은 지난 5년 동안 약 10억원의 물품을 후원하면서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업사회공헌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통해 자비나눔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재단 상임이사 보경스님과 매일유업 김인순 명예회장, (주)제로투세븐 김정민 회장이 참석했다.

(주)제로투세븐은 '알로&루, 포래즈, 알퐁소' 등 0세에서 7세까지를 위한 유아동복과 유아용스킨케어, 유아용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영유아 브랜드 전문 기업으로, 지난 2010년 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약 10억원 상당의 영유아 물품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측에 후원해왔다.

배현진 기자

강북장애인복지관 보건복지부 최우수 평가

장애인직업지원사업 부문 전국 2위… 3년마다 시행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사업 참여자들

불교계 장수복지관인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조석영)이 보건복지부 주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평가' 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강북장애인복지관은 12월 15일 "평가에서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3년마다 진행되는 평가는 전국 직업재활센터 3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실적, 사업관리, 자원관리, 재정관리, 지역사회관계, 서비스만족도 등 총 6개 영역에 걸쳐 이루어졌다.

강북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센터는 평가점수 100점 만점 중 97.49점을 기록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담당직원 인건비 2%상승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강북장애인복지관측은" '외식사업전문인력 양성과정 마중물' 이라는 특성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해 강북구 및 인근지역과 연계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외부업체를 꾸준히 발굴해왔다"며 "이러한 노력 덕분에 매번 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강북장애인복지관은 1998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직접 위탁받아 개관한 후, 3차례에 걸쳐 장애인직업재활사업평가 최우수 ·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전국장애인복지관 평가 최우수 · 우수기관에는 4번이나 선정됐다.

배현진 기자

"배울기회 없던 한국어, 이제야 익혔네요"

김천다문화센터, 이주여성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수업 장면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진오)의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이 잇달아 종강식을 맞았다.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은 교통이 불편해 센터집합교육에 참여하기 힘든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경북 김천을 권역별로 나눠 진행한 '출장 한국어 수업' 이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됐으며 수준별 한국어교육과 한국사회적응교육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생활 조기정착을 지원하고자 매주 화요일 13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운영됐다.

종강식은 12월 9일 감문농협협동조합에서, 12월 11일에는 지례면 지례초등학교에서 열렸다.

한국어교육 및 한국사회적응교육에 참여한 이주여성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경북 김천 어모면에 사는 베트남인 누엔 티디엠푹 씨는 "하루에 두 번 오는 버스를 타고 센터에 공부하러 가야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공부하러 가기가 힘들었는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돼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친구들도 만나서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는데 거리가 멀어 센터에 공부하러 갈수가 없었다"는 베트남인 누엔티비츠반 씨(경북 김천 구성면 거주)는 "내년에도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고 바람을 말했다.

배현진 기자

금정구노인복지관, 개관 첫 돌 맞아

12월 16일 1주년 기념행사… '금정愛 산다' 개최



12월 16일 금정구노인복지관에서 내빈들이 축하케익을 절단하고 있다.

금정구노인복지관(관장 조수경)은 개관 1주년을 맞이해 12월 16일 청룡동 금정구노인복지관에서 금정실버축제 '금정愛산다!' 를 개최했다.

사회복지법인 범어 (대표이사 수불, 범어사 주지)가 운영하는 금정구노인복지관은 법인 대표이사 수불 스님, 금정구청장 원정희, 부산시의회 의원 백종헌, 금정구의회 홍완표의장과 관내 어르신 및 지역주민 4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개관 기념식과 함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와 복지관 이용자들의 무용 및 합창, 댄스 등의 다양한 공연과 전시프로그램이 선보였다. 인근에 위치한 정신지체 특수학교인 은애학교 학생들과 월남참전용사 부산시지부 색소폰 앙상블 '전우야, 전통예술단 버선길' 회원들이 축하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금정구노인복지관측은 "우리 복지관의 미션인 '어르신이 주체가 되어 만드는 나누고 누리는 신명나는 노후' 를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지역축제 장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정구노인복지관은 2013년 12월 개관해 어르신들에게 평생 교육, 사회참여활동, 건강 및 정서생활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금정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8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12월 중

◆ 개강일시 : 2014년 12월 중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12월 中 (매주 목)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깨달음 우주에너지에서 답을 찾다

우주에너지를 통해서 무의식의 업장을 빠르게 소멸하고, 정화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은 무의식의 정화로부터 시작 됩니다. 모든 무의식의 관념과 에고의 잘못된 노력은 체내에 탁기로 쌓이게 되어 인생 전반의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된 고통과 질병과 관계의 불운을 낳게 됩니다.

모든 무의식은 알아차려 인정 해주고 달래주면 본성으로 회귀하는 것이 섭리인데 억압하고 놓아주지 않아 잘못된 처리 방식으로 인해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쌓이게 되어 내 삶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반복돼 자신의 인생에 장애를 주는 것을 불가에서는 업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의식을 인정해주고 놓아주고 바라봐주고 달래주는 것이, 체내에 탁한 기운들을 정화해주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고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인데 잘못된 방식의 수행 풍습으로 인해 3년 정도면 마칠 수 있는 수행을 몇 십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길을 바로 알고 모든 이를 바른 수행으로 이끌어 주기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이 돼어야 하는 것인데 깨닫기 위해 수 십년의 삶을 허비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주에너지를 백회와 송과체로 받아들이게 하여 7개의 차크라를 깨워 오장육부의 경락을 뚫어 마음의 눈 영안이 떠지고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도와 드립니다.

가슴의 변화를 통해 용기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원인은 고통체 (과거의 경험정보로 쌓아놓은 업식, 관념, 에고, 카르마) 무의식적인 몸을 지배하는 자동화 물질화된 부정적인 생각, 감정, 의지가 자신을 재생산하는 과정이 카르마 에고, 업식, 질병, 불행의 원인 현재의 인생 입니다. 물질화된 업식을 정화하는 방법과 수행으로는 토납법 - 몸에 근육과 근조직 신경계와 세포속에 무의식으로 자리잡은 물질화된 부정적인 정보을 몸 밖으로 토해내는 과정

몸에 난 구멍으로 탁한 기운들이 (가래, 기침, 눈물, 콧물, 진물, 방귀, 가스, 담음 등으로) 빠져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몸이 변하고 마음의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환골탈태가 일어나면서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가슴의 변화 믿음의 변화 용기의 수행 마음의 중심이 잡힌다 - 깨달음과 인체의 생명 전기장이 바뀐다. 기도수행, 몸 수행, 생각, 감정, 의지의 부정성의 청산 방법

인간의 모든 답은 가슴에 있다, 가슴을 열어 업장소멸은 물론 난치병의 자연치유 인생의 장애와 관계의 개선 인생의 의미와 깨달음까지 체험하는 새로운 수행방법

1. 깨달음을 찾는 모든 분, 스님과 불자분들
2. 업장소멸과, 카르마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고 싶은 분
3.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 싶은 분
4. 집안의 우환과 가정문제로 고통 받는 분
5.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
6. 하는 일마다 늘 장애를 받는 분
7. 빙의나 우울증, 조울증, 다양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분
8. 난치병, 원인을 알 수 없는 신병, 영적인 고통속에서 해매이는 분, 신병, 무속병
9. 기도나, 수행을 해도 인생의 고통이 안풀리는 분
10. 인간관계에 늘 고통스러운 분, 부모, 자식, 남편, 사업관계 다양한 분야

■ 상담시간 : 월 ~ 금요일 오전 9시 ~ 저녁 6시 까지
■ 상담비용 : 5만원
■ 수행은 상담 후 자신의 근기에 맞게 기운조절
■ 기업체, 산사, 신도회, 신행회 출장강의
■ 강의주제 : 가슴에서 답을 찾다.
■ 유튜브 동영상 강의 – 자각선원
■ 카페 : http://cafe.naver.com/dllbdllb 네이버 자각선원

자각선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3 5층 ☎ 043)296-5258 자각합장

세월호 아픔·빈곤 국가 보듬고 자비 실천 노력

불교계의 2014년은 다사다난했다. 특히 종단 내외부 갈등과 스님들의 범계 행위는 눈살을 찌뿌리게 했으나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빈곤국가 구호를 통해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자비 사상을 실천한 것은 큰 수확이다. 여기에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대형불사들이 잇달아 시작된 것도 눈길을 끄는 성과다.

신성민 · 노덕현 · 이나은 · 배현진 기자

1. 한국불교 선지식 송담 스님 탈종

한국불교 대표 선지식 중 한 명인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이 평생을 몸담았던 조계종을 탈종했다. 관련 공고가 나오면서 세간에는 제2교구 용주사 선거에서 빚어졌던 마찰부터 법인관리법에 대한 불만까지 다양한 요인이 탈종 선언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송담 스님은 탈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밝히지 않았고, 올해 동안거 결제 법어에도 이에 대한 발언은 없었다.

하지만 송담 스님의 제자인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참여하는 바른불교 재가불자 모임은 10월 14일 발표한 선언문에서 "송담 스님의 '수행가풍이 맞지 않다'는 말씀은 종단의 타락한 수행 풍토를 만들어낸 정치승들을 척결하지 못한 종도들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라며 "청정하지 못한 출가자들은 더 이상 존경 받는 승가의 일원이 아니라는 준엄한 경책"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2. 법인관리법 놓고 갈등 지속

올해 6월 조계종 중앙종회는 법인법을 폐기하고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으로 명칭과 애매모호한 법 조문을 보완해 제정했다. 사찰법인과 사찰보유법인이 마감된 9월 30일까지 등록 법인은 절반에 달하는 수치였으며, 만불회 등 대형 사찰법인들이 등록하지 않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조계종은 11월 중앙종회에서 다시 한번 법을 개정해 사찰 보유 법인들의 문호를 확대하고 징계 조항을 삽입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계종과 선학원의 법인법 갈등이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인관리법 제정 직후인 6월 30일 선학원 재단 이사장과 이사, 감사 스님들은 종단에 제적원을 제출했다. 이후 선학원은 분원장 회의를 잇달아 열며 종단에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결과적으로 10월 1일부로 승적과 사찰등록업무를 개시했다.

3. 불교, 세월호 아픔을 보듬다

불교계를 대표해 긴급재난구호봉사대를 전담 운영하고 있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사고 당일, 진도 향적사(주지 법일)와 현지상황을 공유한 다음 저녁 8시 선발대 파견을 결정했다. 그리고 이튿날 진도 실내체육관 옆에 부스를 설치하고 실종 ·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신속한 의사 결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고가 참사로 번지면서 각계 각층에서 구호 물품이 답지하자 불교계는 법당을 마련하고 장기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 활동을 펼쳤다. 가족들의 불안을 위로하고 공감해줌으로써 종교 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했던 것이다. 타종교계에 비해 적극적으로 사고 수습에 기여했다는 외부 평가도 잇따랐다. 또 조계종 노동위원회와 불교시민단체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을 때 광화문 광장에서 3천배를 봉행하고 유가족과 함께 단식투쟁에 동참하는 역할도 자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단식농성 중인 유가족을 위로 방문하기도 했다. 기도도 끊이지 않았다. 희생자들의 무사귀환 발원부터 희생자 추모재, 극락왕생 기원 수륙재등을 개최하며 사회의 아픔을 껴안았다.

4. 주요 종단들 대형 불사 추진

올해 주요 종단과 단체들은 굵직한 대형 불사를 시작하게 됐다. 조계종은 핵심 주요 과제로 '조계사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지난 11월 17일 '총본산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봉행했다. 10.27법난기념관 등이 건립되는 성역화 사업을 통해 조계종은 조계사 일대를 해원 ·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진각종도 3월 10일 진각문화국제체험관 및 교육관 기공식을 봉행했다. 진각문화국제체험관은 국고보조금 30억원을 포함해 총 70억원을 들여 부지 3,969.6㎡에 연면적 4,963㎡의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규모로 건축된다.

선학원도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신축불사에 들어갔다. 11월 20일 선학원은 지하 4층 지상 2층 연건평 1991.74㎡ 규모로 지어질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기공식을 통합민주당 정세균 의원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5. 올해도 계속된 스님들 범계 행위

조계종은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승가청규를 제정하고 승려법을 개정해 범계행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신도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스님 등이 문서 견책으로 낮은 형량을 호계원에서 받아 문제가 됐다.

여기에 음주 범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상좌 2명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 받게 됐고, 급기야 총무원 호법부는 금족령에 가까운 지침을 일선 사찰에 하달하기도 했다.


5월 22일 자승 스님이 팽목항을 찾아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1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총본산 성역화사업 추진위 사무실 개소식 장면



안국동 선학원 중앙선원 앞에서 수덕사 수좌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불교문화재 도난예방 및 회수협약을 맺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가운데)과 나선화 문화재청장(왼쪽), 강신명 경찰청장


필리핀 타나완국립고 완공식에 참석한 학생들(11월 26일)

6. 도난 성보문화재 환수 성과

5월 인사동의 한 경매장에서 도난문화재 3점이 조계종과 경찰의 긴급수사로 압수된 데 이어 수사 과정 중 한 사립박물관장이 은닉했던 불교문화재 48점이 회수됐다.

점당 추정가가 수억원을 웃돌뿐만 아니라 보물급 문화재도 10점 이상 포함됐다.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이미 충북 유형문화재 206호로 지정된 작품이었다.

문제는 이들 문화재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난 뒤 나온 것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했다. 또 장물인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 매수인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법적 미비점도 발견됐다.

이에 조계종총무원, 경찰청, 문화재청은 10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문화재 도난 예방 및 회수를 위한 상호 협력적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협약했다.

7. 용성 · 만해 스님 선양 사업 잇달아

올해는 석전, 한암, 용성, 월하, 자운, 무진장 스님 등 근현대 고승들의 사상과 업적을 재조명하는 선양사업이 대거 열렸다.

통도사 노천문도회의 3월 월하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학술대회, 혜암선사문화진흥회의 4월 혜암 스님 사상 조명 학술대회, 한국불교학회의 4월 석전 · 한암 스님 재조명 학술대회, 정토회의 5월 용성 스님 탄신 1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만해사상실천선양회의 만해 열반 70주기 학술대회, 10월 숭산 스님 열반 10주기 세계일화대회 등이 그 것이다.

특히 용성 스님 탄신 15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 장수 죽림정사, 정토회, 대각회 등 유관단체들이 모두 모이기도 했다. 세계일화대회에서는 전세계 제자 1000명이 태화산 전통문화연수원에서 청년들에게 불교계가 제시할 수 있는 인생의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8. '수행결사' 신행 트렌드로 부상

종교적 지향을 공유하는 불자들끼리 신행 실천의 약속을 맺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수행을 하는 수행결사 모임이 수년째 꾸준히 염불 · 절 · 참선을 지속해와 불교계에 귀감이 됐다.

매월 정기적으로 모여 경전을 독송하고 전국 사찰을 순례하는 인터넷 수행카페 '금강 불교입문에서 성불까지(이하 금강)'는 지난 5월 오프라인 모임 100회를 맞았다. 2004년부터 신도들과 다라니 정근을 이어온 일산 덕양선원(주지 법상)은 올해 '대비주 수행 10년 결사'를 회향하는 법회를 지난 4월 거행했으며, 수행정진의 열기는 경북 구미에서도 이어져 지난 11월에는 구미 수행회가 발족됐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매월 해인사 백련암에서 전국의 불자들이 모여 3천배 정진을 해온 '아비라' 카페가 창립 10주년을 맞기도 했다.

9. 올해도 불교계 해외구호 사업 약진

올 한해 불교계 NGO 단체들의 활약도 꾸준히 이어졌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지난해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서 재건작업을 벌인 결과 지난 6월 파웡 초등학교 완공을 시작으로 6개 초 · 고교를 완공했다. 올해 9월에는 2010년 강진 피해를 입은 아이티에 헤르메 바야드 고등학교를 완공함으로써 현지인들이 재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설립 10년을 맞은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는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축적해 지난 8월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로부터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 NGO 자격을 부여받았다. NGO 문제에 관해 UN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UN 주최 관련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또 로터스월드는 2006년부터 시작한 캄보디아 국제의료봉사사업에서 지난 6월 개안 수술 1천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 역시 한 해 동안 케냐와 미얀마, 라오스 등지에서 학교와 핸드펌프 등을 꾸준히 완공해왔다.

10. 해외 유명 수행자 방한 '인기몰이'

수행과 명상에 대한 열기가 그치지 않는 가운데 해외 명상지도자들이 방한해 활발한 활동이 이어졌다. 지난 10월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의 초청으로 구글 엔지니어이자 세계적인 명상가로 활동 중인 차드 멍탄이 방한해 명상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또한 지난 6월 서울시청에서는 한국과 중국, 미얀마, 티베트에서 수행에만 전념해온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명상을 지도하는 '바른집중' 수행법회가 열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 초기불교 및 금강승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얀마 파욱 숲속사원 수행지도자인 우실라 스님이 불자들을 대상으로 사마타 · 위빠사나 수행을 지도했으며, 티베트 출신 아남 툽텐 린포체와 캐나다 출신 글렌 멀린 법사가 동국대 국제선센터에서 티베트 명상수행법에 대해 지도법문을 펼치기도 했다.



2014 학술·문화재 결산

불교문화의 새로운 가치 확인한 1년

[학술] 근현대 선지식 연구 '활발', 기초연구 성과물 '눈길'

2014년은 근현대 고승 연구의 기념비적인 해로 꼽힐 정도로 불교의 근현대사에 대한 조명작업이 활발히 이뤄졌으며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서비스 개시를 비롯해, 각종 사전 등을 비롯한 기초연구 분야의 성과물이 대거 선보였다.

먼저 신년을 맞아 1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개최한 원측 스님 탄신 1400주년 기념 콜로키움을 시작으로 11월 불교학연구회와 불교문화연구원의 '원효 사상과 동아시아 불교' 학술대회까지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조명이 이뤄졌다.

특히 석전, 한암, 용성, 월하, 자운, 무진장 스님 등 근현대 불교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스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노천문도회가 3월 월하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혜암선사문화진흥회가 4월 혜암 스님의 사상을 조명하는 첫 학술대회를, 한국불교학회가 같은달 석전 스님과 한암 스님 사상을 밝히는 기념세미나를, 정토학회가 5월 용성 스님 탄신 1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고 그동안 연구해왔던 다양한 자료를 공개했다. 만해축전 기간동안에는 만해사상실천선양회와 만해학회 등에서 만해 열반 70주기를 맞아 심우장 시절 등을 조명했다. 이와 함께 보조사상연구원은 16국사들에 대한 재조명 작업을 꾸준히 펼쳤다.

근현대 고승들의 업적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설립도 이어졌다. 10월 무진장 스님의 포교사상을 선양하는 무진장불교문화원이, 11월 자운 율사 스님의 계율 정신을 펼치는 자운계율사상연구원이 창립됐다.

역경 분야에서는 불교기록유산 아카이브 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사전 편찬과 선학 연구 성과물이 줄이어 나왔다. 먼저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은 6월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로 인해 그동안의 디지털화 된 불교기록유산을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용성 · 만해 등 근현대 고승 조명
〈한영불교대사전〉 등 기초학문 성과
동국대, 해외대학과 교류 가속화

이와 함께 대형 사전류도 편찬됐다. 찰스 뮬러 도쿄대 교수와 전옥배 한국불교번역연구원장이 편찬한 〈한영불교대사전〉은 7년의 작업기간 동안 불교의 주요 표제어 1만 2000여 개를 담아 화제가 됐다. 동국대 교수 혜원 스님과 데이비드 메이슨 남서울대 교수가 편찬한 〈An Encyclopedia of Korean Buddhism〉은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한 백과사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해인총림 율주 종진 스님의 〈원전회편 선문염송집(原典會編 禪門拈頌集)〉과 천안 평심사 정원 스님의 〈태화선학대사전(泰華禪學大辭典)〉도 선학 연구의 밑바탕이 될 성과다. 전재성 박사 또한 5월 빨리율장을 처음으로 완전 번역해냈다.

불교 학술교류의 세계화도 더욱 활발히 진행됐다. 동국대는 5월 '제1회 동아시아 4개대학 불교학 국제학술회의'를 열고 2013년 정례개최를 약속한 동국대, 중국 베이징대, 일본 도쿄대, 대만 타이완대와 불교학연구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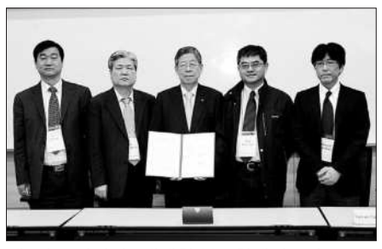
반면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어졌다. 먼저 서명원 신부가 1월 초 〈가야산 호랑이의 체취를 맡았다〉를 통해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 주장이 군부정권과의 구조와 닮아있다는 주장을 해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

지난해 발생한 동국대 불교학술원 행정파행이 그대로 소송으로 이어졌으며 국내 학문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이 종교분야 책임전문위원을 선정하며 불교학 분야를 배제해 불교학계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2월에는 국내 계율학과 재가불교의 기틀을 다진 목정배 교수가 별세해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동국대 불교기록유산 아카이브 검색시스템


제1회 동아시아 4개대학 불교학대회 모습



〈선학대사전〉과 〈한영불교대사전〉 표지


용성 스님 탄신 1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문화재] 불교의례 및 의식 재정립 원년

문화재와 관련해 2014년은 의미있는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숭례문 부실공사 파문을 시작으로 석굴암 · 대장경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으며, 그로 인해 문화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됐다. 불교계에서는 성보에 대한 소중함이 더욱 부각돼 도난백서 발간, 모니터링 강화, 불교청년단체들의 문화재지킴이 활동들이 이어졌다. 부석사 불상 반환문제가 지속적인 이슈가 되며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다.

문화재청의 특별 점검에서는 성보문화재 보존이 총체적인 부실하다는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전국 7393점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긴급조치가 필요한 보물 이상급 문화재 중 불교문화재가 80%가 넘는 것으로 조사돼 당국이 비상에 걸리기도 했다.

불교문화재로는 그동안 관심받지 못했던 다비, 불복장 등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대폭 높아졌다. 2월 불교다비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발간됐으며, 전통불복장보존회가 4월 설립되고 7월 첫 시연, 11월 학술대회를 열었다.

5월에는 서울의 한 경매장에서 도난 불교문화재가 대거 발견되기도 했다. 수사결과 총 48점이 회수됐으며 이를 계기로 조계종과 문화재청, 경찰청은 문화재 도난예방 협약을 맺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계종은 특히 도난백서를 새로이 발간하기로 했다.

문화재 관리 총체적 부실 드러나
성보 대거 근대 문화재로 등록
전통전통사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새롭게 발견된 문화재도 대거 선보였다. 5월에는 동국대 박물관이 수장고 정리 괴정에서 국내 최고(古)인 청동바라를 발견해 공개한데 이어 8월에는 국보급 금강령 등이 도봉서원 터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는 희귀한 고려불화가 연이어 공개됐는데, 이는 고려불화에 대한 대중들의 안목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중국불화 등으로 여겨졌던 가치를 알게된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불교문화재가 대거 근대문화재로 등록되기도 햇다. 9월 문화재청은 '양산 통도사 자장암 마애아미타여래삼존상' 등 불교 유물 21건을 문화재 등록했다.

그동안 불교계 안팎에서는 미래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는 근대문화재 지정에 대해서도 불교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는 전통사찰 7곳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 해이기도 하다. 8월 전통사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위가 발족한데 이어 12월 첫 학술대회를 열기도 했다.

대한제국 국새 반환을 성공리에 이끌고, 일본 오쿠라 콜렉션 환수를 위해 동분서주한 혜문 스님의 행보나, 문화재 지킴이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대한불교청년회의 활동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박근혜 대통령의 석굴암 점검


조계종의 도난 성보 회수 모습

부석사 관세음보살 국민청원운동 전개

부석사불상제자리봉안위, 1월 7일 서산시청에서 개최

부석사 관세음보살을 본래 자리인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한 국민청원운동이 전개된다.

서산 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이하 봉안위)는 1월 7일 오후 2시 충남 서산시청에서 국민청원운동 발대식을 개최한다.

국민청원운동은 총 650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원운동 내용에는 '일본 관음사가 정당하게 취득했다고 밝히기 전에는 일본으로의 점유이전을 금지 한다'는 2013년 2월 대전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토대로 일본이 정당하게 소장했다는 경위를 밝히기 전에는 어떠한 '환부還付' 조치에도 반대한다는 뜻이 담긴다.

더 나아가 대마도와 일본 내 한국 문화재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공동조사 촉구 내용도 담긴다.

봉안위 측은 "11월 30일 한일문화부장관회담에서는 일본 측의 불상 반환요구에 김종덕 장관이 일본에 있는 6만7천여 점의 우리 문화재의 반환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등 한일협정 50주년을 앞두고 '문화재반환' 문제가 뜨거운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불법반출 문화재에 초점을 맞추던 환수운동의 범위를 13세기 왜구와 15세기 임진왜란 당시의 약탈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청원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이상근 CAIRA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는 "원소유자의 소유권은 항구적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석사 관세음보살'은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청송 보광사 극락전' 보물로 지정



문화재청은 경북 청송 보광사 극락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840호로 지정했다.

보광사 극락전은 상량문에 의하면 만력 43년(萬曆43年, 1615)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극락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맞배지붕 형식의 건축물이며, 특징적인 것은 측면 박공 부분에 설치된 현어다.

조선 중 · 후기의 현어는 앞뒤 박공판이 만나는 부분에 꺾쇠로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덩굴 무늬의 현어를 목재로 사용한 것은 보기 드문 예다.

'청송 보광사 극락전'은 불전 건축의 구조 양식과 공포 구성에서 기존에 보물로 지정 · 보존하고 있는 △청도 대비사 대웅전(보물 제834호, 17세기) △청송 대전사 보광전(보물 제1570호, 1672년) △경산 환성사 대웅전(보물 제562호, 1635년) △청도 대적사 극락전(보물 제836호, 1635년) 등 17세기 불전 건축에서 채택된 건축수법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노덕현 기자

대만 불광산사 4개 대학과 학술협정

중앙승가대, 미국 서래대, 대만 남화대·불광대, 호주 남천대와

중앙승가대학교(총장 원행)가 대만 불광산사 산하 4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제2의 창학'을 목표로 학술발전과 승가학풍 쇄신의 기치를 내건 중앙승가대는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국제학술교류 협정단을 구성해 대만 불광산사가 설립한 4개 대학과의 학술교류를 체결했다.

12월 7일에는 미국 서래대학, 12월 8일 대만 남화대학, 12월 9일 대만 불광대학, 12월 10일 호주 남천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을 통해 중앙승가대는 2+2학년제 실시로 복수학위 인정 및 장학금과 기숙사가 무료로 제공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보장한다.



중앙승가대와 불광산사 산하 4개대학은 향후 공동 학술세미나와 특강 및 교수교류 등을 통해 불교발전과 세계화에 일조하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뭇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 처명)

전남 자비나눔, 연말에도 추위 잊었다

광주 불교단체, 연탄 · 김치 · 생필품 나누기 '눈길'

행복한 세상을 위한 다양한 나눔활동이 광주에서 펼쳐졌다.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는 자비신행회와 공동으로 12월 15일 '이웃과 나누는 기쁨! 2014자비의 연탄나누기'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연광 스님, 보응 스님, 혜공 스님을 비롯한 광주불교연합회 회원사찰 스님들과 기금모금에 참여한 광주불교산우회 회원, 자비신행회 회원들이 동참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연탄 1만장, 쌀 1000kg, 김장김치 100상자가 광주지역 차상위계층인 독거어르신 가정 100가구에 보내진다.

연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소외된 어르신 가정에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보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활동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나눔물품은 동구 학동 구ㅇㅇ(여 75) 할머니집에 연탄 400장과 쌀 20kg, 김장김치 10kg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전달될 예정이다.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도 지난 13일 '자비의 연탄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은 원효사, 원효사 신도회, 공옥진밥차, 신양파크호텔 회원들이 마련

나눔나무, 15일 독거어르신 돕기
생명나눔, 13일 저소득가정 지원
불교산우회 · 자비신행회 등 참여

한 기금으로 북구지역 저소득계층 25가구에 연탄 5000장을 전달했다. 이어 14일에도 원효사 경내에서 '제20회 자비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갖고 배추 1500포기로 전체 250상자를 만들어 북구청, 자비신행회, 영광 난원 등에 전달했다.



빛고을 나눔나무와 자비신행회가 공동 진행한 연탄나눔 행사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전달된 김장김치는 북구청을 통해 차상위계층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원효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김장행사에는 생명나눔회원, 원효사 신도회, 청년회 등 30여명이 참여해 김장김치 담그기를 진행했다. 올해 20회를 맞이한 김치나누기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해 2013년부터 봄 김치, 가을 김치 담그기를 펼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는 이어 21일 장성 상무대에서도 '생명나눔 밥차'를 개최하고, 장병 400여명에게 닭죽 점심봉사를 진행했다.

현지 스님은 "겨울이 되면 우리는 늘 힘들어하는 다양한 계층을 찾아 돌봐줘야한다"며 "우리는 겨울을 쉽게 지내지만, 소외된 이웃들에게 겨울은 큰 시련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전남포교사단 새해 맞이 전진대회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김정연)은 12월 13일 수자타에서 '불기 2558년 포교사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진대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을 비롯해, 각안 스님(지역단 지도법사), 도제 스님(섬포교 지도위원), 포교사단 중앙 장용숙 부단장을 비롯한 포교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 시상식에서는 총재상에 정동욱, 중앙단장상 강진욱, 단장상 김성일, 최대호, 김정순, 김금태, 나미경 포교사가 각



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창호, 이성환 박만우 포교사에게는 공로패와 감사패가 전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서원노인복지관 '서원가족 송년행사'

금산사 복지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전주 서원노인복지관(관장 석초)은 12월 12일 복지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을 초청해 '서원가족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복지관의 자원봉사활동과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서원가족으로서 소속감과 더불어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행사는 태극권과 오카리나 공연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1부 개회식과 봉사왕에 대한 감사장 전달, 레크리에이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2011년부터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전북 공무원노동조합 도일회(회장 김희숙)와 서원노인복지관 늘푸른자원봉사단(이영순 회원)이 봉사왕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내년 4월 학술대회… "새 패러다임 모색"

세계불교종단연합회 송년대법회 12월 12일 열어



세계불교종단협의회는 12월 12일 대전 대림관광호텔에서 송년대법회를 열고 신년계획을 밝혔다.

세계불교종단연합회(총회장 현불)는 12월 12일 대전 대림관광호텔에서 '송년대법회'를 열고 2015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세계불교종단연합회 총재 도성 스님은 법문을 통해 "현대인들은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해 오히려 정신문화는 퇴보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 불교가 헤쳐 나갈 길은 수행과 교리공부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스님도 "원효성사의 통불교 사상을 중심으로 미래사회의 불교 정립을 위한 새로운 방향 설정과 불교 교리를 통한 인류 구원의 새 장을 열어가는 국제불교 신행단체로서 내년에도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재가불자들의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년 4월에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신년 구상을 밝혔다.

또한 세계불교종단연합회는 이외에도 △각 국간 수평적 네트워크 구성 △불교문화 교류 심포지엄 연1회 개최 △출가일치 운동과 재가법사제 캠페인 △불교음악의 국악화와 세계화 △회원 종도교육 강화 등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세계불교종단연합회 총재 도성 스님을 비롯해 한국불교화쟁회 이사장 정암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속초 신흥사, 대규모 자비나눔대법회

저소득 지원과 장학금 전달 등 1억 1000만원 후원

속초 신흥사(주지 우송)와 신흥사복지재단은 12월 23일 속초 마레몬스호텔 대연회장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나눔대법회'를 열고 저소득세대 후원금 및 장학금 지급 등 총 1억 1700여 만원을 지원했다.

자비나눔대법회는 신흥사한마음합창단의 음성공양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1부 기념법회, 2부 저녁공양 등으로 진행됐다, 법회에서 화환 대신 쌀과 성금 등을 기탁받았다.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신흥사 본말사 신행단체와 신흥사복지재단 가족, 후원자님들과 함께 송년의 아쉬움과 신년의 희망을 담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겠다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사상을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속초 신흥사는 이날 저소득계층 450세대에 6000여 만원 상당의 쌀과 안경상품권, 전기장판 등을 전달하고, 관내 경로당 81개소에는 쌀과 라면 등을 지원했다. 또 '설악산 신흥사 불교장학회(성준장학재단)'을 통해 5000여 만원의 장학금도 수여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주기 사업'도 전개됐다.

노덕현 기자

전북불교계, 도법 스님 법회로 한해 마무리

전북불교신도회는 12월 14일 전북불교회관 4층 큰 법당에서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본부장 도법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김백호 회장은 환영사에서 "갑오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법석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귀한 만남의 자리가 되도록하자"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붓다로 살자는 횃불을 들고 전북불교의 활로를 열고 나아가 한국불교사회 전체에 번져 나갈 수 있도록 발심하자"며 "갑오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잘 맞이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불자가 되기 바란다"고 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제 아이의 공부를 도울 수 있어요"

착한벗들 한글자격 프로그램, 다문화 주부들에게 인기

다문화가족 지원NGO인 (사)착한벗들(대표 회일)이 운영하고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행복한 취업교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다수 한글ITQ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착한벗들의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행복한 취업교실'은 3개월간 총24회 걸쳐 진행된 수업이 진행돼 높은 인기를 얻었다.

시험에 합격한 베트남출신 황수진(황티튀)씨는 "이번 시험에 합격한 것이 꿈만 같다며, 아이들이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되어 학습 지도를 해야 하는 것이 걱정이었는데 앞으로 아이의 공부를 도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사)착한벗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전통동화 읽고 이해하는 가운데 동화에 나오는 어린이용 소품을 만드는 공예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주 송광사 등탑 세워… 1월 지장재일까지

을미년 새해희망을 기원하는 대형 송구영신 등탑이 불을 밝혔다.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는 12월 12일 등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등탑은 9m의 높이에 지난 갑오년과 다가올 을미년을 상징하는 2개로 각각 365개의 작은 등으로 구성됐다. 이 등탑은 내년 1월 지장재일까지 불자들의 소망을 담아 불을 밝힐 예정이다.

법진 스님은 "갑오년은 세월호 참사 등 많은 일들이 우리들을 아프게 했다"며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정진하자는 의미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송구영신 탑을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송광사는 동지를 맞아 22일 전주 모래내 시장과 오거리 광장에서 3,000인분의 팥죽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2015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7기 수강생 모집 안내문

그동안 제1기에서 제6기까지 전국에서 8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
2 사찰에서 스님을 도와 신도 관리를 하는 총무 보살이나 신도회장 보살

◆교육기간 : 2015년 3월 초부터 6개월간
◆수 강 료 : 6개월 교육 전기간 무료
◆개강일자 : 2015년 3월 3일(화요일) 오후 1시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후로 자세한 안내문 보내드립니다.)
◆책 자 : 책자는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이며, 책자대금은 별도입니다.
본회의 사주명리학 강의는 초보자라도 6개월간 교육을 마치면 누구나 적중률에서 일인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배우시고 나면 큰 보람을 느끼십니다.

상담문의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 Fax 031)768-8413

사자암 법보시



내가있고 너가있고
내가없고 너가없고
공존공생 도의진리

신 도덕경을 법보시 하오니 원하시는 인연님은
다음카페「사자산 사자암 법보시」란에
책 받을 주소 / 성명 / 폰번호 / 입력하시면
우체국 택배로 무보시 합니다!

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총무원
사 자 암 석 장원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한마음으로 준비한 콘서트… 군장병 큰 위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53사단 125연대 장병 위한 콘서트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이하 부산 한마음선원)이 태종대 입구에 위치한 53사단 125연대 군장병들을 초대해 콘서트를 마련했다. 부산 한마음선원은 12월 14일 부산 한마음선원 대강당에서 '제1회 늘푸른 콘서트' 를 개최했다.

늘푸른 콘서트는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항상 푸르게 가지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군장병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연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어려운 법문이 아닌 동영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점심 공양, 불교문화체험 및 1부 댄스콘서트와 2부 뮤직콘서트로 마련됐다. 1부에서는 부산 한마음선원의 학생회 사물놀이 무대를 시작으로 대장부 댄스팀, 장검무, 밸리댄스, 걸그룹 The Fix의 순으로 공연이 이어졌다.

이어 2부 뮤직콘서트에서는 White Elephant 밴드, 경혜여고 2학년 장서영의 솔로, 어린이 합창단의 선법가, 경혜여고 3학년 강예은의 솔로, 청년 합창단의 선법가 등이 어어졌고 마지막은 참가자 전원의 '거위의 꿈' 합창으로 마무리 됐다. 또한 사찰 퀴즈 및 넌센스 퀴즈로 경품도 전달하며 장병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여기에 대강당 벽에는 어린이 법회와 학생부 회원들의 위문편지로 꾸며져 군장병들을 응원했다.

늘푸른 콘서트 출연진들은 부산 한마음선원에 소속된 각 신행단체들로 이번 군포교 위문공연을 위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부산 한마음선원 청년회 신도회장이자 장검무로 무대를 꾸몄던 임나영(33) 씨는 "스님과 함께 마음을 모아 모든 법우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콘서트였다"며 "짧은 기간 준비했지만 즐겁게 무대를 꾸몄고 포교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뻤다"고 소감을 밝혔다.

댄스콘서트 등 100여 장병 호응
지난해부터 매달 법회로 군포교
매년 12월 콘서트 개최 계획도

또한 이번 콘서트는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춰 콘서트를 진행해 어렵게 느껴졌던 불교의 이미지를 넘어 한층 편안하고 친숙한 분위기가 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이 자리에 참여한 조민우 일병은 "불교를 밖에서 봤을 때는 근엄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느낌이었는데 참여해 보니 편안하고 즐거워 다음에 또 참석하고 싶다"며 소감을 말했다.



부산 한마음선원은 12월 14일 부산 한마음선원 대강당에서 군장병들을 위한 '제1회 늘푸른 콘서트' 를 개최했다. 왼쪽은 부산한마음선원 회원들의 공연장면, 오른쪽은 즐거워하는 군장병들

부산 한마음선원의 53사단 125연대와의 인연은 2013년 1월부터 법회를 진행하며 시작됐다. 이상철 연대장의 부탁으로 시작된 법회는 현재 매달 둘째주 일요일에 동영상 법문, 게임, 퀴즈, 참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시작 당시에는 법당이 없어 회의실에서 법회를 하며 참가자도 10여명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법당 설립과 함께 현재는 정기적으로 법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40여명으로 늘어나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군포교를 담당하고 있는 혜영 스님은 "군포교의 핵심은 불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어려운 법문과 다가가기 힘든 근엄함을 버리고 편안함으로 눈높이를 맞춰 다가갔다는 의미다. 법회의 방식도 색다르다. 법문보다는 한달 동안 마련한 새로운 동영상으로 마음에 대해 설명하며 군장병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불교적 깊이와 체험을 위해 명상법을 교수하고 명상실참을 진행해 불교의 참뜻을 가르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군포교 후원회를 구성하고 매 법회 때마다 다양한 간식을 준비해 참여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부산 한마음선원 지원장 혜도 스님은 "군폭력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군포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며 "젊은 장병들이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군 생활을 지혜롭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전했다. 이어 혜도 스님은 "앞으로 군 장병들이 부처님 법을 제대 후에도 계속 공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사회에서도 포교의 연결고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늘푸른 콘서트를 매년 12월 둘째주 일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하성미 기자

통도사, 체육인 불자 장학금 전달

12월 15일 설법전에서… 11명에게 총 1100만원 전달

통도사가 체육 불자인들을 위한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통도사(주지 원산)는 12월 15일 설법전에서 체육인 불자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 및 상장을 수여했다.

장학금 대상자는 경남체육고등학교 임지현 외 6명, 창원대학교 제갈민우 외 1명, 진영고 원지수, 창원여고 김경영 등 총 11명으로 각각 100만원 씩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주지 원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여기 있는 체육인들은 불자로서 좋은 성적을 거둬 국위를 선양하고 부처님을 지극히 믿으며 훈련 중인 학생들인 걸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의미로 장학금을 마련했으며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불자 체육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창원대 권기홍 학생은 "불교의 마음공부를 바탕으로 고된 훈련도 인내하고 이겨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통도사는 체육인 불자 인재양성을 위해 2009년부터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하성미 기자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이 12월 15일 체육인 불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은사스님 본받아 수행에 전념하자"

은해사 일타 대종사 15주기 다례재

팔공산 은해사(주지 돈관)가 12월 13일 동곡당 일타 대종사 15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부도탑과 조사전을 참배한 뒤 경내 템플스테이관인 육화원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조실 혜인 스님, 회주 법타 스님, 관장 돈명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팔공산 은해사가 12월 13일 동곡당 일타 대종사 15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다례재를 봉행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큰스님의 유지에 따라 설립한 학교법인 동곡학원 선화여자고등학교는 지역의 전통명문사학의 면모를 갖춰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우뚝서게 됐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부대중 여러분 모두 한해를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은해사 조실 혜인 스님은 법문을 통해 진정한 수행자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혜인 스님은 "은사 스님의 자비와 지혜, 청정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수행에 전념하자. 특히 문도, 문중스님들은 연로하신 노스님들을 잘 모시자"고 전했다.

동곡당 일타 대종사는 1942년 친가, 외가 식구 41일 명 모두가 출가함에 따라 양산 통도사에서 고경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총림 율주, 조계종 전국 구족계 단일계단 전계대화상,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을 지냈으며 1999년 11월 29일 하와이 와불산 금강굴에서 입적했다. 저서로는 〈생활속의 기도법〉 등 20여 권이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초기경전으로 삶의 근본 문제 해결한다

부산 해피법당 개원 기념 특별 강의 … 1월 6일부터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부처님의 경전으로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강의가 열린다. 한국 테라와다 해피법당 선원장 해피 스님은 부산 법당 개원 기념 특별 강의를 진행한다.

2015년 1월 6일부터 23주간 진행되는 이번 특별 강의는 새출발법회와 해피설법회로 나눠 진행된다.

새출발법회는 초기불교경전(니까야)을 처음 접하거나 기초교리 공부를 원하는 불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해피설법회는 출가자, 또는 불교학자, 명상지도자 등 전문적인 공부를 원하는 불교신자를 대상으로 심도 깊은 강의가 진행 된다. 해피설법회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되며 수강료와 교재비는 무료다. 해피 스님은 "새출발 법회는 처음 초기불교를 접하는 분들도 무리 없이 따라 올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해피법당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기본 정기법회, 일요일 오후 2시 근본 경전 니까야 중 중요 경전을 독송하고 문답하는 '독경법회' 를 연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해피스님과의 대화' 를 열고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경전을 바탕으로 문답하는 시간도 갖는다. 또한 사념처(四念處) 수행지도 및 실참은 월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부산 해피법당 수강 신청은 네이버 카페 해피법당 http://cafe. naver.com/happybupdang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하성미 기자

"승가의 화합과 발전 도모하겠다"

진광 스님 운문사 신임 주지로 취임

청도 운문사 신임 주지에 진광 스님이 취임했다. 이에 운문사는 12월 14일 경내에서 취임 인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운문승가대학 회주 명성 스님,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진광 스님〈사진〉은 앞으로 "불보살님과 역대 조사스님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회주스님과 여러 대중스님, 불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운문사가 한국 최대 비구니 승가 교육도량이 되도록 내실을 기하겠다. 청정한 비구니 승가의 화합된 모습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며 의지를 전했다.



진광 스님은 1978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 · 사미계를 수지했고, 1985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1990년부터 운문승가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운문승가대 학감(2010년), 조계종 승가고시 전문위원(1999~2003년) 등을 지냈다. 한편, 이날 취임식과 함께 운문사는 '오백전 100일 기도 회향' 기념식을 가졌다.

주지 진광 스님은 "매년 연말이면 운문사에서는 오백나한 백일기도를 한다. 회향이란 자신이 지은 선한 공덕과 노력을 일체 중생에 널리 나누고 되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회향하는 삶이란 나와 일체의 존재를 이익 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나누고 베푸는 삶"이라며 회향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말없이 잠든 불상위로 白雪만 오롯이

열반상이 있는 사찰을 찾아서

④ 부여 미암사


길이 30m, 높이 7m, 손가락길이 3.5m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와불. 특히 발바닥에는 1만6천여 옴자가 새겨져 있다.

절 입구 200여개 금불상 제일 먼저 반겨
33층 높이 사리탑 장엄하게 세워져 있어
큰 규모를 자랑하는 와불, 감탄사 연발
미암사 대웅전은 와불 속의 몸 속 법당
경내에 위치한 쌀바위 전설로도 유명

불자들이 절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일 큰 목적은 기도신행을 위해서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변 경관과 볼거리는 보너스다. 두 가지를 다 충족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부여 미암사는 이 두 가지를 다 총족시켜주는 절중하나다. 주변 경치도 빼어나지만 경내도 아름답다. 부여에서 보령 방향으로 16㎞를 달려 계향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곳. 미암사는 다른 절에서는 만날 수 없는 볼거리가 많이 있는 절이다.

부여 미암사를 찾은 12월 12일에는 서설(瑞雪)이 내렸다. 흰백의 눈은 경내를 더욱더 고즈넉하게 만든다. 평화롭고 고요하다. 눈길을 사뿐사뿐 걸으며 경내로 들어서니 예사롭지 않다.

입구부터 눈을 맞으신 200여개의 금부처님들이 반긴다. 평균 사람키보다 조금 더 큰 180센티는 돼 보인다. 각양각색의 부처님을 친견하며 1백미터 올라가보니 제일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우뚝솟은 33층 높이의 진신사리탑이다. 이 안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들어 있는데, 1998년 3월 봉안 당시 1과이던 것이 2004년 와불 준공 무렵에 2과가 증가되는 불가사의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진신사리탑 위쪽이 본격적인 경내라 할 수 있다.

언덕길을 올라서니 입이 쫙 벌어진다. 와불이다. 길이가 엄청나다. 정확한 치수를 물어보니 길이 30m, 높이 7m, 손가락 길이 3.5m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고 한다. 특히 발바닥(불족)에 법륜과 옴자 1만 6000여 자가 새겨져 있어 관(觀)하면서 손으로 문지르면 중생 번뇌가 소멸되고 만복을 얻는 다는 속설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와불의 발바닥을 손으로 쓰다듬는 불자들의 발길이 1년 내내 끊이질 않는다고 주지 만청 스님은 설명한다.

황금색 와불은 근엄하거나 엄숙하기 보다는 오래전부터 알던 얼굴처럼 친근하고 가까운 느낌을 준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머리는 북쪽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서쪽을 바라 보면서 두발을 가지런히 하고 열반에 들었다는데, 미암사 와불은 당시의 모습과 비슷하다.

사람들 발길이 많은 와불의 발 쪽으로 가보니 문이 하나 있다. 열고 들어가 보니 또 '감탄사'가 흘러 나온다. 놀랍다. 누워있는 와불의 몸속에 바로 예불을 드리는 법당이 있는 것이다. 열반상 법당은 순금으로 치장됐다. 신기할 정도다. 미암사의 대웅전은 바로 이 와불 몸속 법당이란다. 평일인데도 기도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

미암사는 부여의 내산면 저동리 미암부락에 위치한다. 이 마을의 주산이 차령산맥의 한 지류인 계향산으로 미암사는 이산 중턱 북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백제 때 인근 마을에 유씨성을 가진 한 할머니가 대를 이을 손자를 얻기 원했다고 한다. 이 할머니는 날마다 쌀바위(충청남도문화재자료 제371호)를 찾아가 정성껏 불공을 드렸는데, 어찌나 지극정성으로 했는지 쌀이 떨어진 줄도 모를 정도였다.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관세음보살이 현몽해 "소원을 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호리병에서 쌀 세 톨을 꺼내 바위에 심으면 하루 세 끼 먹을 쌀이 나올 것이니, 매끼니를 지을 때 이 쌀을 가져다 짓도록 하라고 말했다. 그 노파가 정신을 차리자 바위에서 진짜 쌀이 나왔을 뿐 아니라, 얼마 후에는 그토록 바라던 손자도 얻었다고 한다.

하지만 더 욕심이 생긴 노파는 쌀을 더 많이 얻고 싶어서 부지깽이로 구멍을 후벼팠다. 그러자 쌀이 나오기는커녕 구멍서 핏물이 흘러 나와 주변이 핏빛으로 물들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 헛된 욕심을 경계하자는 의미에서 이 바위를 쌀바위라 불렀다.

그리고 할머니가 불공 드리던 장소에 사찰을 세운 것이 바로 미암사(米岩寺)다. 그동안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화재 등의 소실로 새로운 전각들이 들어섰지만, 미암사는 그래도 1500여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천년고찰이다. 백제의 의자왕이 이 곳서 출가했다고 전해지기도 하다.

현대의 사력을 보면 1903년부터 윤영하스님이 주석하며 화재로 전소된 사찰을 중수하였으며, 1957년부터는 이주희 스님이 주석하며 1967년과 1975년에 각각 중건했다.

본격적인 중창불사는 1992년 현 주지 만청 스님이 부임하면서 부터다. 사격을 일신하고 지역민들 교화와 수행에 진력하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국운융창과 국민화합을 위한 동양최대 열반상을 조성하기도 했다.

부여 미암사=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절 입구 한쪽 면에는 금불이 200여 개 나란히 세워져 있다.


33층 높이의 사리탑이 우뚝 솟아 있다.

미암사 가는 길

서울서 출발할 경우 경부고속도로→천안 · 논산고속도로→공주 · 서천고속도로→송학로→방계로→구룡삼거리서 '대천해수욕장, 보령, 무량사' 방면→주암교차로서 '내산' 방면→성충로 미암길→미암사


전설이 전해지는 쌀바위 전경

주변 가볼만한 곳

▲부소산성=입구인 사비문을 통과하면 삼충사라는 사당이 가장 먼저 나온다. 백제 말 충신인 성충 · 흥수 · 계백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곳이다. 이어 해를 맞을 수 있는 영일루, 곡식창고가 있었던 군창터, 정상에 서 있는 사자루 등을 거치면 낙화암에 이르게 된다.

▲고란사=낙화암 정상에는 육각형의 정자 '백화정'이 세워져 있다. 궁녀들이 원혼을 달래기 위해 1929년에 세워졌다. 낙화암 아래를 흐르는 '금강'이 바로 백마강이다. 낙화암 아래에는 한 번 먹을 때마다 3년씩 젊어진다는 약수로 유명한 고란사가 있다.

▲정림사지와 궁남지=5층석탑(국보 제9호)과 석불좌상(보물 제108호)이 일직선상에 서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연못으로 백제 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궁남지는 가을에 수양버들과 어우러지는 정취가 일품이다. 연꽃 피는 계절에는 유명한 연꽃 명소이기도 하다. 궁남지까지 살피면 사비성 내의 유적은 모두 돌아보는 셈이다.

▲먹을 곳 & 숙박=부소산성 주변에 모텔이 여러 개 있다. 구드래나루터 인근에 음식점들이 몰려 있다. '구드래돌쌈밥'(836-9259)은 다양한 쌈밥으로 널리 알려졌다.

"기도전문도량으로 조성할 터"

미암사 주지 만청 스님 인터뷰



"미암사는 소원 성취 기도도량이지만 대각종의 총본산이기도 합니다. 현재 불사중인 지장전과 요사채도 바로 종도들의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미암사 주지 만청 스님〈사진〉은 새해 계획으로 말 머리를 시작했다. 스님이 종단을 운영하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 바로 인재불사였다. 그래서 종도교육시설이 마련되는 내년부터는 유명 법사진과 학자들을 초청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할 생각이다.

"앞으로 천년고찰 미암사를 기도전문도량으로 꾸밀 것입니다. 매년 넘쳐나는 기도객들로 요사채 등 공간이 부족한데 이를 점차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누구나 찾아와서 편안히 자신의 원력을 점검하고 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 활동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존경받는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의 소중함속에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부처님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서원하며 수행 정진하는 먹물 옷에 취하지 않은 스님다운 스님,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부처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암자, 포교당 스님(원장)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승려 최상 최고의 품수를 받은 대승정 목탁스님.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작위

아까(AGGA)라는 뜻은 맨위, 첫 번째, 최고의 뜻을 가진 승려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없는 최고의 품수라는 뜻.
마하(MAHA)는 큰, 크다의 뜻이고 사다함마 다(하)자(Saddhamma Jotikadhaia)는 봉사및 인간방생에 많은일을 하신 성스런 승려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베푼 의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표현한다.

종 정 목탁혜은 부 종 정 불원혜정 원로원장 보각 기획원장 법성
총무원장서리 지암 부 원 장 고산
포교원장 현담 교육원장 청운 호법원장 진성 감찰원장 송몽 종회의장 도암 원로의장 심오 비구니회장 대연
종단부장 : 현관, 법산, 자명, 휴암, 종암, 금산, 여송, 진일, 개오, 도광, 월산, 원광, 송운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종교법인 국제선불교 조계종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733-5671. H·P : 011-229-6061

왕흥사 목탑은 수국 염원의 불탑불사

탑의 진화

㉕ 백제의 불탑(1)

백제에 불교가 공식적으로 수용된 시기는 인도 스님 '마라난타' 가 동진(東晋)에서 백제로 들어온 침류왕 1년(384)이다. 왕은 마라난타라는 외국 스님을 환영하여 궁중에 모신 것으로 보아 얼마나 적극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였는지 짐작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는 세계불교문화사에서 작지 않은 영역을 차지할 만큼 훌륭하고 뛰어난 불교문화를 창출할 수 있었다. 불교신앙과 종교문화의 합일체인 불탑의 조성에 있어서도 백제는 초창기부터 도읍을 중심으로 불사가 성행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에 서울 풍납토성 내에서 목탑으로 추정되는 유구(遺構)가 발견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4월, 한신대학교 박물관 발굴팀은 서울시 송파구에 소재한 풍납토성 경당지구 재발굴 조사에서 목탑지로 추정되는 유구를 발견하였다.

이 유구는 한 변의 길이 10m, 깊이 3m 정도의 방형수혈을 굴착한 후 내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점토와 사질토를 교대로 판축 한 다음 다시 그 위에 점성이 적은 사질점토를 성토한 유구가 확인됐다. 즉 판축법에 의한 이 유구는 충남 부여의 백제목탑지 등에서 보이는 것과 동일한 축조방식이다. 특히, 이 유구는 조성 연대가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기로 추정되며,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목탑지로 유추되어 백제 초기 불탑조성의 면모를 상상 할 수 있게 한다.

당나라시기에 편찬된 중국의 역사책인 〈주서(周書) 권49 열전(列傳)〉에 의하면 '僧尼寺塔甚多而無道士' 라는 기록이 있다. 즉 백제는 스님과 절과 불탑은 매우 많지만, 도교를 신봉하는 사람은 없다! 라는 기록에서도 확인될 만큼 불탑이 많은 불교국가였다. 특히 지금의 부여로 도읍을 정한 뒤에는 도성을 중심으로 많은 목탑을 조성하였다. 현재 까지 유적 발굴을 통하여 확인 된 백제의 불탑은 10여기에 달한다. **〈표1 참조〉**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성 년대가 밝혀진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능산리사지 목탑**〈사진1〉**이다. 충남 부여에 소재한 능산리사지는 중문-목탑-금당-강당이 남북 일직선상에 배치된 전형적인 백제형식의 일탑일금당식(一塔一金堂式)의 가람배치를 이루고 있다. 이 절은 도성의 외곽을 둘러싼 나성과 능산리 고분군 사이의 골짜기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왕실사찰의 절터로서 일명 '능사(陵寺)' 로도 불린다.

1993년 발굴조사에서 '백제금동대향로' **〈사진2〉**가 출토되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였다. 목탑터는 이중기단으로 5층으로 추정되며 남쪽과 북쪽에 계단시설이 있으며, 현재 백제문화단지 사비궁에 모형이 복원되어있다. **〈사진3〉**

1995년 발굴조사에서 중심부의 심초석 위에서 명문이 있는 '백제창왕명석조사리감(百濟昌王銘石造舍利龕)' **〈사진4〉**이 출토되어 조성 연대와 불탑조성을 발원한 주인공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명문의 내용은 '백제창왕십삼년태세재(百濟昌王十三季太歲在)정해매형공주공양사리(丁亥妹兄公主供養舍利)' 로서, 이 사리감은 성왕(聖王)의 아들로 554년 왕위에 오른 창왕(昌王)[위덕왕(威德王)]에 의해 567년에 만들어졌으며, 성왕의 딸이자 창왕의 누이 혹은 여동생인 공주가 사리를 공양하였다는 내용이다. 위덕왕(554~598 재위)의 이름은 창(昌)이며, 백제 제27대 왕으로, 성왕의 맏아들이다. 위덕왕의 '매형공주' 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사리를 구해서 석조사리감에 봉안하고 목탑을 조성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시기에 사리를 공양하는 신앙이 왕실에서 봉행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불교사상을 엿 볼 수 있는 큰 의미가 있다. 이처럼 능사의 목탑이 조성되고 10년 후인 577년에는 '왕흥사지(王興寺址)목탑' 이 조성되었다.

왕흥사지는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에 있는 백제시대의 절터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도 등장하는 백제의 국찰이었다. 〈삼국사기〉의 백제본기 무왕조에 의하면, '三十五年春二月 王興寺成 其寺臨水彩飾壯麗 王每乘舟 入寺行香' 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무왕35년(634년) 봄 2월에 왕흥사가 준공되었다. 그 절은 강가에 있었으며 채색장식이 웅장하고 화려하였다. 왕은 매번 배를 타고 절에 들어가서 향을 사루었다.'** 라는 기록과, 〈삼국유사〉흥법 제3 법왕금살(法王禁殺)조에 의하면, **백제 29대왕인 법왕은 왕위에 오른 뒤 일체의 살생을 금하는 칙령을 반포하고 즉위 다음해인 600년에는 도승(度僧)30명을 두고 당시의 수도였던 사비성(현재 부여)에 왕흥사를 세우려고 터를 닦기 시작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무왕이 왕위를 계승하여 아버지의 유훈을 받들고자 불사를 시작하여 수십 년이 지나서 완공을 보았다. 절 이름을 '미륵사' 라고도 했는데 산기슭에 위치하고 물가에 임하였으며 꽃과 나무들이 빼어나고 고와서 춘하추동 사철 아름다움을 갖추었다. 왕은 매번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절에 들어가 그 경치가 장엄하고 화려한 것을 구경하였다.**

라는 기록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미륵신앙의 신봉자였던 무왕의 영향으로 왕흥사를 한때는 '미륵사' 라고 호칭한 것인지 익산의 미륵사와 혼동한 것인지는 명확히 밝힐 수 없지만,

1934년 '왕흥(王興)' 이라고 새겨진 기와조각이 수습됨으로써 왕흥사 자리임이 밝혀졌다.

그 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는 백제문화권 유적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왕흥사지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4년 왕흥사는 탑지와 금당지가 남북 일직선상에 배치된 전형적인 '1탑1금당식' 의 가람 배치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 학자에 따라 이 목탑은 5층이라는 설과 3층이라는 설이 양분되어 주장되고 있다.

2007년 10월 10일 왕흥사지에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다. 이 사리장엄구는 목탑지 발굴 조사 때, 심초석의 남쪽 부분에 마련된 장방형 사리공 내부에서 발견되었는데, 높이 10.3㎝의 청동사리함과, 6.8㎝ 높이의 은제사리호, 4.6㎝의 금제사리병 등 3중 **〈사진5〉**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삼중으로 사리를 봉안하는 것은 불교경전의 경설〈본 연재 제2호, 2014.1.15일자 참조〉에 입각한 당연한 신앙심의 발로이기 때문이다. '아함부' 의〈대반열반경〉에는 부처님의 장례절차에 대하여 제자들이 질문하자 부처님께서는 전륜성왕의 장례보다 더욱 여법하게 행하라고 하시며 전륜성왕의 장례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하고 계신다.

전륜성왕의 유체는 새로 짠 무명과 고운 모직물로 몸을 천 겹을 싸서 금관에 넣고, 또 은관을 만들어 금관을 넣고, 또 동관을 만들어 은관을 넣고, 또 철관을 만들어 동관을 넣은 후에, 많은 미묘한 향유(香油)를 넘치게 붓고, 또 관의 안쪽에는 향을 바르고 꽃을 뿌리고,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찬패를 읊어 덕을 찬탄한다.

라는 경설에 의하여, 왕흥사지 사리함 외에도 동남아를 비롯하여 중국이나 우리나라 등 모든 불교국가에서 불탑을 건립하고 사리함을 봉안할 때 사리를 외함으로 3중, 4중으로 보호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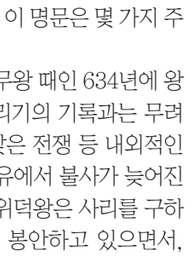
왕흥사지 금제 사리병은 굽이 있고 아래로 갈수록 볼록해지는 호리병 형태로 만들었다. 뚜껑 가운데 보주형 손잡이가 있고 그 주위에 6개의 연꽃잎이 조각되어 있다. 은제 사리호는 목이 길며 낮은 굽을 갖춘 항아리 형태이다. 뚜껑에는 연꽃 봉오리 모양의 손잡이가 있고 주변은 연꽃잎으로 장식하였다. 청동제 사리함은 바닥이 납작한 원통형이며, 본체의 상부와 하부에는 두 줄의 선을 그어 3단으로 구분하였다. 사리함 뚜껑에도 같은 형태의 음각선이 일정한 간격으로 새겨져 있다. 뚜껑에 달린 연꽃 봉오리 모양의 손잡이는 부러진 채 발견되어 현재는 복원을 하였다.

청동제 사리함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표면에 6행 29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사진6〉** 명문은 '丁酉年二月十五日百濟王昌爲亡王子立刹本舍利二枚葬時神化爲三' 라는 것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정유년(577년) 2월 15일 백제 위덕왕이 죽은 왕자를 위하여 탑을 세웠고 2매였던 사리가 신의 조화로 3매가 되었다.' 라는 내용이다. 이 명문은 몇 가지 주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무왕 때인 634년에 왕흥사가 완공되었다고 하여 사리기의 기록과는 무려 57년의 차이가 있다. 이것은 잦은 전쟁 등 내외적인 정치적 상황이거나 또 다른 이유에서 불사가 늦어진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혹은 위덕왕은 사리를 구하여 사리함만을 먼저 조성하여 봉안하고 있으면서, 혜왕, 법왕으로 이어지는 불탑불사의 유훈이 비로소 무왕 때에 회향을 한 것으로도 이해 할 수 있다.

둘째, 위덕왕은 자신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난 왕자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불탑을 조성하였다는 사실이다. 경전 마다 설해진 불탑조성의 공덕을 백제 왕실에서는 잘 알고 있었으며, 이를 실현하였다는 사실이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망(亡)자를 삼(三)자로 해석하여 세 명의 왕자를 위하여 탑을 조성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셋째, 사리의 증식을 통한 종교성의 강조이다. 2개였던 사리가 신기하게도 3개로 증식되었다는 사실은 종교적 성찰이 없이는 쉽게 이해 될 수 없는 것이다. 왕흥사 사리뿐만 아니라 사리가 저절로 번식한 사례는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종종 일어났다. 그럴 때 마다 백성들은 이 신비한 사실에 감동하여 불심으로 결속하는 예를 보이곤 했었다. 특히 삼국이 대치되고 당의 세력을 견제해야 하는 백제의 위덕왕 치세시에는 불탑 조성의 불사를 통하여 국력을 다지고 불심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염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였을 것이다. 그 결과 왕흥사 목탑 불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짐작 해 볼 수 있다.



글 · 우인보
〈불교문화예술학 박사〉

〈사진1〉

조성 연대가 밝혀진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능산리사지 목탑(기단부)

〈사진2〉

능산리사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백제금동대향로

〈사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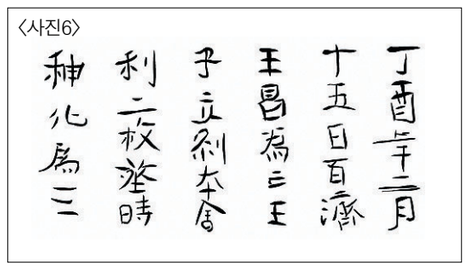
백제문화단지 사비궁에 모형 복원된 능산리사지목탑

〈사진4〉

능산리사지에서 발굴된 '백제창왕명석조사리감'

〈사진5〉

왕흥사지목탑지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

〈사진6〉

왕흥사지 사리장엄구에 새겨진 명문

도읍 중심으로 불사 성행 추측
서울 풍납토성 내 판축법 유구
부여 백제목탑지 축조방식과 동일

현재 확인된 백제 불탑 10 여기
능산리사지목탑 最古 백제 불탑
목탑터 이중기단 5층으로 추정

사리공양 신앙 왕실서 봉행은
당시 불교사상 드러내는 자료
불탑조성의 공덕 왕실서 적극수용

〈표1〉 백제의 불탑

구분	불탑명칭	재료	시기	조형특징(층수추정)	위 치
1	풍납토성목탑	나무	4~5세기	·	서울 송파구
2	능산리사지목탑	나무	567년	기단11.7m, (5층)	충남 부여군 은산면
3	왕흥사지목탑	나무	577년	(3층 혹은 5층)	충남 부여군 부여읍
4	군수리사지목탑	나무	6세기	기단14m, 높이48~67m	충남 부여군 부여읍
5	정림사5층석탑	돌	6세기	5층	충남 부여군 부여읍
6	금강사지목탑	나무	6세기	높이 60m 추정	충남 부여군 은산면
7	제석사지목탑	나무	7세기 초	7층	전북 익산시 왕궁면
8	미륵사지3탑	돌,나무	639년	9층, 목탑과 동서석탑	전북 익산시 금마면
9	서복사지목탑	나무	*	기단 8.2m	충남 부여군 부여읍
10	용정리사지목탑	나무	*	기단 18.5m	충남 부여군 부여읍

마하연 투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

– 황금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항공 (8M AIR)

▶ 만달레이 / 양곤 5일 89만원
▶ 만달레이 / 바간 / 양곤 5일 99만원
▶ 만달레이 / 바간 / 헤호 / 양곤 6일 179만원

– 꽃보다 청춘 라오스 (인천 및 부산 출발가능)

▶ 비엔티엔 / 방비엔 / 루앙프라방 6일 149만원
(특급호텔 진행)

– 세계문화유산 정통 스리랑카 순례 6일 199만원

※ 모든 일정은 10인 이상시 출발, 여행자 보험 가입,
각국 공항세 포함, 유류할증료, 전일정 각국 비자수수료 포함.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수속대행)

중국 4대불산
▶ 구화산&보타산 (지장도량&관음도량) 6일 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5일 요금문의
▶ 문수도량 6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순례 5일 요금문의
태국 방콕 / 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 씨엠립 5일 요금문의
라오스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요금문의
서유럽 4개국 8일 요금문의
미서부 7일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화엄의 꽃 절집 천정

〈23〉 속리산 법주사 팔상전

속리의 땅에 솟은 거대한 불국토



부처님의 생애를 압축해 그린 팔상도와 오백나한상을 모신 팔상전 내부. 사천주 기둥에 황룡들이 용틀임하고 있다. 땅에서 솟아난 목탑 팔상전이 법화경의 '견보탑품'의 장면을 연상시킨다.

동양삼국에서 유일한 통층식 목탑

법주사(法住寺)는 '부처님의 법이 상주하는' 화엄도량이자, 김제 금산사, 팔공산 동화사와 함께 미륵신앙 중심의 장육미륵부처를 모신 미륵도량이다. 1,450여년전 신라국 의신스님께서 인도에서 흰 말에 경전을 싣고와 이 곳에 모셨으니 법의 상주처일 것이고, 백제고승 진표율사의 법맥에 의해 김제 금산사처럼 장육미륵을 봉안하고 점찰법회를 펼쳤으니 미륵중심도량일 터이다. 그래서 가람의 배치도 두 개의 중심축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화엄계열의 대웅보전 중심축이고, 다른 하나는 미륵계열의 용화보전 중심축이다. 1990년 청동미륵대불을 조성하면서 일직선상의 석등과 석연지, 희견보살상 등을 이곳 저곳에 옮긴 탓에 지금은 그 축들이 사라졌다. 팔상전은 원래 두 중심축이 직교하는 교차점에 있었다.

법주사 팔상전(捌相殿)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팔상도와 오백나한을 모신 목조건축이다. 그런데 1960년대 해체수리과정에서 건물의 심초석에서 사리장치가 확인되었다. 사리장치를 봉안하는 곳은 탑이다. 팔상전이면서, 팔상탑이다. 그러니까 법주사 팔상전은 불보살과 오백나한을 모신 법당인 동시에 목탑이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5층목탑이다. 화순 쌍봉사에 대웅전으로 사용하던 3층목탑이 있었지만, 1984년 화재로 소실되는 바람에 팔상전이 국내 유일의 목탑으로 남았다.

心柱는 우주목이며 생명나무

팔상전은 지상에서 상륜부까지 근 23m에 이르는 5층의 고층건축이지만 층층이 쌓아올린 적층식구조가 아니라, 실내가 하나로 트인 통층식 구조다. 한국, 중국, 일본의 동양삼국에서 유일한 통층식 목탑구조로 알려진다. 내부에서 보면 3층 천정까지 보이고, 4, 5층은 천정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건축구조를 보면 마치 전나무 한 그루를 보는 듯 하다. 건축의 중앙에는 전나무의 주간처럼 무게중심을 잡고 전체하중을 고루 분산시키는 심주(心柱)가 있다. 팔상전은 목탑이므로 '심주'라는 용어보다는 '찰주(刹柱)'가 더 옳은 표현으로 보인다. 찰주는 반야의 심검처럼 엄정하고 흔들림 없는 부동의 중도에 있다. 심주는 심초석에서 상륜부의 노반에 이르는 중심코어로 3개의 목재로 짜맞춘 것이다. 심주의 둘레는 4개의 하늘기둥, 곧 사천주(四天柱)가 정방형의 벽체를 형성하고 있다. 사천주는 4층 천정에 이르는 수직의 장대한 스케일인데, 내부중심의 위용이 대단하다. 수직의 높이를 추구하는 심주는 건축역학의 중심코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우주목이며 생명과 자비의 나무일 것이고, 부처께서 설하신 진리법이다. 심주는 부동의 자리이고, 무상정등각의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이다. 사천주는 불보살을 외호하는 사천왕의 위세를 스스로 갖추었고, 사천주로 둘러친 장대한 벽체세계는 그 자체가 신성한 불국토임에 분명하다. 거대한 불국토가 연꽃이 솟아나듯 땅에서 솟아나게 한 셈이다. 즉 한 시대의 건축역량을 거의 집대성하다시피

찰주는 심검이자, 부동의 중도
열주공간은 우요삼잡의 동선
귀공포에 지붕 받쳐든 역사상

근 22년 동안 물량, 기술, 공력을 집요하게 공들인 것은 단순한 높이에의 추구가 아니라, 불국토의 장엄이라는 거룩한 종교적 신심에 기초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백 년 넘게 황룡사를 구축해간 신라인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보이지 않는 심주에 단청을 입히고, 사천주 기둥에 심벽치기로 벽체를 만들어 그 벽체에 팔상도를 장엄하고, 불보살과 오백나한을 모신 것에서 이 건축을 통해 담아내고자 하는 한 시대 사부대중들의 분명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팔상전은 그 자체가 중층적 구조의 만다라이며 거대한 불국토인 것이다. 사천주 바깥으로는 고주와 평주를 차례로 경영했다. 그 열주들 사이로 예배 동선을 자연스럽게 형성했다. 동에서부터 동→남→서→북으로 도는 우요삼잡의 예배동선을 유도하고 있다. 각 면에 두 폭씩 해서 사방벽면에 팔상도와 오백나한을 모셨다. 팔상전은 영산전과 나한전, 탑돌이 공간이 두루 내포되어 있는 셈이다.

사천주에 황룡들의 극적 용틀임

팔상전 외부장엄은 외호와 결계, 법열로 충만하다. 1층은 5×5칸의 정방형이고, 그로부터 위로 갈수록 반 칸씩 줄어들어 3층은 3×3칸, 5층은 1×1칸의 한 칸짜리 사모지붕 건물을 이룬다. 1층의 외부벽체에서는 귀공포와 화반의 문양이 눈길을 끈다. 귀공포는 내부에서 몸통을 빼낸 용이 'ㄹ'자로 길게 몸을 뻗쳐 붉은 여의보주를 움켜지고 있다. 마치 보주를 움켜 쥐고 승천하려는 기세다. 초각한 살미부재도 용의 몸통에서 뻗쳐나오는 기운으로 표현하고 있어 용이 생명의 강력한 기운임을 알 수 있다. 용의 강력한 기세는 팔상전 내부에서 사천주 기둥에서 압권으로 나타난다. 사천주의 굵고 장대한 기둥에 폭포수처럼 드세찬 황룡들이 살아 용틀임하는 기세가 대단하다. 구례 화엄사 각황전 내부 고주(高柱), 안동 봉정사 대웅전 고주에도 이런 극적인 장면이 그려져 있다. 기둥이 곧 사천왕이고 거대한 용이다. 기둥의 거침없는 수직성과 용의 용틀임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기둥에 내재된 힘과 에너지가 위엄을 갖춰 엄숙히 흐르는 느낌을 자아낸다. 화반(花盤)에 장엄한 용의 입에서는 굵고도 강력한 신령의 기운들이 무시무종으로 뻗쳐 주체할 수 없을 지경이고, 그 옆의 심미적 아름다운 구상을 갖춘 연꽃화반에서는 법열이 층층으로 미어터져 가이없어 보인다.

2층 귀공포에는 지붕을 두 손으로 받치고 있는 인물상이 있어 주목을 끈다. 귀공포에서 추녀밑둥을 떠바치고 있는 사람형상을 일러 12세기 중국 북송의 토목건축책 〈영조법식〉에는 '각신(角神)'으로 부르고 있다. 북한의 심원사 보광전, 강화도 전등사 대웅전 귀공포에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장천1호분과 삼실총 등 고구려벽화고분에서는 이들은 신성한 세계를 떠받치는 거룩한 역사(力士)들이다. 그리스 신화 속 '아틀라스'와도 같은 존재들이다. 연꽃, 혹은 연잎 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신성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입에서 용이 나오는 조형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직선의 뼈대로 이룬 유기체

팔상전 내부의 가구구조는 대단히 역학적이며 중층적이다. 정교하게 짜여진 힘의 분산 및 결집체계가 살아있는 유기체의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 수평과 수직, 사선의 직선이 이루는 유기적인 구조들이 굵기와 길이에서 고저장단의 율동을 갖춰 힘을 실어 나르는데, 뼈대의 윤리적인 아름다움, 굳건한 신뢰감을 가득 안겨준다. 건축가구의 뼈대들은 역학의 부재들이지만, 단청장엄의 초빛, 이빛, 삼빛을 입는 순간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기케이블처럼 신령의 기운이 흐르는 전도체가 되기 마련이다. 그것은 겨울나무에 연두의 새싹기운이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생명력은 경계 밖으로의 미어터짐이며, 나선형의 순환운동이고, 푸르름의 빛을 띄는 것이다. 목조건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데 식물 씨방의 개화와 푸르름, 나선형 넝쿨만큼 훌륭한 소재는 드물다. 사찰건축에 씨방, 개화, 나선형 넝쿨무늬가 그토록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도 그 생명력의 운동성 때문일 것이고, 단청작업에서 겹녹화, 골팽이, 연화머리초 등이 주류적인 것도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내적인 힘 때문일 것이다.

팔상전은 통층식 가구구조인 까닭에 천정은 3층 높이에 가설되었다. 천정은 격자칸의 크기가 다채롭고 빗반자처럼 널판반자가 드러난 우물천정 형식이다. 천정에 베푼 문양은 용과 나선형 넝쿨문양이다. 문양의 느낌은 퇴색한 석간주와 삼청의 고색 느낌으로 중후하고 무거우며, 깊숙하기 그지없다. 어둠침침한 갈색 톤이 공간의 깊이만큼 차분하기 그지없다. 색채와 구도의 양측면에서 상투적이거나 기교적인 매너리즘과는 떨어져 있는, 어딘가 단순, 투박하면서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고전주의적인 기풍이 흐른다. 넝쿨문양의 잎이나 용의 형상에서 격식을 갖추지 않은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인데도 역동적인 힘과 격조있는 조화로움이 풍긴다. 짙은 갈색의 어둠에서도 생명력의 흐름에는 가는 흰빛을 풀었고, 범자종자불과 개화하는 꽃 송이에는 긴장을 해소하듯 밝은 빛을 던져 놓았다. 그 아래 벽체에서 오색의 신령함 속에 여래께서 고요히 나투신다. 법이 상주하시는 법주사이니 법화경 〈견보탑품〉의 오백 유순 높이의 다보탑이 땅에서 솟아있는 이치다. 일승의 허공법회의 방편으로 큰 보배탑이 속리의 공중에 머물러 있다.



팔상전 외부 장엄. 외부 귀공포, 벽체 등에 조영한 力士상과 벽체 소반장엄이다.



팔상전 내부 3층 천정과 벽체에 장엄된 용, 넝쿨문양과 여래벽화. 단순 투박한 고전주의 힘이 느껴진다.



팔상전 전경



노재학 불교미술사진작가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꿈 꾸기 전의 마음, 꿈 속의 마음

꿈꿀 때 꿈꾸는 줄 아는 것이 진짜 공부다

일전에 내가 이걸 얘기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런 얘길 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다 아는 겁니다. 아는 건데 문제는 어디다 두는 거냐 하는 건데, 이 불법은 생사문제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사문제를 해결해. 누리의 지도리를 우리가 걷어잡아. 이것인데 그리 하는데는 공부하는 내 입장으로 봐서 어떠한 경계에 닥치는 것이 이 공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내가 말씀을 오늘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철야하는 분들에게 얘길 했습니다. 얘길 했는데 인자 진짜로 우리가 공부를 합시다. 참말로 공부를 진짜로 하는 것, 풍류가 아니고 재미가 아니고 상식이 아니고 진짜로 공부를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행.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을 지켜. 이것이 어려워요. 이것이 어려운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로 공부하는 거냐. 두말할 것 없이 꿈꿀 때 꿈꾸는 줄 아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왜 그러느냐. 평상시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미워한다든지 남을 좋아한다든지 남을 그리워한다든지 그 마음이 철두철미하면 꿈에도 나타납니다.

미워한다든지 좋아한다든지 뭘 해야 되겠다든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든지 좌우간 어떻든지 뭣이라도 좋아. 공부하는 걸 떠나서 우리가 중생계에서 마음을 굴리는 것에 대해서 간곡해. 남을 미워해도 굉장히 미워해. 저 놈이 있으면 내가 사는 것 같지 않아. 그것도 굉장히 지독한 마음이거든. 지독한 마음이 있으면 말이죠 꼭 꿈에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평상시 낮에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죠. 참말로 마음에 깊이 걸려. 그러면 밤에 잘 때 헛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할 테면 이 눈 귀 코 혀 몸 뜻, 이 여섯 가지, 육근을 통해서 경계하고 닿질려. 닿질리는데 육근을 통해서 마음을 쓰는 거와 또 우리가 잘 때 꿈꾸는 것은 육근을 통하지 안 해. 잠재의식이라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통하지 않아서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이 알음알이라고 해도 좋아요. 뭣이라고 해도 좋아요. 본바탕 진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 저 말 하는 것 다 아시는 거니까 말할 것 없고, 그 잠잘 때 육근, 눈 귀 코 혀 몸 뜻. 이걸 통하지 않고 내 마음을 쓰는 것이 영 다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참 그렇다 하고 길게 설명을 안 하더라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왜 다르냐 말이죠. 다르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데 다르다 말이죠.

평상시에는 모든 경계로 더불어서 타협을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한다든지 좋아한다든지 해서 딱딱 맞아 들어가. 울 때 울고, 성낼 때 성내고, 웃을 때 웃고 이래. 그런데 그 육근을 통해서만의 사고방식이거든. 거기서 결정이 돼. 그런데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는 전혀 육근을 통하

> **내면적 멋이란**
> **환희심에서 생겨난다.**
> **스스로 기쁨을 느낄 때**
> **나와 남과의 분별 사라지고**
> **천지자연과 혼연일체가 되며**
> **영원한 참삶의 환희에 젖게 된다.**
> **여기에 무한성과 영원성이 있다.**

지 않아. 눈도 통하지 않고 귀도 통하지 않고 입도 통하지 않아. 그런데 남하고 얘기도 해. 보기도 해. 듣기도 해. 왜 그러느냐. 그렇다면 한마디로써 여러분이 아실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낮에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은 결국 육근의 놀음놀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 안 하겠습니까? 왜 내가 이 말을 하냐 하면은 딱 숨 거둘 때를 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딱 거두어버려. 말하자면 죽어. 그때는 평상시에 육근을 통해서 하던 생각이 전혀 안 나. 그것도 간곡하고 깊은 것은 있기도 있겠지요. 있기도 있겠지만 전혀 잊어버려.

거기서 알음알이가 자기의 습성에 따라서 그래서 굴리어져. 이걸 생각한다면은 말이죠 참 겁납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 싶어. 그대로 행도 해. 그런데 꿈을 꿔 보면 말이죠 전연 공부할 때의 그 사고방식하고는 전혀 다르거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면 내가 죽을 때는 어찌 하겠나? 죽을 때는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 말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꿈꾸는 것 한가집니다. 꿈을 꿀 때에 내가 꿈을 꾼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면은 그대로 쭉 하게 내 마음을 굴려 나가. 아무 걱정 없어. 잠 안 잘 때의 마음 씀씀이나 잠 잘 때의 씀씀이나 한가지라. 한가지이니까 우리가 육근을 버려. 우리가 숨을 거두어 버렸어. 죽었어. 그러면 숨을 거둔 다음의 마음 씀씀이 꼭 한 가지일 것 아니겠어요?

한 가지겠는데 이 공부가 철저히 못돼. 못돼 놓으면 이 육근이 있을 때는 모든 걸 이렇다 저렇다 따지기도 하고 분별도 하고 그래 가면서 자기가 거 하는데, 아 그만 딱 하게 숨을 거둔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이럴 때는 영 모르게 되거든. 이것이 곤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느냐. 꿈속에 꿈꾸는 줄을 알 수 있는 정도까지 공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꿈속에 꿈꾸는 줄 알면은 꿈꾸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하니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 육근을 갖다가 믿어.

나중에 말이지 꿈을 꿀 때 그만 잊어버려. 잠을 잘 때도 잊어버리고 숨을 거두어도, 잠잘 때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숨을 거두더라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 있어. 우리가 깨어 있어. 이 때 보고 듣고 하는 데 지나치게 치우쳐. 지나치게 치우치기 때문에 말이죠 이거 큰일 났다 이거에요. 어제 내 이 이야기했습니다. 철야하는 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꿈속에 꿈꾸는 줄 모르면은 대치 안이 없겠느냐. 대로 무슨 방편이 없겠느냐 이것입니다. 이 방편은 방편을 빌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대로 어떠한 것이 없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육근을 버려. 이 몸을 버려. 숨을 거두어. 거둘 때의 그 생각이나 지금 생각이나 여일해. 꿈을 꿀 때도 여일해. 이렇게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공부를 집어치워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 요 대치법이 원을 세우는 겁니다. 원을 세워. 원을 세워도 참 지독하게 원을 세우는 겁니다. 간절하게 원을 세우는 거예요. 〈끝〉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茶와 禪



한 잔 차로 한량없는 즐거움을

1-2 대저 선이라 무엇인가?

차생활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주변 즉 살림살이하는 데 있고, 이것이 선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곧 선의 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초의선사 같은 이는 '무시선무처선(無時禪無處禪)'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요, 완당 선생은 "정좌처차반향초(靜坐處茶半香初)"라고도 하고 "묘용시수유화개(妙用時水流花開)"라는 자연스럽고 평범한 지경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

또 한편 차는 일상 우리 인간이 나면서부터 물기를 먹고 마시며 살아온 인간의 본능적인 식생활과 계절 따라 입어야 하는 입성생활, 그리고 집을 지어 거처하며 그 주택의 주변인 정원을 꾸며 꾸려나가는 생활의 영위를 하는 데 있어, 그 어느 것이나 살림살이 않고는 못 배기는 현실에서 크게 착안한 것임을 볼 때 차도의 너르고 너른 광장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선은 그 자체가 현실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광범하게 말하는 한편 너무 범박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추상적일 수도 있으므로 이 방면을 치중하여 가는 선객들이 구두선(口頭禪) 또는 야호선(野狐禪)에 떨어져 한갓 공상에 빠져 헤어 나오기 어려운 것을 때로는 보게 된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는 선이 조주선사나 초의차성의 편에 서서 그 실다운 힘과 생생한 화로가 열렸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차로 가는 길에 선의 길이 있다 할 것이다.

茶와 멋

차생활은 '멋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차생활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우리들 인간의 기호(嗜好)나 취미에 있고, 이 취미나 기호는 바로 무한한 멋을 동경하고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초의(草衣)는 잘 끓은 물의 건령(健靈)과 차의 신기(神氣)가 용하게 어울리어 우러난 차를 '신령(神靈)스럽다'고 하고, 또 음차(飮茶)에 있어서도 간 맞는 좋은 차를 혼자서 마실 때가 가장 좋다고 하여 '신(神)'이라고 표현했다.

여기서 '신령스럽다'고 하는 것은 무한절묘(無限絕妙)함을 말하고, 혼자서 차를 마시는 것을 '신'이라 한 것은 신령스러운 차를 마시는 차인(茶人) 자신이 영원하고 무한한 천지 대자연과 통하고 삼매경(三昧境)의 법희선열에 젖을 수 있는 신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할 때가 바로 내면적인 멋의 극치에 이른 지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은 '귀신'이나 전지전능한 신으로 표현되는 따위의 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내면적인 멋이란 참된 각성의 커다란 환희의 생활에 있으니, 이것은 '신난다'라는 우리말이 그 본뜻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천진난만하고 원기에 넘치는 아이들은 "야! 신난다"라고 소리친다. 이 말에

> **내면적 멋이란**
> **환희심에서 생겨난다.**
> **스스로 기쁨을 느낄 때**
> **나와 남과의 분별 사라지고**
> **천지자연과 혼연일체가 되며**
> **영원한 참삶의 환희에 젖게 된다.**
> **여기에 무한성과 영원성이 있다.**

는 곧 그 자신에게 '신이 살아난다'는 것이니, 이 순간이야말로 자기 본래성(本來性)의 진면목(眞面目)에 조금도 손상 없이 활연(豁然)히 나타남이다. 또한 이때야말로 자기와 타인생(他人生)과의 분별이 없어지고 자아(自我)가 세계, 세계가 자아로 되어 이 천지 자연과 혼연일체가 되고 영원한 참삶의 환희에 젖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멋의 무한성(無限性) · 영원성(永遠性)이 있으니 내면적인 멋의 가장 극치인 신나는 때야말로 자아의 여러 가지 한계가 없어져 무한으로 이어지고 현재에서 과거도 미래도 동시에 살아 영원으로 이어져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 계급적인 것, 모두를 포괄한 시방세계(十方世界)에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어른들이야 인생에서 가장 신나는 때를 당할 때 아이들처럼 '신난다' 고 소리치지는 않는다고 해도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멋있다고 속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차를 통해 우리의 선인들은 신나는 인생 멋진 삶을 누리려 했던 것이니, 함허 득통 선사(涵虛得通禪師, 1376~1433)는

마땅히 이 한잔 차로 한 번 맛보고
한 맛에 한량없는 즐거움을 내어야 하네
〔當用一椀茶一當一當應生無量樂〕

라고 읊었던 것이다.

참다운 멋의 생활은 결코 사유(私有)가 아니며 혼자의 멋도 대중(大衆)의 것이 되고 요사나 잔 솜씨나 흉내나 조작으로는 체득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제 구색, 제 장단, 제 가락이 아니면 이는 '설멋'에 흐르고 마는 것이니 '맹탕(萌湯)'이나 '얼간이'가 되고 말뿐이다.

멋은 대중의 것이지 결코 사욕의 자리가 아니며 차의 생활, 멋의 생활은 전 사회인이 공동으로 성취하여야 될 공동의 광장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언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취미생활, 즉 멋을 지향하는 생활은 아무래도 정서적인 방면에서 이야기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정서적인 감각이 진리성의 진(眞)과 심미(審美)의 지경인 아름다움의 세계로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지적인 추구나 의지적인 행동은 계산적인 타산과 아울러 생활에 피로를 가져다주기 쉬운 반면, 정서적인 취미의 생활이야말로 아무리 복잡한 생활과 어려운 지경에 부딪친다고 해도 그것을 잘 조절하고 무마해서 도무지 싫은 생각이라고는 없는 크나 큰 환희의 신나는 생활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끝〉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1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현불샵 리뉴얼 기념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9만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평생 '신행'으로 살아온 '우바이'…

이정옥 (대원성 · 연꽃모임 회장)



이정옥 회장은 … 1944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1967년 조계종 전 종정 고암 스님으로부터 법명 대원성을 받았으며, 1968년 일타 스님으로부터 보살계를 받았다. 1965년 대한불교청년회(대각사)에 입회했고, 청년회에서 만난 성원거사와 1969년 결혼했다. 1977년 부산불교 신행단체인 '연꽃모임'을 창립하고 초대 회장에 취임했다. 10년 후 회장직을 놓았다가 2013년부터 다시 회장직을 맡았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부산 소림사 신도회장을 역임했다. 2003년 소림청심장학회를 설립했으며, 2008년 공림공양회를 창립해 회장직을 맡고 있다. 1988년 부산불교 포교대상을 수상했고, 1994년 홍법대상을 받았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기도, 그것은 마음을 가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간절히 바라는 그 일은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믿음'이라는 세계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세계에서 산다는 것이 곧 '신행'일 것이다. 또한 그 신행의 시작과 끝이 불법(佛法)에 근거하고, 평생의 삶이 됐다면 그것이 다름 아닌 '성불'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평생을 삼보에 귀의하고 신행을 삶으로 살아온 우바이가 있다. 부산 연꽃모임 이정옥(법명 · 대원성) 회장이다.

'연꽃모임' 발족, 초대 회장에

새벽 4시. 올 해 70세인 이 회장은 어김없이 예불을 모시고 기도를 한다. 불 · 법 · 승 삼보는 물론 공업의 중생을 생각하는 간절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1976년 겨울, 이 회장은 주변 사람들을 위한 백일기도를 시작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욕심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신이 채워진다는 것을 알았죠."

남편이 진주로 전근을 가게 되어 이 회장은 남편과 1년 동안 따로 살게 되었다. 홀로 남게 된 이 회장은 '주변'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인연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 이 회장은 원근의 친척들과 자신이 알고 지내는 이웃 사람들을 위해 하나하나 축원문을 만들어 새벽마다 기도를 올렸다. 아픈 사람은 아프지 않기를, 힘든 사람은 힘들지 않기를 축원했다.

그렇게 백일기도를 마친 이 회장은 1977년 1월 22일, 백일기도를 회향하면서 축원했던 이웃 30여 명을 집으로 초대해 조촐한 대중공양을 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불법(佛法)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대부분 불자가 아니었던 그들은 이 회장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이 회장은 불법과 인연을 맺지 못한 그들이 안타까웠다. 그들과 불법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 진 이 회장은 그들에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함께 절에도 가고 법문도 듣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임이 '연꽃모임'이다. 이 회장과 '연꽃모임' 회원들은 일타 스님과 고암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해인사, 송광사, 경국사 등을 순례했다. 모임이 거듭되면서 회원들은 불법과 가까워지게 됐다. 이 회장의 신행은 불법을 모르던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고, '연꽃모임'은 많은 신행단체의 탄생을 이끌어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부산에 '연꽃모임' 같은 신행 모임이 하나 정도 밖에 없었어요. 연꽃모임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서 많은 신행 모임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죠."

신행의 시작

이 회장은 '연꽃모임'의 초대 회장이 되었고,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위치한 이 회장의 집은 작은 법당이 되었다. 도반들이 모여서 불법을 얘기하고, 서로의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많은 불사가 그곳에서 시작됐다.

우선 가난한 이웃들을 돕기 시작했다. 불우한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 '보현봉사회'와 '장학회'가 만들어졌다.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모습을 볼 때 다시 한 번 '나'를 돌아보게 되고 모임을 만든 보람을 느꼈어요."

20년 째 운영되고 있는 '보현봉사회'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갔고,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위문법회를 열기도 했다. 또한 순수하게 회원들의 모금만으로 조성된 장학회는 어려운 형편의 청소년들을 찾아 돕고 있다.

또한 이 회장은 1980년 부산 소림사 신도회 부회장을 거쳐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신도회장직을 수행하며 한결 같은 보시행을 펼친다. 소림청심장학회를 만들어 결식 청소년들을 위해 금정중학교에 매달 후원금을 보시하고, 노숙인 쉼터 '부산 보현의 집'에서 자원봉사 활동도 꾸준히 이어간다.

그 밖에도 이 회장은 '연꽃모임'을 통해 많은 일들을 했다. 합창단을 결성한 일도 그 당시엔 생소하고 획기적인 일이었다. 합창단의 결성은 찬불가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불교를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았다. 그 후로 많은 합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욕심,
타인 위해 기도하면 '나' 채워져"
1977년 부산서 '연꽃모임' 조직
신행단체 새 모델 제시, 붐 일으켜
합창단 창단, 단체복 유행시켜
불우이웃돕기, 재소자 위문법회 등
'보현봉사회' 조직 20여 년 봉사
불교,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고
많은 주변 사람들을 '불자'로

창단이 창단됐다. 또한 이 회장은 모임의 결속을 다지고 모임의 홍보를 위해 '연꽃모임'에 단체복을 도입했다. 단체복 역시 많은 단체들이 도입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이 회장과 '연꽃모임'의 가장 큰 업적은 아마도 전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연꽃모임의 회원이 128명까지 늘어난 것이 첫 번째 성과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회장의 개인적인 전법 포교가 많은 역할을 했다. 무종교인은 물론이고, 타종교인들까지 이 회장의 홍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불연의 시작… 〈법화경〉

"〈법화경〉이었어요."

이 같은 이 회장의 신심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그 불심의 시원은 어디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가정, 부친이었다. 이 회장은 20대 초반에 아버지로부터 〈법화경〉을 받게 된다. 이 회장의 부친은 대각사 근처에서 한의원을 열고 있었다. 많은 스님들이 부친의 의원을 찾았고, 부친은 그로 인해 불교에 귀의하게 됐다. 불심으로 살아온 이 회장의 부친이 어느 날 이 회장에게 〈법화경〉을 권한 것이다. 이 회장이 처음 부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법화경〉이다. 이 회장은 단 며칠 만에 〈법화경〉을 외워버렸다.

처음 경전을 통해 불법을 접한 이 회장은 며칠 후 통도사 백운암으로 3일 기도를 떠나는 이웃의 할머니들을 따라가게 된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얼음물에 몸을 씻고 기도하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이 회장은 발심을 하게 된다.

집에 돌아온 이 회장은 백일기도를 발원하고 부친을 따라 대각사에 다니게 된다. 이 회장은 남편을 그 때 대각사에서 만나게 된다. 이 회장의 남편은 대각사 청년회 회원이었다. 당시 지금의 남편으로부터 청년회 가입을 권유받고 이 회장은 청년회 활동을 시작했다. 얼마 후 해인사 수련회에서 지금의 남편과 함께 고암 스님으로부터 법명을 받았고, 몇 년 뒤에 결혼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회장의 불교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불교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이 회장의 불심은 남달랐다. 이 회장의 불심은 불교를 아끼고 자부심을 키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회장은 우선 불자들이 뜻도 모르면서 불교를 이야기하고 자부심 없이 불자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못내 못마땅했다. 경전을 독경하면서도 그 뜻을 모르고, 타 종교인이 불교에 대해 물어올 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이 회장은 절에서 가장 많이 독경하는 〈금강경〉을 한글로 사경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 회장은 사경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경본을 법보시해 오고 있다.

'나'에서 그치지 않는 불심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절에 가기를 좋아했던 이 회장은 멀리서 스님의 옷자락만 보아도 반가웠다. 가끔 큰 절에 가서 긴 가사 장삼을 수한 스님들이 법당을 가득 메우고 예불을 모시는 것을 볼 때면 무한한 감동을 느꼈다. 너무나 거룩해 보여 곧장 스님이 되고 싶었다고 한다. 신비스러울 정도의 이 회장의 불심은 '연꽃모임'으로 신행 단체의 모델을 제시하며 생활불교의 장을 열었고, 그 생활불교는 신행의 저변을 넓혔다. 그렇게 이 회장은 삶과 신행은 하나였고, 삶이 된 신행은 누군가에겐 '길'이 될 만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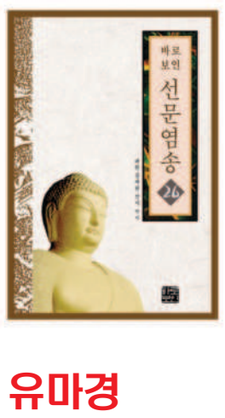
이 회장은 평소 자신의 신행을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겼다. 신행생활을 통해 얻어진 귀한 진리들을 혼자만의 것으로 지나치기엔 아깝다고 생각했다. 이 회장은 늘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 다른 말이 아니었다. 무명에서 벗어나기 우한 노력이었다. 불자로서의 지극히 당연하고 분명한 노력인 것이라 하겠다.

이 회장은 생활 속에서 깨달은 값진 체험들을 많은 불자들을 위해 글로 남기기 시작했다. 그 글들은 많은 불자들이 좀 더 빨리 불법에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 취지와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작은 경전으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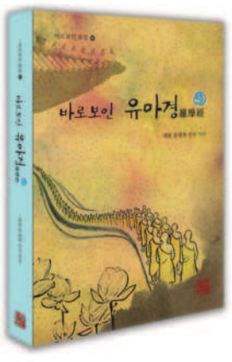
이 회장은 그의 글에서 "오늘은 부산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시간에 초대되어 방송을 하고 왔다. 현대불교신문에 '바라밀 일기'를 연재한 것이 인연이 되어 방송까지 나가게 됐다. 신문에 연재를 시작할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8번째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6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禪門拈頌), 전 30권중 26권 출간! 고산, 조산, 남원, 동안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보인 유마경
모든 이치를 통달해 변재에 자유자재 했던 유마거사의, 부처님 당대를 휩쓸었던 활구법문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변재가 트인다는 유마경,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유마거사의 의중을 속속들이 드러낸 번역과 〈대원선사 토끼뿔〉로 이 시대의 최상승법을 제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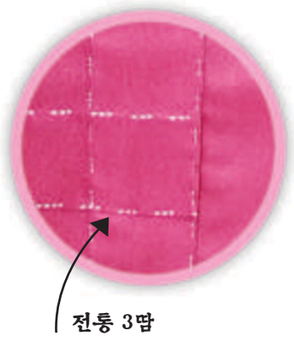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031-534-3373

명품승복(가사전문)



전통 3땀

명품 승복을 경영하고 있는 저는 깊은 사찰 기도터에서 4박5일 기도중 큰스님께서 홍가사를 수하시고 제게 상을주는 현상을 선몽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승복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발명특허 3땀 가사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님들께 뛰어난 디자인과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사를 드릴 수 있기에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반 수가사 (3땀 가사) 특징
①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반 수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콩(구슬)이 지나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②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모양이 전통 삼땀으로 가사를 지었습니다.
③ 수가사 보다 가격이 월등히 저렴 하며, 고르게 삼땀이 되어 있어 디자인 모양으로도 뛰어 납니다.



명품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제일시장 內 라동 23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KW-B4D300DP(덤프&리프트 겸용)


4륜구동의 강력한 파워


보조파이프 옵션
KW-BRD300


360° 제자리 회전 평지 200kg 운반가능
KW-BS200



"전동운반차 1회 충전으로 3~4일 운전 가능"


써스펜션 (강력한 추진력)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3. 저렴한 유지비!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5. 소음 걱정 끝~!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가진 것 버리면 마음 채워져”


1997년 가을 연꽃모임 창립당시 고암 스님과 함께


2002년 여름 수재민돕기에 참여한 이정옥 회장


1966. 11. 해인사 수련회에서 성철, 일타, 보성 스님과 함께



1995년 보현봉사회 창립 1주년 기념법회

때만 해도 쑥스럽고 걱정스러워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벌써 시작한 지가 1년이 다 되어가고 그로 인해 방송에 초대까지 받게 되니 더욱 쑥스러웠다. 연재를 시작할 때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국을 찾았다.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왔던 지은아 아나운서가 담당 진행자여서 반가웠다. 진행자는 나의 근황과 바라밀 일기를 통해 소개되었던 나의 이야기들에 대해 물었다. 사실 나는 좋은 시절과 인연을 만나 신문에 연재도 하고 방송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부처님 말씀 따르며 나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나의 작은 신행과 수행이 너무 크게 만들어진 것 같아 부끄럽다. 부처님께 귀의한 불자로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텐데, 그것이 특별한 일도 아니어야 하는 것인데 방송을 하는 내내 쑥스러운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일만 아니라면 불자들끼리 서로 서로의 신행담이나 수행담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스승이 되어주는 기회가 된다면 서로의 이야기를 알리는 것도 좋은 신행의 한 방편이라는 생각이다.”고 했다.

이 회장은 틈틈이 써온 신행담을 2013년 본지에 연재했다. 생활 속에 숨겨져 있는 불교적 가르침들을 꾸밈없이 독자들에게 전했다. 그의 말대로 서로의 신행담을 주고 받는 것이 경을 외우고 교리를 익히는 것만큼 성불로 가는 길 중 하나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77년 ‘연꽃모임’으로 신행의 새로운 길을 열었던 것처럼 그의 신행담 역시 신행의 한 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회장은 인생회향으로 그 글들을 모아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어렵고 딱딱한 문자가 아닌 생활 속에서 길어 올린 활구로 가득 찬 그의 신행담이 한국불교 신행의 또 하나의 ‘길’을 열고자 하는 것이다.

서로에게 가르침 주는 세상 되길

이 회장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삼보를 가슴에 새기고,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한다. 깊은 산사에서 모시는 장엄한 예불은 아니지만 이 회장의 새벽 예불은 그 어떤 예불과 기도보다도 신성하고 의미 있는 의식이라 하겠다. 이런 이 회장과 같은 예불이 모이고 모이면 곧 그것이 정토를 여는 것이 아닐까.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처에서 지극한 예불을 모시고 참회와 공부로 가득 찬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면 그것이 정토일 것이라 생각된다.

“법정 스님 말씀대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있음이 참 보시일 것이다. 지인들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따로 모아두고 버릴 것은 수거함에 버렸다. 재활용품을 버리고 올라오다 위층에 살고 계시는 팔순 넘은 할머니를 만났다. 그 부지런하시고 정정하시던 할머니가 이제는 걸음도 좋지 못하시고 안색도 예전만 못하셨다. 오랜만이라며 인사를 드리자 할머니 말씀이 ‘나도 얼마 전까지 중품은 됐었는데…’ 하신다. 나는 ‘지금도 중품 이상입니다.’고 답해드렸지만 어쩔 수 없는 시절 인연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그러나 비록 몸은 불편한 모습이지만 말씀 하나하나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생각 하나하나가 아직도 정정했다. 머지않아 내 모습도 저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니 집안에 아직 남아 있는 물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보였다. 늘 놓아버려야 한다고, 비워야 한다고 배우고 다짐하면서 살아왔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 이제부터는 소유하기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삶으로 남은 생을 회향하고 싶다. 그러다보면 가진 것은 줄어들어도 마음은 꼭꼭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치 누구나 편히 쉬어갈 수 있게 늘 길을 비워놓은 산처럼 살아야겠다. 좋은 사람 미운 사람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별 없이 받아줄 수 있는 산처럼 살고 싶다. 봄이면 꽃피고 새 울며 여름이면 무성한 잎으로 더위를 가려주며, 가을이면 형형색색 단풍잎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겨울에는 마른 솔방울 떨어뜨리며 무정법문 하는 산처럼 살고 싶다.

묵은 짐을 덜어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된 하루였다. 묵은 짐 속에서 옛날의 기억을 꺼내보듯 한 동안 방치하고 살았던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나로 인해 마음 아파했거나 불편했던 인연이 있었다면, 나 또한 편치 않은 사연들이 있었다면 이참에 참회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 마음 모두에게 가 닿았으면 좋겠다. 묵은 짐을 정리하며 나의 묵은 마음들도 정리해 본다.”

또 한 해가 저문다.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정리할 시간이다. 이 회장의 신행담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침을 주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본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전법일기

소리 장엄이 중요하다

매주 수요일마다 절 마당은 승용차로 꽉 찬다. 신도들이 북적이는 것을 보고,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들은 무슨 행사가 있는 날이냐고 묻기도 한다. 하긴 한적한 시골 절에 자동차가 몰려드니까 궁금하기도 할 것이다.

이곳에 합창단이 창단된 것은 지난 3월이다. 그러니까 아직 창단 1년이 안 된 새내기 합창단이다. 그렇지만 찬불가에 대한 열성과 관심은 대단하고 진지하다. 지난달에는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불교합창제에 충청연합팀으로 참가하여 찬불가에 대한 다양한 열정을 체험하였고 뒤이어 충북불교합창제에서도 아름다운 화음을 연출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찰의 여러 행사에 동참한다고 32명의 단원들이 동분서주 정신이 없었다. 이렇게 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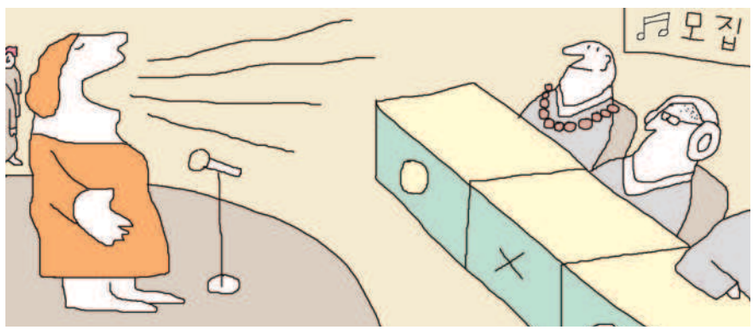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합창단으로서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일정들을 소화해 주어서 책임자로서는 무척 흐뭇하고 고맙다.

역사가 짧은 합창단이 무대에 자주 오르면 두 가지의 이점이 있다. 하나는 행사를 통해 단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력이 부쩍 향상된다는 것이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서 연습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팀워크가 형성되고 친목이 도모되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단체에 대한 사명과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라서 내실을 공고히 하는 기회도 된다. 그 다음은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자체가 실력을 확인하고 평가받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다. 여러 합창단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고 비교해 보아야 스스로의 평점이 객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전에 제주도 약천사 주지 스님을 만나 차담을 하면서 불교합창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기회기 있었다. 성원 스님은 어린이 합창단과 제주불교 여성합창단을 창립하고 성장시킨 주역이다. 불교합창단의 발전은 당해 사찰 주지스님의 노력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와 내가 의견일치를 이룬 것은 이제 불교합창단이 ‘의식용 합창단’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이는 사찰에서 단순히 법회의식 곡을 부르기 위해 합창단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사찰 신도들에게 박수 받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 합창단의 실력은 제 자리 걸음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단원들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실력을 연마하고 단원으로서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사실 시골의 작은 절에서 합창단을 창단하여 운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지휘자 급여나 단복 제작 등 크고 작은 지출이 만만치 않아서 재정적으로도 힘들지만 도심의 사찰과 견주어 신도 구성원들이 두텁거나 조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단원 확충에도 애를 먹는다. 그럼에도 이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는 찬불가는 음성공양이다. 향이나 꽃, 과일, 미곡(米穀) 등 불전에 올리는 것을 흔히 6법공양이라고 해서 불자들은 흔쾌히 동참하고 있으나 음성공양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법회가 열릴 때에 꽃과 음악(소리)으로 장엄했다는 경전의 기록은 음성공양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두 번째는 합창단은 대작불사다. 건물을 짓고 나무를 심는 것만이 어찌 불사이겠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찬불가를 부르고 보급하는 것 또한 무형의 불사다. 이것은 합창단의 역할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교회의 성가대는 성도로서의 자긍심도 높지만 그 위치 또한 확고하다. 그것은 찬송이 곧 복음이라는 신념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불교합창단은 법당이 있는 곳이면 조직되어서 필수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당을 짓는 것과 동일한 불교중흥의 불사이기 때문이다.



현진 스님 (청원 마야사 주지)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웅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 점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성한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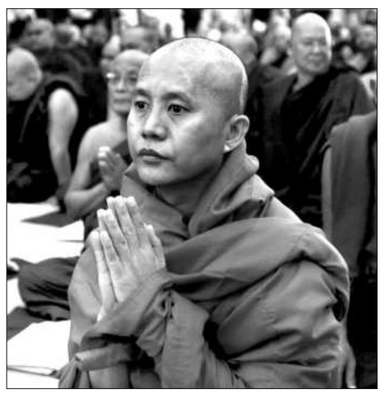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국제 분쟁의 한 축이 된 불교 무장세력

아지즈 뉴욕대 교수, 〈Huffington Post〉 지에 기고





이슬람교도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는 불교국가 미얀마에서 피난온 이슬람교도 난민가족(사진 왼쪽). 미얀마의 빈 라덴으로 불리는 아신 위라투 스님.

가까운 미래, 불교 무장 세력이 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분쟁의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마하 호사인 아지즈(Maha Hosain Aziz · 뉴욕대 정치학) 교수는 〈Huffington Post〉 지의 기고문에서 "2009년 스리랑카 내전 종결 이후 자국의 소수민족인 이슬람교도를 향한 불교계 폭력이 자행되고 있고, 미얀마 불교계 역시 2012년 이후 자국의 이슬람교도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최근 두 나라의 불교 지도자들이 '반 이슬람(anti-Islamist) 협정'을 맺어, 두 나라에서 이슬람교도의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와 스리랑카 불교계의 '반 이슬람 협정'은 지난 9월 아신 위라투(Ashin Wirathu · 미얀마) 스님이 스리랑카를 방문, 그곳의 불교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시아에서 이슬람교도를 몰아내자'는 데 공의를 모은 데 따른 것이다.

아신 위라투 스님은 '미얀마의 빈 라덴'으로 불리는 미얀마의 불교 지도자로, 이슬람교도들이 운영하는 상점을 이용하지 말자는 '969' 운동을 주도하고, 불교도 여성과 이슬람교도 남성의 결혼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데 신파 역할을 하는 등 반 이슬람 정서를 부추기는 과격파 불교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물론 불교 무장 세력의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이 없지는 않다.

마하 호사인 아지즈 교수에 따르면, 티베트 불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미얀마와 스리랑카 불교계에게 무장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달라이 라마는 '불교 무장 세력'을 '또 다른 십자군'이라고 표현했다. 태국 불교 지도자들 역시 "나와 남을 나누는 것은 불교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달라이 라마와 보조를 같이하며 스리랑카와 미얀마 상황을 비판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역시 지난 10월 미얀마를 방문했을 당시 완곡한 어법으로 '불교 국수주의'에 우려를 보였다. 빌 클린턴 미 전 대통령 또한 "불교 무장 세력의 폭력이 아시아를 침몰시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15년에는 불교 무장세력에 대응하는 방법 찾는 것이 화두

불교국가내 反이슬람 협정 막아야

그러나 "이들 노력이 미얀마나 스리랑카에서 시작된 '반 이슬람 정서'의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하다"고 전제한 마하 호사인 아지즈 교수는 "불교 무장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가?"라고 자문하고, "아시아 불교계는 물론 정치계 역시 미얀마와 스리랑카를 기점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교 무장 세력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2015년 화두'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마하 호사인 아지즈 교수는 우선 "왜 불교 무장 세력이 확산되고 있는 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역사학자와 사회학자에 따르면, 미얀마의 경우 오랜 기간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며 문화적 소외감이 팽배했었고, 지금과 같이 소수민족을 차별하려는 것은 그 소외감의 표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리랑카의 경우 민족 서사시로 꼽히고 있는 '마하방사(Mahavamsa)'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이 책은 스리랑카 불교사를 기록한 책으로 석가모니 입멸로부터 아소카 왕 때까지의 불교사를 기술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종교가 다른 소수민족을 차별하는 데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관련 학자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마하 호사인 아지즈 교수는 "'반 이슬람 협정'의 확산도 막아야 한다"고 단언하고 "아신 위라투 스님이 주도하고 있는 이 협정에는 캄보디아, 부탄, 라오스, 베트남 등도 참여할 수 있는 자국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 나라에 대한 종교적 정치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시대 종교문화는 종교간 소통은 물론 동일 공동체 안에서조차 소통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Huffington Post〉 지는 "종교들의 거대화, 극단화, 편의주의 등을 지향하는 추세 역시 소통의 부재에서 왔다"며 "이러한 점에서 불교 무장 세력의 존재가 해당 나라의 문제를 넘어 불교와 이슬람교 사이의 극단적인 갈등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마하 오사인 이지즈 교수의 우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서양의 최초 불교전래자는 아일랜드인"

찰스 파운드스가 1889년에 서양에 불교 전파



지금까지 불교가 서양으로 전래된 것은 1899년 캘리포니아 라는게 정설이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기록물에서는 이보다 10년 앞서 찰스 파운드스가 아일랜드에 불교를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한 불교사원.

"불교를 서쪽에 최초로 전래한 사람은 아일랜드인 찰스 파운드스(Charles Poundes)이며, 그 시기는 1889년"이라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Irish Times〉 지는 "아일랜드와 일본 불교학계의 공동 연구 과정에서 서양의 최초 불교 전래자는 '1889년 아일랜드인 찰스 파운드스'라는 사실을 담은 기록물이 새롭게 발견됐다"고 보도해 주목된다.

또한 〈Irish Times〉 지는 "지금까지 불교가 서양으로 처음 전래된 것은 '1899년 캘리포니아'라는 게 정설로 알려져 있는데, 아일랜드와 일본 학자들이 새롭게 발견한 기록물에서는 이보다 10년 앞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관련 학계는 물론 불교계가 이번에 발견된 기록물에 관심을 쏟는 이유"라고 의미를 더했다.

〈Irish Times〉 지에 따르면, 브레인 보킹 교수, 요신가 시니치 교수, 로렌스 콕스 박사 등이 당시 런던에 개설된 '일본불교 포교단(Japanese Buddhist Propagation Society)' 관련 기록물을 함께 연구하는 과정에서 '찰스 파운드스가 1889년 영국 주재 일본불교 포교단의 사무국 대표로 최초 부임했다'는 기록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브레인 보킹 교수 등은 "찰스 파운드스는 1840년 아일랜드 중소도시 워터폴드(Waterfold)에서 태어난 인물로, 그는 14세 때인 1854년부터 후견인의 도움을 받으며 유럽을 비롯해 세계 각지를 여행하던 중 마지막 방문지 일본에서 '이국의 문화와 종교'에 매료됐다"며 "1879년 고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10여 년간 일본의 언어, 문화, 종교, 역사 등을 공부한 그는, 서양 최초의 일본 연구가로 귀국한 후 영국 주재 '일본불교 포교단' 사무국 대표로 재직하며 서구 불교의 기반을 다졌다"고 주장했다.

〈Irish Times〉 지는 이번에 발견된 기록을 인용, "찰스 파운드스는 1893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1907년 12월 임종할 때까지 일본에 머물렀다"며, "브레인 보킹 교수 등은 최근 일본 코베(Kobe) 외국인 묘역에서 찰스 파운드의 묘를 찾아, 참배했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부처님 등장한 술집 홍보 포스터에 분노

미얀마 불교계 민족주의 단체 고소… 블랙우드 씨 등 구속



미얀마 랭군에서 유흥업에 종사하는 뉴질랜드인이 '종교 모욕죄'로 미얀마 법정에 서게 됐다.

미얀마 랭군에서 유흥업에 종사하는 뉴질랜드인이 '종교 모욕죄'로 미얀마 법정에 서게 됐다.

〈Guardian〉 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술집 홍보 포스터에서 환각적인 조명을 배경으로 핸드폰 통화하는 모습의 부처님을 게재한 술집 매니저 필립 블랙우드(Philip Blackwood, 32) 씨가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Guardian〉 지에 따르면, 블랙우드 씨의 홍보 포스터는 페이스북 게재와 동시에 미얀마 SNS 상의 분노를 촉발시켰고, 미얀마불교계의 민족주의 단체인 '종족과 종교 보존을 위한 연합회(Association for the Protection of Race and Religion, 이하 Ma Ba Tha)는 최근 이를 이유로 블랙우드 씨 등을 고소했다.

블랙우드 씨는 홍보 포스터 게재에 이어 SNS 상의 반발이 커지자 '최근 개장한 술집 V Gastro 홍보를 위해 이곳에서 가장 친숙한 이미지(부처님)를 선정해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공식 사과와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닫았다.

그러나 부처님을 이용한 홍보 포스터로 촉발된 SNS 상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고, 결국 블랙우드 씨와 함께 2명의 미얀마인 V Gastro 소유주 툰 투레인(Tun Thurein, 40)와 부매니저 훗트 코코 르윈(Htut Ko Ko Lwin, 26) 씨 등이 구속됐다.

"구설수에 휘말리도록 해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이었다는 게 블랙우드 씨의 진술"이라고 밝힌 미얀마 경찰 관계자는 "미얀마에서는 특정 종교에 대한 모욕이나 훼손 등의 범죄에 대해 최고 2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점을 간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Guardian〉 지는 "블랙우드 씨를 비롯해 V Gastro 관련자 다른 2명에 대한 체포 현장에서 20여 명의 기자들이 뜨거운 취재 열기를 보였다"며 "랭군 주재 뉴질랜드인이 '종교 모욕죄'를 범한 직후 미얀마 경찰이 '구속'이라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불교계를 중심으로 민족주의 성향이 현재 미얀마의 주류 상황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풀이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수식관 명상으로 학생들 마음 다스려

인도서 학생들 위한 대규모 명상 프로젝트 실시

인도에서 2500만 초중고생을 위한 대규모 명상 프로젝트가 시작돼 눈길을 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州)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2500만명의 초중고생을 위한 명상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인도 정부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숨을 다듬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명상법인 수식관(數息觀) 수행이다. 이 수행을 통해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얻게 해 그 결과 폭력적인 행동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수식관은 콧구멍 입구에 의식을 집중하고 자연스러운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면서 호흡이 어떻게 마음의 상태와 관련돼 있는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인도 주정부 교육부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시작 단계에서 70분간의 수식관을 훈련하며 이 과정을 이수하면 아침 수업 시작 전과 오후 하교 전 각각 10분의 수식관이 허락된다. 이 프로젝트에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 및 학교 종사들도 포함되는데 이미 10만 명의 교사들이 참여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2500만명 초중고생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대규모 명상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이나은 기자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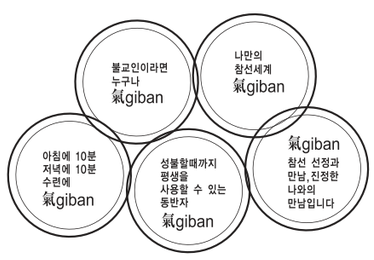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정보화 사회의 승가 사명

불교의 불혼(佛魂) 어디에 있는가?

현불 스님(우리불교 조계종 종정, 세계불교 연합 WBOA 총회장)

미래사회의 종교적 사회 가치는 인간의 욕구 본능을 도덕적으로 억제 하면서 수평적 지위와 사회와 가정에서 사아호간 손상되지 않고 질서가 유지되도록 협조와 경쟁과 균형을 지탱해 주는 자비의 실천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음은 현불 스님이 제 4차 WBOA 송년법회 주관하면서 열린 법문의 요지를 정리하여 싣다.

용성조사 사바강탄 150주년 봉암 대선사 성도75주년

向 龍城 · 鳳庵 兩大大禪師 祈願時
다음은 법문에 앞서 지난 6월 5일 용서조사 사바강탄 150주년과 스님의 사부이신 봉암 대선사 성도75주년에 즈음하여 대한불교 조계종 해인총림 해인사 용탑선원에서 봉행되었던 기념법회에서 낭송한 기원시 이다.

이 精神이 다 닳아 새 精神이 듣도록
우리는 우리의 부처를 밟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肉身이 다 뭉개져 새 살이 돋도록
우리는 우리의 老死 龍字 城字 祖師와
사부 鳳字庵字 禪師 밑을 서성일 수 밖에 없는 일이다.
喝을 외치는 주장자를 휘저어
龍鳳家風의 바람 속을 거닐 수밖에 없는 일이다.
歸源正宗의 거친 땅에 돋아난
顯正의 떡잎하나부터
覺海日輪과 海印大學 禪學가지마다
理入四行에 맞다아
海東佛敎의 淨化初朝요
己未年 3.1독립운동을 主導하신

민족의 肉身普薩 龍成진종祖師의 大覺恩想에
우리는 우리의 家風을 불 지필 일이다.
光州學生獨立運動의 先驅者로
幼小年의 五慾樂에 깨어나
빛고을의 빛이 되어 傳法度生의 普提의 華가 되신
鳳庵大喜禪師의 覺行覺滿의 究竟覺에
우리는 우리의 거친 숨을 보텔것이다.
鳳庵門徒의 일렁이는 動修精進의 피와
다 뭉개진 肉身의 허연 뼈까지도
에 보텔일이다.

– 玄佛和南

지적 수준이 높을수록 종교에 대하여 맹신
종교적 갈등이 사회공동체간의 갈등
종교의 본래 기능 상실

21세기 종교 문화는 정보화 산업시대의 인간적인 정신문화와 그 궤를 달리 하면서 현대인의 의식구조에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전개 되어가고 있다. 더욱이 사회의 한 축이 무너지면서 혼돈과 무질서의 수렁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종교가 이 시대의 대중적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 맹신하고 있다. 더더욱 이 같은 현상은 지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 신념은 강하고 경고하다.

한민족의 정신문화는 원시사회의 외경정신과 단군사상, 무속신앙, 유교사상, 불교사상, 인내천사상, 기독교 사상이 공존하고 있다. 이 같은 정신문화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각축을 벌이고 주류가 된 정신문화는 대중의 맹신의 대상이 되기 일쑤다. 이로 인한 가정에서의 종교적 갈등이 사회 공동체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일련의 인류사적 사회 현상은 종교의 본래 기능인 인간의 본성에서 멀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보화 사회 이전의 사회 구조는 수직적 지배 구조로 철저한 위계 속에 정치를 하는 통치자가 평화와 공존의 삶을 이끌었다.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수직적 질서에 길들여진 우리 사회는 최근까지 유일사상으로 대표되는 기독교 사상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정보화 사회의 흐름 속에 기독교사상은 더 이상 인간의 존엄을 억압하고 자유와 평등을 규제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시대의 사명 짊어져야할 불교 단체
기독교 황제 제도를 모방하는
몰지각하고 몰염치한 행각 더는 볼 수 없어
힐링의 불교문화 새로운 정보화 사회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유일한 정신도장

이런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부처님은 3000여년의 역사 속에 현재와 미래의 인간들의 삶을 수평적 구조 속에서 가정의 윤리를 회복하고 사회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수평적 관계 속에서 도덕적 인격을 갖도록 가르치고 일으켜 세우셨다. 이러한 미래 지향적이며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낼 불혼(佛魂)의 가치를 되새기며 이 시대의 깊은 사명을 짊어져야할 불교 단체들이 과거사적 인류 정신에 몰락돼 기독교 황제 제도를 모방하는 등 몰지각하고 몰염치한 행각을 더는 볼 수 없어 불 혼을 일깨우는 바이다.

불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인류 문명 속에 평등과 자리이타 행으로 생명 존중의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부처님이 미혹한 중생을 일깨우기 위하여 사바세계에 출현 하시어 초월적 존재로만 여겨왔던 유일 신성의 대상이 모든 인간에게는 누구나 신성이 있다는 보편적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 수행정진을 하면 누구나 아라한과를 얻고 부처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는 평등사상을 일깨워 주었다.

인간의 욕구본능을 도덕적으로 억제하면서 수평적 지위가 상호간 손상되지 않고 질서가 유지되도록 협조와 경쟁과 균형을 지탱하여 주는 종교적 사명이 절실히 요구될 때 한국 승가의 사명이 재정립되어지고 선교양종의 조화 속에서 수평적 경쟁에서 오는 에너지 방전을 충전 시켜주는 도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죽음의 문제에 편중된 재문화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는 힐링의 불교문화로 재도약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불교의 화쟁사상이 세계불교가 될 수 있도록 원효성사의 생활불교를 널리 홍보하고 실천하여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불교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전 인류를 유일신 성론으로 수직화 된 맹종의 문화와 기도로 구원된다는 맹신적 인류에서 주체적 삶을 살아가도록 승가는 행동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의 평등사상이야말로 새로운 정보화 사회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유일한 정신도장이 될 것이다.



현불 스님은 … 1948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났다. 속가 외조부 馬江선사는 학명, 만암, 해인 선사 등 호남의 선 종장과 두터운 교분을 쌓으시고 중국 불교와도 깊은 인연을 맺어 왔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스님은 1968년 용주사에서 전강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하였다. 이후 꾸준한 포교와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온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의 세계화와 미래 사회의 불교 확립에 앞장서 세계불교 종단협의회(WBOA)를 이끌고 있다.

한 소식의 할을 하면 법왕이요, 사자후를 토한 자리가 법왕청이다.
일부 승단에서 교황적 수직 관계주창은 반 이류사적 악행소치
행을 통한 수평적 인간사회윤리를 정립하여 가는 과정이 승가의 사명

물질문명의 발달로 수공업은 기계공업으로 그 능률을 얼마나 올렸으며 인간의 교통은 우주왕복하고 있다. 그러나 문명을 악용하는 일부 국가는 이 진보된 문명을 부당이익의 수단으로 오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위권이라는 평화의 수단으로 미화하고 있다.

그러나 승가의 안목으로 볼 때 그들의 이러한 사실은 자아의 오인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진실한 자아가 강자 독재의 권력을 의미함일까? 약자몰락의 참상을 궤변 하는 가면상의 평화를 위장함일까? 그렇다면 인간의 욕망이 근본적 자아라면 결국 인간을 아수라장의 도구로 전략하고 말 것이 아닌가?

이 자아의 발전은 수평 화된 평등사회의 개인과 개인은 서로 시기하고 생산자와 생산자는 서로 적이 되어 필경 인간은 멸망의 나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다 법종(法鐘)의 범주에서는 자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개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류의 평화를 최고의 이상으로 하여 향상하려는 것이다.

삼천(三千)년전 대천사바(大天娑婆)를 움직인 석가세존의 말씀이신 이타적 자아가 그것이다. 이런 절대 세상이 아니고서야 어찌 감히 전 인류의 이상이라 할 수 있겠는가? 서양 문문명의 품에 도취하여 분별 심을 잃고 반문명적 우리 사회의 현실에 반(反)하여 오히려 서구문명은 수평화 되어 있는 미래사회 구조의 인간 욕망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불교학의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데 실로 동서의 문명 교차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음을 자괴하지 않을 수 없다.

원효성사의 화쟁강단 사상은 전 인류의 바이블

유일신 성론의 기독교 사관으로 보편적 신성의 인간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전 문명적 종교야말로 타락의 회한에 개찬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성(大聖)의 법화(法化)를 입고 석가의 종통을 계승하는 불교도의 감개! 과연 어떠한가? 부처님의 덕용에 생을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조로 하는 자 어찌 태연히 지나 칠 수 있는가?

행이 옳음을 얻지 못하면 옳다고 할 수 없고 의(義)가 불의(不義)를 분변(分辨)하지 못하면 인생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찌 자아의 이상을 체득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불교도가 과연 자아의 입각에서 인생의 정체를 의식하고 그 행도가 의를 얻었는가? 만일 그 행(行)이 의(義)를 얻고 인생의식(人生意識)이 자하관하(自我觀下)에서 라면 그 내용을 불교학을 이해함에 있고 그 표상(表象)은 불교를 선양함에 벗어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한국승가(僧家)의 선천적 사명이 이것이요 미래사회를 지탱해줄 인륜도덕의 종국적 총합이 이것일 뿐이라 할 것이다.

문명의 변화에 비추어 불교의 유정무정을 진동한 사자후에 깨어진 직계법손의 사명이야 말로 원효성사의 화쟁강단에 전 인류가 귀를 세워 불교 상이 정립되어 질 것이다.

불손(佛孫)으로서 이만한 문화를 빚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요즘 일부 승단에서는 이러한 불교문명의 사명을 외면하고 교황적 수직 관계로 반 인류사적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는 참상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한 소식의 할을 하면 법왕이요. 사자후를 토한 자리가 법왕청일진대 왜 시대에 역행하는 망상의 행을 하는 지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불교도 종교인 이상 위상을 갖추어야 하나 이는 기구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요, 법화도량의 위신력으로 불교도의 자아적 사명으로 바른 행을 실천하고 평등한 수평적 인간사회윤리를 정립하여 가는 과정이 승가의 사명이요 힐링 불교문화로 정보화시대의 인간존엄을 위상 시키는 일일 것이다.

칸트는 직관형으로 시간과 공간을 말했다. 인간적 사실에서 초월하기 까지는 이 형식을 떠나서는 사색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 인간문화의 창조를 논함에도 아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은 아직 인간인 까닭이다.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 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 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불교카툰의 눈부신 활약… 불자 영화 감독들의 선전

미술에서 공연 · 영화까지 한눈에 보는 2014년 '문화 결산'

2014년 불교문화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2014년 불교계는 어라 스님이 추축이 된 불교카툰이 젊은층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았고, 김한민 감독이 만든 영화 명량이 역대 최대 관객 기록을 세우는 등 불자 감독들이 그 어느 때보다 선전했던 한 해다. 또한 젊은 불자들이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종횡무진 활약하는 점도 눈에 띄었고 미황사 괘불전, 간송미술전, 리움미술관 10주년 기념전 등 도심에서 불교미술의 진수를 엿보는 기회도 마련돼 주목을 받았다.

카툰 불교와 만나다

올해 붓다아트페스티벌에서는 불교만화 초대기획전을 마련 불교카툰을 선보였다. 불교의 사후 세계를 소재로 다룬 〈신과 함께〉의 저자 주호민 작가를 비롯해 어라 스님, 배종훈, 용정운, 양경수 작가 등이 참여해 불교 카툰의 진수를 보여줬다. 이후 어라 스님이 주축이 되어 '만만한 뉴스' 라는 불교 웹툰 뉴스가 창간되었고 불교 카툰은 모바일상에서 젊은층들을 중심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만만한 뉴스는 오프라인상에서 꾸준한 전시를 열었고 팬들을 위해 템플스테이도 개최하는 등 불교카툰을 알리는 데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불교방송은 용정운 작가가 디자인한 보리를 마스코트로 선정하기도 했다.

불교문화 대중 속으로

불교문화는 근엄하고 딱딱하고 고루하다고는 편견을 깬 전시와 공연들이 주목된다.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불교음악페스티벌' 에서 동서양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힙합& 팝핀과 오케스트라 'YO! 난다' 는 난다의 수행과정을 춤과 오케스트라의 융합으로 보여줘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프로젝트 아티스트 그룹 핑크붓다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미술관 대신 병원의 환우들을 찾았다. 이들은 환우와 그 가족들이 쓴 소원지를 활용해 탑을 쌓아 희망을 전해주고자 했다.

불자 영화감독들의 선전

올해는 불자 영화감독들의 선전이 그 어느때보다 눈부셨다. 올여름 극장가를 강타한 '명량' 은 불자로 알려진 김한민 감독이 연출을 맡아 1,136만이라는 역대 최다 관객을 기록했다. 특히, 김 감독은 명량에서 임진왜란 당시 의승들의 활약을 인상적으로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최근 100만 관객을 넘기며 다양성 영화의 신기록을 세워가고 있는 '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의 진모영 감독은 대불련 출신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이밖에도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이자 동국대 한국음악과 박상진 교수의 아들인 박규택 감독의 데뷔작 '터널' 이 개봉했으며 다큐 '길 위에서' 로 유명한 이창재 감독의 신작 '목숨' 도 관객들을 찾아갔다.

도심에서 만나는 불교미술의 향연

그 어느 때보다도 대형 미술 전시에서 불교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한 해다. 미황사 괘불 모사도가 도심으로 나온 미황사 괘불전은 전시 기간 내내 예불을 드리고 문화 공연을 마련하는 등 이색 전시로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간송 미술문화재단이 주최하는 '간송문화' 2부: '보화각' 에서는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 금동여래입상 등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미술관 리움의 '개관 10주년 기념전 교감' 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까지의 불상들은 물론 신라 '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국보 196호)' 등도 공개됐다. 이밖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은 신라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보원사 철불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2013년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특별전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문화콘텐츠 개발 나선 청년 불자들

30대 초중반 불자 문화 사업가들의 활약도 주목된다. 이들은 연기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새로운 문화트렌드로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우리 사회에 전하고 있다.

수행공동체 정신을 기업 문화에 접목한 전통문화콘텐츠기업 마인드디자인 김민지 대표, 현수막 패션가방 등을 재활용한 터치포굿 박미현 대표, 재능과 물질을 나누며 일자리도 창출하는 오공카페 조정훈 매니저, 불보살 캐릭터를 친숙하게 표현한 부다아티스트 정기란 대표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겠다. 이들은 불심을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지향적 기업 모델 제시, 전통문화의 현대화 등으로 기업을 이끌며 상생과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최다 관객을 기록한 김한민 감독의 '명량'


붓다아트페스티벌은 만화초대전으로 주목 받았다.


도심을 찾은 '미황사 괘불전' 예불 장면


힙합이 가미된 니르바나의 불교음악페스티벌


전문문화콘텐츠 기업 마인드디자인 직원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고요한 명상의 순간 렌즈에 포착

오철만 작가 사진전 '앙코르와트' … 가나아트스페이스에서


오철만 작가가 12월 29일까지 가나아트스페이스에서 앙코르와트전을 연다.

"언제나 무엇 앞에 서서 그것들의 표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사진가의 숙명이지만 나는 그 안으로 한 발자국 더 들어가고 싶었다. 그들의 심장소리를 듣기 위해 느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머물러야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극한 고요를 성취하는 것이었기에 침묵을 드리우며 걷는 수밖에 없었다. 조각들이 느리게 움직이고 나무들이 부드럽게 춤추기를 기다리며…"

불자 사진작가 오철만 씨는 자신의 작업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 한다. 오랜 시간 바라보고 대화하며 그 찰나를 카메라에 포착하면 그것은 또다른 명상이 된다. '워킹 인 더 사일런스, 앙코르와트' (WALKING IN THE SILENCE _ ANGKORWAT)' 전이 가나아트스페이스 1층에서 12월 14~29일 열린다.

앙코르와트와 주변 사원들의 사진 35점이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오랜 시간 역사의 장소와 대화하면서 담아낸 작가의 내면이 작품 속에 실려 있다. 한 곳의 사진을 찍기 위해 앙코르와트 사원과 주변의 도시를 수십차례 찾으며 명상했다는 작가는 천상의 여신 압사라, 태양의 빛 비쉬누 등 오랜 세월의 흔적을 담은 앙코르와트의 유물들을 작가의 시선으로 보여준다.

작가는 풍경도 사람도 또 형상도 그 어떤 것에도 연민하거나 도취되지 않는다. 경계의 선상에 서서 다만 바라볼 뿐이다. 생각도 감정도 떠나버린 그 자리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을 담아 대중들을 찾아간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침묵이며 지금 여기 머물며 역사의 현장을 현재로 담아내는 앙코르와트를 만나러 떠나보자. (02)734-1333

정혜숙 기자

경기소리꾼 범패음악을 만나다

노경미, 불교음악 '깨침의 소리' 발매

노경미(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씨가 불교음악 '깨침의 소리' 를 발매했다. 음반에는 복청게,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 향수나열, 그리고 '사다라니바라' 등 홋소리로 부른 범패음악이 실려 있다.

노 씨의 범패는 종교적인 원숙미, 불교적 신비감은 물론, 수십 년 이상 지켜온 경기소리꾼만이 지닌 특유의 시김새에서 나오는 음악적 정갈함과 단아함이 조화를 이룬다.

그는 민요나 잡가와 달리 불교음악 연주만큼은 최고의 기량을 가진 연주자만을 고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원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연주자들의 소리에 그녀의 목소리를 태울 때 묘음(妙音)이 완성되고 그것이 사바(娑婆)의 대중들을 움직일 수 있다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음반 작업에서도 이같은 음악 철학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대금과 피리는 대금산조 인간문화재인 이생강 명인과 그의 아들이자 대금산조 전수교육조교인 이광훈이, 북과 태징은 중앙승가대 교수이자 쌍암사 주지인 성마 스님이 각각 연주했다. 또한, 장고 및 꽹과리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휘몰이잡가 인간문화재인 박상옥 명창이 반주했다. 이 밖에도 태평소에 김필홍, 장고에 이관웅, 가야금 오주영, 해금 신현석 등 중견급 명인들이 참여했다.



노경미의 '깨침의 소리' 음반 표지

정혜숙 기자

마하연 송년음악회

불교실내악단 마하연이 12월 22일 문화공간 숨도에서 송년음악회 '소박한 선물' 을 열었다. 마하연은 이번 음악회에서 발렌시아나, 샐리가든, 소박한 선물, 상령산 풀이(대금독주-신주희), 렛잇비, 들꽃이야기, 코끼리는 내 친구, 첨밀밀, 한강수타령, 아리랑 등의 곡을 선보였다.

출연자로는 해금 성의신, 대금 유기준, 소금 신주희, 가야금 김희진, 피리 박진형, 타악 김혜진, 건반 최은정, 노래 김강민과 이연수 등이 출연하며 구새봄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다.

마하연 성의신 단장은 "연말을 맞아 모두에게 선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작은 음악회를 마련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음악으로 연말을 마무리하시고 2015년 희망찬 새해를 맞길 바란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마하연은 KBS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악 실내악단이다.

정혜숙 기자



문화人

부처님 가르침 佛音에 실어 … 전문 포교사로 활동

음성포교 30년 성악가 이준형


성악가 이준형 씨는 사찰합창단 지휘는 물론 다양한 공연무대에 오르며 지난 30여년 동안 불음포교를 위해 매진해왔다.

늦깎이로 불음포교에 원력 세워
사찰 지휘자와 성악가로 활약
교리 곁들여 단원 지도에 매진
내년부터 佛음악인협회 회장도

"저는 늦깎이에요.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다가 불광사 합창단 지휘자 한상림 선생님을 만나 음악을 배웠고 이후 사찰합창단 지휘를 꾸준히 맡으며 불교 공연무대에 서왔죠. 그러다가 대학원에 입학해 음악공부도 하고 지난해에는 첫 음반도 냈어요.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불음포교를 시작한지 30여년이 되었네요. 항상 신나고 즐겁게 불음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성악가 이준형(51) 씨가 지난 12월 19일 제 2회 불교음악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30여년 불음 전파를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 것이다. 성악가 사찰지휘자 등으로 종횡무진 활약해온 그의 음악 인생이야기를 들어봤다.

현재, 삼보사, 봉원사, 청룡사, 관음회, 포교사단 등의 합창단을 지휘하고 있는 그는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합창단원을 지도한다. "저는 연습을 한번 더 시키면 시켰지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사찰합창단이다 보니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이 다수이기도 하고, 또 일부러 시간 내서 배우러 오신 분들이니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단원들이 웃으며 연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조계종 전문 포교사이다 보니 노래를 가르칠 때 가사와 연관성이 있는 부처님 말씀을 곁들여 설명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공학도인 그가 이토록 불교음악에 매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중학교 때 '금강에 살으리랏다'를 대중 앞에서 부르면서 큰 칭찬을 받았죠. 그때부터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 사정상 그 꿈을 미루고 살다가 불교음악을 만나면서 제 꿈을 꽃 피우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후 불교계 지휘자와 성악가로 꾸준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어려움도 많았다. 전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냉대를 받기도 했고 한동안 합창단 지휘를 할 수 없어 개인사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어려움에 굴하지 않았고 중앙대 예술대학원 음악학과에 입학해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음악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또한 불교계 유일 오페라단인 바라오페라단 창단 멤버, 경기북부음악제의 사무국장 및 지휘자 등을 역임하면서 불교음악의 뿌리를 굳건히 해왔다.

특히 그는 경기북부음악예술제를 2005년부터 이끌어오면서 불교음악을 대중들에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왔다.

"의정부불교음악제를 이어나가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 경기북부음악제에요. 경기북부합창단이 결성되어 2005년 음악회를 시작했는데 이는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의 결성 계기가 될만큼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음악회를 통해 스님들의 연합체가 생겼으니 무척 긍정적 결과를 낳은 셈이라 할 수 있어요. 경기북부음악예술제는 매년 불교적 주제의 큰 테마를 정해 메인 공연을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불교음악을 전해주는 무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바라오페라단 활동 역시 그에게는 매우 의미가 깊다. 창단 공연 오페라 '아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 · '아미타불', 뮤지컬 '오세암' 등에 출연하면서 불교음악의 진수를 알리는데에 최선을 다해왔다. "바라오페라단은 불교계 유일의 오페라단이에요. 그만큼 의미가 있지만 그동안 공연 홍보가 잘 되지 않았어요. 내년이면 창단 10주년을 맞아 기념 공연으로 '아미타불'이 다시 올라갈 계획입니다. 바라오페라단이 좀더 많이 알려져 많은 분들이 불교 오페라의 즐거움을 맛보았으면 합니다."

내년 그의 행보는 바쁘다. 2015년 1월 1일부터 한국불교음악인협회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그는 불교음악 발전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대중들이 쉽고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불교음악이 많이 보급되어 대중들이 불교음악을 즐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회에서도 신도들에게 찬불가를 지도하고 또 이를 합창단과 함께 부르며 찬불가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음악을 통해 힐링이 되고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혜숙 기자



이준형 씨는 2005년부터 경기북부음악예술제를 이끌어오고 있다. 사진은 예술제서 연합지휘 모습



2013년 5월 발매한 '좋은 인연' 음반 표지

백 년 좌선하면 피안에 이르나니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⑤⓪ 쌍계사 ㊦




쌍계사 돈오문 오르는 계단

진감국사와 최치원

역사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다. 한 사람의 뛰어난 행적이 떨치는 향기가 무궁하면 그 역사 또한 끝이 없는 것이다. 쌍계사의 무궁한 역사, 그 출발점에 진감국사와 최치원이 있다. 진감국사는 중국에서 수학하고 돌아오며 범패의식을 들여와 이 땅에 봉불(奉佛) 의식의 비조가 되었다. 역시 중국에서 유학한 최치원은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학식과 문장으로 신라사회의 우뚝한 거목이었다. 그가 남긴 많은 문장 가운데 빼어난 비문 4건을 사산비명이라 하는데, 쌍계사 진감국사 비문이 그 중 하나다. 비문의 말미, 최치원이 찬한 진감국사 비명의 앞부분은 이렇다.

두구선나(杜口禪那) 귀심불타(歸心佛陀)
귀심불타(歸心佛陀) 근숙보살(根熟菩薩)
홍지미타(弘之靡他) 맹탐호굴(猛探虎窟)
원범경파(遠泛鯨波) 거전비인(去傳閟印)
래화사라(來化斯羅) 심유선승(尋幽選勝)
복축암등(卜築巖) 수월징회(水月澄懷)
운천기흥(雲泉奇興) 산여성적(山與性寂)
곡여범응(谷與梵應) 촉경무애(觸境無碍)
식기시증(息機是證)

입 다물고 선정 닦으며/ 마음으로 불타에 귀의했나니/ 근기(根機)가 성숙한 보살의 차원에서/ 도를 넓힐 뿐 다른 뜻이 없었다오/ 용감하게 호랑이 굴을 더듬고/ 고래 물결에 멀리 배를 띄워/ 가서는 의발(衣鉢)을 전수받고/ 와서는 신라를 교화했다오/ 그윽한 곳 찾아 승경을 가려/ 바위 벼랑에 터 잡고 쌓은 뒤에/ 물과 달을 보며 심회를 맑게 하고/ 구름과 샘물에 감흥을 부쳤다오/ 산은 성과 더불어 적연부동(寂然不動)하고/ 골에는 범패(梵唄) 소리 메아리치는 가운데/ 부딪치는 경계마다 걸림이 없었나니/ 기심(機心)을 쉬는 이것이 증입(證入)이라.

시로 영그는 선비와 스님의 교류

결국 쌍계사의 역사는 진감국사와 최치원이라는 빛나는 영웅을 발판으로 시작된 것이다. 당연히, 그 역사의 흐름을 이어온 후대 사람들은 쌍계사에서 그들의 업적을 찬탄했고 쌍계사 자체에 대한 경배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

운간은약수고잠(雲間隱約秀孤岑)
정대유인불염심(正對幽人不染心)
천분설화송경습(泉噴雪花松徑濕)
일홍람기석당심(日烘嵐氣石堂深)
한회발화향생전(寒灰撥火香生篆)
정야지주경발음(靜夜持珠磬發音)
연좌백년변도안(宴坐百年 到岸)
란번천게시장음(瀾 千偈試長吟)

구름 사이 숨었구나 빼어난 봉우리
그윽한 사람 상대하여 마음도 깨끗하네.
샘물은 하얗게 뿜어 오솔길 적시고
햇살은 아지랑이 쪼여 석당에 깊구나.
차가운 재에 불씨 찾아 향을 피우고
고요한 밤에 염주 잡으니 종도 울리네.
백 년을 좌선하면 피안에 이르나니
번뜩이는 일천 게송 길게 읊조리누나.

조선 중기 유학의 높은 봉우리였던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의 시다. 〈고봉집〉제1권에 전하는 이 시의 제목은 '쌍계사 승려 성북에게 주다(贈雙溪僧性默)' 이다. 고봉은 이 제목 아래 두 수의 시를 지었는데 그 중 두 번째 시다. 퇴계 이황과 '사단칠정논쟁'을 12년 동안 이어가며 자신의 학문 세계를 드높였던 당대 유학의 거봉이 쌍계사 스님과 교분이 있었다는 것부터 흥미롭다. 시도 맑고 그윽한 가운데 스님에 대한 존경과 정감이 절제 속에 드러나고 있다.

상인상방악양변(上人相訪岳陽邊)
비석선선별의견(飛錫僊僊別意牽)
산사중봉근오어(山寺重逢勤晤語)
상종편욕도여년(相從便欲度餘年)

스님이 악양루 가로 나를 찾아왔다가
표연히 떠나갈 제 이별의 정 아쉬웠지.
산사에서 다시 만나서 정담을 나누니
서로 사귀며 남은여생 보내고 싶구려.

기대승 보다 100년 뒤에 태어난 이현일(李玄逸 1627~1704)도 쌍계사 스님과 교류하는 가운데 스님과 잠시 헤어지며 아쉬움을 겪고 다시 쌍계사에서 스님을 만나 반가운 마음을 이렇게 시로 승화시켰다. 이 시의 제목은 '쌍계사 총상인에게 주다' 이며 그의 문집 〈갈암집〉제1권에 수록되어 있다. '서로 사귀며 남은여생 보내고 싶다' 는 선비의 마음이 그윽한 산사와 넉넉한 스님 앞에서 한 무더기 목단으로 피어나는 듯하다.

연재를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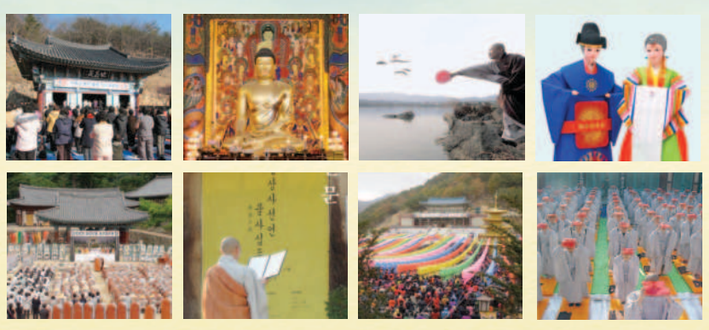
1년, 50회에 걸쳐 '산사에 깃든 선비의 시심' 을 더듬어 보았다. 한시는 고사하고 현대시에도 밝은 눈을 갖추지 못한 채 시작한 이 연재가 한 해를 이어오면서 받은 사랑은 과분하기 그지없다.

이 연재를 통해 필자는 물론 독자들도 △사찰에 전하는 시는 아주 많다는 것. △유학을 연마하는 선비들이 사찰을 수행의 공간으로는 여기지 않았더라도, 수행자들에게 더 없이 귀한 곳이 절이라는 것을 함께 인식했다는 않았다는 것. △산사의 풍경과 역사 그리고 스님들의 수행이 선비들의 현실적 갈증을 적셔주는데 적지 않은 감로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뿐이겠는가? 사찰이 시 창작의 문화공간으로 크게 활용되었다는 사실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글에 표현되지 않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왔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사실에 동의한다면, 지난 1년의 탐구가 헛된 일은 아닐 것이다.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문들이 많이 인용되었고 기타 개인의 문집과 학위논문 등 다양한 자료들이 참고 되었음을 밝힌다. 〈끝〉

祈禱와 法供養으로 福지으세요!



봉행요집 법공양(法供養)

불교행사의 교본이 되는 봉행요집은 성탄 • 출가 • 성도 • 열반 • 백중등의 명절과 수계 • 점안등 모든의식 봉행에 관하여 1계획, 2준비, 3식순, 4진행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수록되어 누구라도 불교의 어떤 행사를 계획에서 회향까지 준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특혜 봉행요집, 역학백과, 부적백과 3권을 구입하시면 동양역학 상담사, 동양철학교사 자격증, 승려증, 법사증을 드립니다.



행사 30종류
부록 3종수록 1,840쪽

불교행사의 지침서
봉행요집



총 5권
1,500쪽

불교기도의 모든 것
불교기도백과

기도에 꼭 필요한 책!
불교기도백과

서원을 꼭 이루는 기도법
기도에는 규칙과 절차가 있습니다.
규칙과 절차를 무시한 기도는
서원을 이룰수 없습니다.
여기 올바른 기도법이 있습니다

1.일반예참 2.사경기도 3.염불기도
4.절배기도 5.진언기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여래의 법을 전하는 복덕이
칠보의 보시복덕보다 더 많다고 하셨습니다.

도서출판 아이 공급원 가야기획 TEL: 02-379-2400. 031-948-0340 FAX: 031-948-3291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0 ~ 12/1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	원철	불광출판사
2	인생수업	법륜	휴
3	백일법문(개정증보판)	성철	장경각
4	사찰의 비밀	자현	담앤북스
5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일진	담앤북스
6	빅 마인드	데니스 젠프 메젤	정신세계사
7	흔적 없이 나는 새	수불	김영사
8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1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모과나무
9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개정판)	김윤수	한산암
10	미술관에 간 붓다	명법	나무를심는사람들



사찰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불교세시풍속

오인 지음 | 운주사 펴냄 | 2만3천원



한국과 중국의 방대한 문헌들 속에서 불교 세시풍속과 관련된 내용들을 집대성하여 월별, 일별로 재편집함으로써 불교 행사와 풍속, 그리고 그 각각의 의미를 소개한 책이다.

고요하고 한가하게 보이는 산중생활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사찰의 일 년은 새해 첫날부터 섣달 그믐날까지 매일매일이 다양한 법회와 행사, 그리고 기념일 등으로 분주함의 연속이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 년 동안 수행자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사찰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개한다. 사찰은 그 공간의 특성상, 가장 주된 모습은 수행과 관련된 일일 수밖에 없다. 혹은 기도나 포교 등과 관련된 일들이 뒤따를 것이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것들이거나 혹은 다른 특정의 목적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법회, 그리고 풍속이 특정한 때에 맞춰 진행된다.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모여 '불교문화'라는 독특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한다.

불교의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신일, 출가일, 성도일, 열반일 등을 기념하고 기리는 행사를 비롯하여, 다른 부처님들이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 여러 보살들과 관련된 법회 등이 열린다. 또는 계절이나 세속의 명절 등과 연관된 행사 등도 지속적으로 열린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법회나 행사들은 수행과 중생교화의 측면에서 나름의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그 성격이나 상황에 맞는 각각의 독자적 형식을 갖는다.

그런데 이런 세시풍속 중에는 현재까지 유지되어 실행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그 자취조차 찾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예를 들면, 새해 첫날 행하던 한국 불교 고유의 풍속으로 법고(法鼓)와 재미(齋米)가 있다. 이는 스님들이 1월 1일에 북을 치며 거리를 다니거나 집들을 방문하며 권선을 하던 풍속으로, 정조 때 승려들의 도성 출입이 금지되면서 사라진 풍속이다. 결연두(結緣豆)는 4월 초파일에 행하던 풍속으로, 염불에 사용한 콩을 나누어 먹던 세시풍속이었다.

책은 〈형초세시기〉와 〈연경세시기〉 등 중국의 세시풍속 관련 문헌, 〈동국세시기〉와 〈열양세시기〉 등 한국의 세시풍속 관련 문헌, 〈대반열반경〉과 〈백장청규〉 등 불교 경전 및 선문헌, 〈대당서역기〉와 〈입당구법순례행기〉 등의 순례기, 〈삼국유사〉와 〈조선왕조실록〉 등의 역사서를 망라한 방대한 문헌들을 조사하여 불교 세시풍속과 관련된 내용들을 세세한 것까지 찾아 엮은 것이다. 즉 여기저기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불교풍속 관련 기록들을 모아 월별 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불교세시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책의 일차적 가치가 있다.

불교세시풍속 내용 · 의미 집대성
법고 · 재미 등 사라진 풍속 소개
결연두… 콩 나눠 먹던 풍속
소멸된 풍속 재탄생 기대

또한 각각의 세시풍속들이 발생한 유래와 의미를 밝히고, 그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오랜 불교문화와 생활상, 수행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는, 불교행사와 풍속에 대한 종합적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역할을 기대하게 한다.

첫째, 불교세시 관련 원전자료를 집대성하고 있어서 연구자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에 필요한 원문을 최대한 수록하여 불교세시 연구의 기초자료집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불교문화에 대한 연구 및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 불교세시풍속에 관한 문헌정리는 불교문화 연구의 영역을 넓혀줄 것이며, 나아가 실생활에서 풍부한 불교적 접근방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책은 수록된 자료 및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소멸된 불교세시 풍속을 재탄생시키고, 다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문헌을 통해서 확인된 세시풍속 중에서 1월 1일의 '천반회', 4월 8일의 '결연두', 12월 31일의 '승병' 등은 19세기까지 있었던 풍속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스님들은 이름조차 생소하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는 의미나 방법은 현대에도 충분히 되살려서 수행방법 또는 포교방법으로 재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불교세시에 대한 정리는 불교문화 연구에, 그리고 옛 스님들의 생활문화를 통하여 현대 수행자들이 출가정신을 돌아보게 되는 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불자라면 알고 있어야 할 것들

영축산에 머무는 새

남월 스님 지음 | 맑은소리 맑은나라 펴냄 | 1만7천원



"도심 속 이리저리 얽혀있는 도로처럼 현시대 사람들의 마음도 어지럽게 흘러간다. 혼란스럽게 흩어진 마음의 길 끝에서 사람들은 과연 행복의 종착지에 닿을 수 있을까. 이렇듯 혼탁해진 마음을 한 곳으로 인도해주는 것이 바로 불교이다. 사람들에게 평온함과 자신을 찾아줘야 하는 것이 진정한 불교인 것이다. 하지만 불교가 마음의 평온을 준다고는 해도 처음 불교에 입문하는 사람은 당혹스럽기만 하다. 방대한 경전, 뜻을 알 리 없는 스님들의 축원 등은 법당에 앉아 있는 것을 무색하게 만들 뿐이다."

책은 남월 스님이 출가수행자로 살아오면서 지녀온 다양한 불교교리와 상식, 불자예절 등 불자라면 누구라도 숙지해야 하는 내용을 장르별로 나누어 집대성한 것으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의 불교에 대한 기초적인 궁금증을 풀어준다.

하지만 남월 스님은 불교 입문자가 지식에 대한 갈증을 풀기 전, 불교에 대한 친근감을 먼저 키우라고 말한다. 이에 남월 스님은 불교가 결코 남다른 이야기가 아닌 일반인의 삶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일러주는 것으로 첫 장을 열고 있다.

제1장 '남월 스님'에서는 '학창시절', '도반을 그리며' 등 남월 스님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글이 실려 있으며, '화두', '수행' 등의 주제로 쓴 시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유년기부터 뛰어난 글재주로 주목받았던 남월 스님의 에세이 〈아기도 사탕의 단맛을 안다〉 등은 남월 스님이 불자에게 바라는 것과 나아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삶의 지침이 담겨 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제2장 '불교용어'부터는 남월 스님이 문헌을 참고해 우리가 흔히 사찰에서 접하는 것이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불교의 모든 것을 담았다. 가사불사의 공덕, 처사와 거사의 차이, 오체투지, 묵언, 죽비, 아사리, 회향, 동지 등 흔하지만 불자라면 응당 알아야 할 용어의 의미를 정리했다.

제3장 생활법문에서는 나에게도 부처가 있다. 복덕을 부르는 삼바라밀, 보왕삼매론, 법구경 등 평소 불자들이 마음에 새기면 좋은 문구와 불자로서 갖추어야 할 예등을 실었다.

제4장 불교이야기에는 예수는 한 때 불교 고승이었다, 헌사록, 팔상전, 영축산 통도사 등 남월 스님이 중히 여기는 다양한 불교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제5장 '불교설화'에는 목탁의 유래에 얽힌 설화, 소금장수와 신기한 나뭇잎, 염라대왕도 감복한 효성 등 불자가 아니어도 가볍게 읽어도 좋을 유쾌한 불교설화를 소개하고 있다. 제6장 스님들에서는 진묵대사, 자장율사, 무주화상 등 대덕 스님들의 생애와 업적 및 설화를 실었다. 또한 부록에는 진언, 다라니, 사구게, 염송 게문을 실어 불교의 정수를 완성했다.

박재완 기자

네가 있어 내가 있다

생명 평화의 스님 도법 –대화 합시다 함께 삽시다

임어진 지음 | 김무연 그림 | 우리교육 펴냄 | 8천5백원



근현대사를 살아온 우리시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담아낸 '우리 인물 이야기' 시리즈 30번째다. '화쟁', '인드라망'이라는 화두로 생명과 평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도법 스님의 삶에 관한 것이다.

도법 스님은 18세에 스님이 되어, 13년 동안 여러 절에서 선 수행을 했다. 이후 〈화엄경〉을 새로이 읽고, 간디의 사상을 만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각자가 마주한 삶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며,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은 모두 관계를 맺고 이어져 있다는 깨달음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생명도 나 자신 만큼 귀하게 여겨야 하고, 남의 아픔에도 같이 아파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깨우침이다.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은 진리를 도법 스님은 만난 것이다. 이후 도법 스님은 1987년 전북 금산사 부주지를 지냈고, 1990년엔 청정불교운동을 이끈 개혁 승가 모임 '선우도량'을 만들었다. 1995년부터 실상사 주지를 맡으며 인간화와 생명 살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1998년 실상사 땅 3만 평을 내놓고 귀농학교를 세웠다. 이때 세운 '실상사 귀농학교'는 생명과 평화의 길을 걷는 '인드라망'의 출발이되었다.



귀농 학교를 디딤돌 삼아 나중에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 귀농 운동 차원을 넘어 생활 협동조합, 대안 교육, 환경 연대 운동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2004년 실상사 주지 소임을 내려놓은 뒤, 생명 평화 탁발 순례의 길을 떠났고, 이후 5년 동안 3만 리를 걸으며 8만 명의 사람을 만나 생명 평화의 가치를 전했다. 지금도 도법 스님은 순례를 나서며 '화쟁'과 '생명 평화'로 '인드라망'의 삶을 살고 있다. '인드라망'에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바탕이 되며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뜻이 담겨 있다. 살아 있는 생명체는 물론 돌, 흙, 먼지까지 모든 무생물을 포함하여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 다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뜻이다.

책은 도법 스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기를 세 가지로 나누어 다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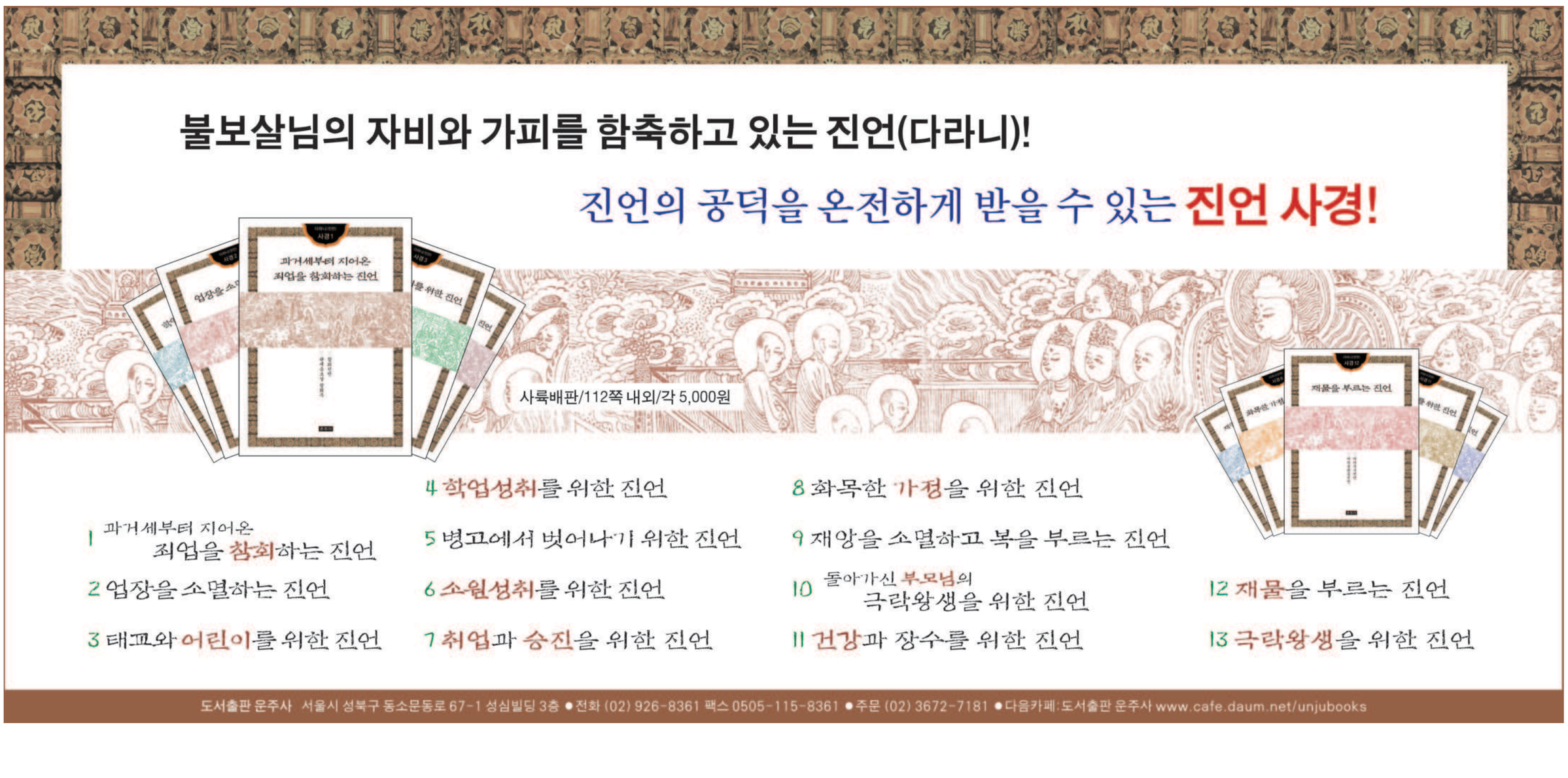
먼저 젊은 시절의 삶과 승려가 된 뒤, 13년 동안 선 수행을 하며 진리를 찾고자 몸부림치던 시절 이야기, 이후 〈화엄경〉의 세계를 재발견하고 간디의 철학을 만나면서 큰 깨달음을 얻은 시기의 이야기를 다뤘다.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은 뒤 '인드라망'의 삶, 생명 평화의 삶을 실천하는

생명, 평화의 삶 도법 스님 조명
"모든 존재 모두 하나로 이어져"

시기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남원 실상사 주지를 맡고 있었던 도법 스님은 실상사와 실상사 소유의 논밭을 바탕으로 귀농학교와 대안 학교 등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생명 살림의 삶을 나누기 시작한다. 귀농 학교를 시작으로 '인드라망'의 그물을 짜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도법 스님은 함께하는 사람들과 생활 협동조합, 대안 교육, 환경 연대 운동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산, 지리산을 살리는 운동을 하면서 전국 곳곳 3만 리 길을 걸어 8만 명을 만나는 순례의 시기다. 순례를 통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고 아픔을 주는 사람도 만나면서 갈등의 틀에 갇힌 사람들에게 '대화하고 함께 살자'고 이야기 한다. 도법 스님은 순례를 통해 성당도 교회도, 목사님도 신부님도 마다하지 않고 만나고 기도하며 걷는다. 이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작은 차이를 뛰어넘는 마음, 편견으로 나와 남을 나누지 않고, 네가 있어 내가 있다는 걸 깨닫는 일. 바로 스님이 외치는 '화쟁'의 시작이 아닐까.

박재완 기자



철학은 아름다운 삶 위해 큰 역할

이럴때 소크라테스라면

아비에저 터커 지음 | 박중서 옮김
원더박스 펴냄 | 1만 8천원



"이 책에 한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건 바로 불의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의로부터 고통받는 편이 더 낫다는 사실을 일부 독자들에게 확신시키는 효과였으면 하는 것이 저자인 나의 바람이다."

선택의 순간순간, 우리는 철학자

우리는 '점심엔 무얼 먹을까?' 같은 평범한 일상의 문제에서도 고심하곤 한다. 다양한 선택지를 두루 비교하며 무엇이 '나'에게 더 이익인지를 따져 보는 건 기본이고, 가끔은 무엇이 더 '옳은지'를 두고 고심도 한다. 밥 한 공기를 줄줄이 따라 나오는 다양한 생각거리들, 예를 들면 육식이냐 채식이냐, 로컬 푸드냐 아니냐, 많이 먹을 것이냐 적게 먹을 것이냐 등을 붙잡고 있노라면 밥 생각이 달아날 정도이다.

인생에는 밥만큼, 혹은 밥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수두룩하다.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할 것이며, 무슨 직업을 선택하고, 누구에게 투표를 할지 등등, 이 모든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려 들면, 생각할 시간만 해도 부족하다. 그렇다고, 인생을 만들어 갈 중요한 결정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 수도 없는 노릇. 그러니 인간은 강요됐든 아니든 "타고난 철학자"일 수밖에.

'너 자신을 알라', '악법도 법이다' 라는 발언으로 유명한 철학자가 있다. 2500년 전에 살다 간 소크라테스이다. 2014년을 사는 현대인에게 고조할아버지 정도의 느낌으로 다가오는 소크라테스. 그는 교과서에나 등장하며, 공부거리나 늘려 주는 박제된 철학자일 뿐일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문화, 역사, 예술, 종교에 관해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우리에게 그의 말들이 현실감 있게 다가올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이웃에 살아 우리와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어떨까? 요새 쓰는 말로, 우리가 고민하는 이슈에 대해 소크라테스와 토론할 수 있다면, 철학 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만 같다.

플라톤 대화편은 우리 삶과 어떻게 만나는가

이 책의 저자 아비에저 터커는, 플라톤 대화편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다섯 작품 〈크리톤〉〈메논〉〈에우티프론〉〈변론〉〈파이돈〉 등이 우리 시대와 호흡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이 책에서 선보였다.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소크라테스와 상대방이 나누는 대화를 단편 소설 형식으로 써내려간 이 책에서, 저자는 플라톤 대화편의 내용 전개를 고집스럽게 따라가며 플라톤 철학의 맥락을 놓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라 말하며 독배를 마시는 장면을, 법치의 상대적 이점을 거론하며 징병 영장에 응하는 청년의 모습으로 그려내거나, 아테네 법정에서의 변론 장면을, 세속적 성공을 위한 교육을 하라는 학교 당국의 요구에 맞서 철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며 기꺼이 파면당하는 교육자의 모습으로 재현하거나, 소크라테스의 죽음 장면을, 소신을 위해 안락사를 기쁜 마음으로 선택하는 철학자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등 현대의 딜레마 상황을 글감으로 삼음으로써, 오늘날 우리들이 플라톤의 사상을 우리들 삶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철학 하는 삶의 불편함, 혹은 행복에 대해

이 책은 플라톤 대화편으로 들어가는 입문서로도 훌륭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철학적 생활 안내서'로도 손색없다. 플라톤이 철학의 중요한 목표로 삼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기예'로서의 철학이다. 이는 철학이 삶을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데 기여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철학을 함으로써 우리는 정의나 선함이 무엇인지 볼 수 있고, 그것을 보았을 때 비로소 그런 가치를 따르는 삶, 소신을 밀고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이름 아래 수시로 슬픈 혹은 비굴한 타협을 하며 살고 있다. 그러는 사이 스스로 점점 타락하고 있다는 자괴감 속에서 몸부림치든지, 아니면 괴로움을

소크라테스와 대화 소설로 정리
"불의 저지르기 보다 불의로 고통받자"
가치있는 삶의 참된 정의 설명

떨치기 위해 내면의 정의감 자체를 망각하는 삶 쪽으로 가든지 한다.

책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따르는 정의를 논리 정연하게 입증한 후, 거리낌 없이 전쟁터로 향하고 일자리를 거부하고 죽음을 맞는다. 그런데 그는 입술을 꽉 깨물거나 주먹을 불끈 쥐는 대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듯 미소를 짓는다. 황당함보다는 부러움을 불러일으키는 이 괴짜 철학자의 행동 앞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인지를 곱씹어 본다.

소크라테스가 증명 못한 한 가지

"'이것 보게, 심스.' 소크라테스는 다소 야단치듯 말하더군요. '내가 자네에게 말하지 않았나. 나는 그걸 전혀 증명하지는 못한다고 말이야.'"

안락사를 선택하고 죽음을 맞기 직전의 마지막 대화에서, 소크라테스는 죽음 이후 영혼의 삶에 대해 말한다. 신체와 분리된 영혼이 어디로 가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어떻게 순수한 관념(idea)들을 만나서 참된 지식을 얻는지, 어떻게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는지 등등에 관한 '신화'를 들려준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납득할 수 없는 두 친구 겸 제자가 거듭 질문을 던지고, 소크라테스는 결국 자신이 제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며, 어쩌면 심지어 추측도 못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신화적인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시종 철저한 논증으로 일관하던 그도, 진리를 확인하고픈 희망과 죽음을 통해 영혼이 순수해질 수 있다는 믿음만은 버리기 싫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추측도 못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철학 하는 삶에는 이성 못지않게 희망, 감정, 의지 역시 중요함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소크라테스가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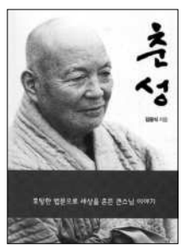
소크라테스만큼이나 정의에 목을 매는 저자의(저자에게는 비밀 정보원 노릇을 하면 자리를 보전해 주겠다는 대학 당국의 유혹 대신 해고를 선택한 전력이 있음) 손을 거쳐, 잔소리꾼 소크라테스가 25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우리 시대에 돌아왔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소크라테스. 그와 상대방이 벌이는 대화를 따라 가다 보면, 수시로 그의 논지에 속수무책으로 말려든다. 하지만 행간을 따라 가는 사이, 자기의 삶을 대하는 그의 진지한 태도와, 논증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그의 생각법이 우리 자신에게 스며든다면, 이만큼 행복한 독서 경험도 드물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춘성 스님 생애 새롭게 재구성

춘성

김광식 지음 | 도서출판 중도 지음 | 1만8천원



만해 스님의 제자이며 무애도인으로도 알려진 춘성 스님의 이야기를 다룬 책 〈춘성〉이 수정보완판으로 재출간됐다. 2009년 처음 출간된 이 책은 당시에 불교계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사정상 출판사가 문을 닫으며, 세인의 관심에서 사라져가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저자 김광식 교수가 책의 내용을 수정 보완해 이번에 새롭게 선보였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은 2009년 초간본의 내용을 수정하고 인터뷰 및 일화를 추가한 것으로 대중들이 읽기 편하도록 편집했다"며 "춘성이라는 거울을 통해 이 땅에서 다양한 춘성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재출간 배경을 밝혔다.

저자가 이 책에서 기술한 춘성 스님은 이렇다. 춘성 스님은 승려로, 수행자로, 망월사 주지로 근대 및 현대불교의 격랑을 헤치고 묵묵히 걸어간 자유인이었다고 회고한다.

또한 만해 스님의 제자로 3. 1운동 불교 대표인 백용성 스님과 함께 화엄사상을 응변적으로 전한 화엄법사로, 수덕사 선승인 만공 회상서 지독히 참선 수행한 간화선 수행자였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춘성 스님은 도봉산 망월사서 수좌들을 매섭게 지도한 선지식으로 서울시내 저작거리서 부처님 말씀을 원색언어로 전하기도 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는 춘성 스님이 활동하던 때도 그랬고, 그가 떠난 이후에도 결코 춘성 스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 아니 그를 부를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제 우리는 춘성을 다시 찾아내고 다시 만나야 된다. 왜냐하면 춘성의 고민, 고투, 정신 등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불교에서 '茶'는 수행의 한 방편

한국의 차그림

오병훈 지음 | 차의 세계 펴냄 | 2만 5천원



조선시대 대표적 화가들이 차를 주제로 인문학 관점에서 풀어냈다.

고대 중국서 시작된 음다문화는 후대로 오면서 동양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한반도에 차가 유입된 경로를 보면 불교와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삼국시대에 구법승들이 수당을 찾아가 그 곳 수행자들이 차 마시는 것을 보고 귀국할 때 그 다법을 갖고 이 땅에 돌아왔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렴이 당에서 차씨를 갖고 들어와 지리산 기슭에 심은 것도 어쩌면 수행자로서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한국의 차문화는 선차에서 그 맥을 찾을 수 있다. 불교에서는 차를 수행의 한가지로 보고 다반사니 끽다거, 다선일미, 선다일여 등 같은 법어를 만들어냈다.

이 책은 차의 역사는 물론 그림속에 등장하는 위인들의 사상체계와 문화적 민속학적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냈다. 차는 단순한 기호음료가 아니다. 차 속에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깃들어 있고 선비정신이 스며있다. 찻 잔을 앞에 놓고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예를 배우고 전통 가치관을 몸으로 익힌다. 차 꽃은 아래를 향해 핀다. 그래서 차나무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겸양지덕을 품고 있다. 옛 선지식들이 차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전통적으로 차 그림에는 동자가 차를 달이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상산사호도에서는 동자가 차를 달이고 죽림칠현도에서도 차를 끓인다. 사찰의 산신각이나 독성각에 모신 그림에서도 차 달이는 동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역사 속 주인공들 중에서도 다인들은 많다. 조선시대에는 김시습, 김홍도와 후기에는 동다송을 지은 초의 선사, 추사, 다산, 이상적 등이 바로 그들이다.

차관련 조선시대 그림 71점 제시
차 역사와 문화 자세히 소개

이 책은 고구려 고분벽화서부터 고려시대 회화에 나오는 음다 풍속과 조선시대 명화에 나타난 찻자리를 한데 묶었다. 그림을 통해 차와 불교문화 나아가 동양사상이라는 큰 대해를 독자들에게 안내한다. 한마디로 이 책은 역사속 등장인물과 차를 접목해 그 사상체계를 펼쳐보이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책에서는 정선, 강세황, 김홍도, 신윤복, 장승업 등 조선의 대표적 화가들이 작품 71점을 제시하고 작품 해설과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차와의 관계까지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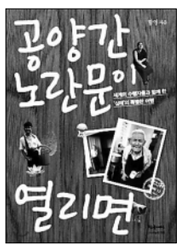
저자는 "차그림이야말로 우리 차의 진정한 정보를 담은 당시의 생생한 기록이며 왜색다도에서 벗어나 가장 한국적인 다법을 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전 세계 수행자들은 무엇을 먹으며 수행할까?

공양간 노란문이 열리면

함영 지음 | 참글세상 펴냄 | 1만 5천원



많고 많은 여행지 중에 하필이면 왜 공양간일까. 수행자들의 먹거리를 찾아다니며 특별한 음식과 수행자들의 살림살이를 찾아가고 있다.

나의 여행은 대체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 일어난, 반강제적이고 수동적이며 마치 오래전에 짜인 일정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여행은 대체로 우울하고 쓸쓸했다. 그러나 여행길에서 돌아올 즈음, 나는 내가 어째서 그런 내키지 않는 여행을 혼자 떠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해 이해하게 됐다.

여행에서 무엇을 얻겠다든지 혹은 버리겠다든지 하는 생각이나 바람 없이 떠난 막연한 여행이었지만, 여행은 번번이 그래야만했던 필연적 이유를 알게 했다. 굳이 그 이유 중 한 가지를 밝히라면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살면서 한번쯤은 만나야할 사람을 만나야할 때, 그 사람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지만 어떤 인연법으로 인해 한번쯤은 만나야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이해하게 됐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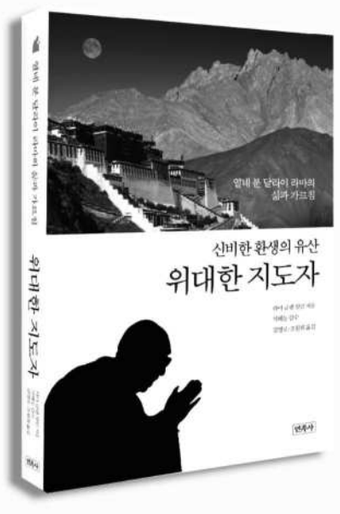
저자의 정체성이 일명 밥 작가에서 때론 여행 작가로 불릴 때도 있지만 여행은 매번 힘든 숙제와 같았다. 하지만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문장과 시원스런 표현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의심스럽다. 몇 번을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겨우 용기를 내야만 떠날 수 있는, 막막하고도 두려운 길. 더구나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으로의 여행은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당시 내게는 이왕이면 더욱 낯설고 더욱 물 설은 곳이 필요했던 것 같다. 여행의 이유는 매번 비슷했다. 여행 외에는 마땅히 다른 살만한 길이 떠오르지 않았다. 언제나 낯섦 투성이인 삶속에서 손발이 꽁꽁 묶여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중음과 같은 상태에 놓일 때가 있었다. 살아가는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사람과 세상에 대해 깊은 절망을 느낄 때, 내 문제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혹은 내 자신을 더는 위로하고 사랑할 자신이 없을 때라고 한다.

일본, 미얀마. 다람살라를 혼자 여행하면서 많은 인연을 만나 삶의 활력소를 찾아간다.

인생은 긴 여행이다. 그러나 빈손으로 태어나 한움큼 움켜 쥔듯하지만 어느새 세월은 가버린다. 여행 또한 마찬가지로 떠날 때는 마냥 즐겁지만 돌아올 때는 아쉬움뿐이다.

김주일 기자

환생 제도로 이어지는 달라이 라마,
그 신비 속에서의 삶과 고뇌를 들여다 본다



최초로 1대 달라이 라마로부터 현 14대 달라이 라마까지
역대 달라이 라마들의 삶과 가르침, 고뇌를 담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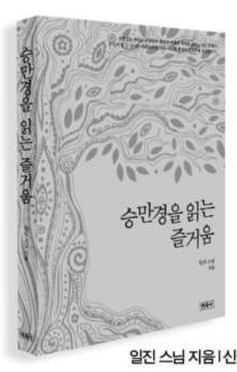
신비한 환생의 유산
위대한 지도자

1대 달라이 라마 –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2대 달라이 라마 – 두 가지 중요한 예언의 실현
3대 달라이 라마 – 파드마 쌈바와의 예언
4대 달라이 라마 – 칭기즈칸의 후예
5대 달라이 라마 – 티베트의 정신적 · 세속적 지도자
6대 달라이 라마 – 자유로운 생활과 사랑의 노래
7대 달라이 라마 – 하상 칸의 박해를 피해서
8대 달라이 라마 – 불안한 시대
9대로부터 12대까지 – 달라이 라마들의 요절
13대 달라이 라마 – 가장 도전적인 삶
14대 달라이 라마 – 인도로의 탈출

리마 글렌 멀린 지음
석혜능 감수
김영로 · 조원희 옮김
신국판 | 452쪽 | 값 23,500원

신분 차별의 시대에 여성도 성불하고, 불가촉천민도
성불할 수 있다는 절대평등의 진리를 일깨워준 승만경 !

'누구나 다 여래의 씨앗을 품고 있다'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여래장 사상!
운문사 일진 스님이 잔잔하고 섬세한 필치로 해설하는 그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해진다.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일진 스님 지음 | 신국판 변형 | 312쪽 | 값15,000원

「승만경」은 여래가 될 수 있는 경전, 부처가 될 수 있는 경전이다. 40여 년을 경전 연구와 탁월한 변재辯才로 전법 활동을 해온 경험으로 저술된 일진 스님의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을 많은 이들이 읽고 부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기를 고대한다.
-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의 추천사 중에서



민족사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무의식 · 유식論 유사… 정신분석학 결정체

불교로 읽는 古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강의〉



김영래
고려대 연구교수
한마음과학원 연구위원

프로이트와 무의식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가 니체, 마르크스와 함께 20세기 이후의 서구 정신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칭송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가 인간 의식 저변의 무의식(無意識)의 존재와 그 작동원리를 설득력 있게 밝혀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일생동안 인간의 본성을 집요하게 분석하면서 자신의 이론적 견해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갔기 때문에, 그의 무의식이론의 전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또한 정신의학과 정신분석의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프로이트의 저술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 교양인으로서 프로이트 무의식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분석강의(1917)〉만한 책이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책은 프로이트가 자신의 난해한 이론을 일반 교양인들에게 쉽게 이해시킬 목적으로 행했던 강연의 원고를 책으로 묶은 것이다. 또한 이 저술의 속편으로 말년에 내놓은 〈새로운 정신분석강의(1932)〉는 〈정신분석강의〉 이후에 이루어진 프로이트의 이론적 입장의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그의 이론을 균형있게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프로이트의 마음이론

주지하다시피, 프로이트에 있어서 마음의 구조와 작동원리는 무의식(無意識)과 전의식(前意識), 의식(意識), 그리고 이드(Id)와 자아(Ego), 초자아(Super Ego)의 개념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무의식', '전의식', '의식'의 구분은 그의 심리학 발전의 두 번째 단계에 주로 사용되었으며(〈정신분석강의〉의 입장), '이드'와 '자아', '초자아'의 구분은 세 번째 단계에 나타난 것이다(〈새로운 정신분석강의〉의 입장).

'의식'이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의식이며, '무의식'이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의식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행동이나 의식활동의 숨은 동기로 간주되는 감추어진 의식이며, 주로 맹목적인 소원충동(所願衝動)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의식(前意識)'도 평소에는 의식되지 않으나, 필요에 따라서 '의식'에 떠오를 수 있는 의식의 영역이다. 반면에 '무의식'은 절대로 의식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지 못하도록 억압(抑壓)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용원리를 프로이트는 우선 '쾌락원칙'과 '현실원칙'으로 설명한다.

'무의식'은 쾌락원칙에 따라 활동하는 반면, '의식'은 현실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무의식의 소원충동은 맹목적인데, 이것이 현실세계의 질서나 가치, 실현가능성 등에 배치되는 경우, '현실원칙'에 따른 의식의 '검열(Zensur)'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고, 의식의 검열에 퇴짜를 맡은 소원충동은 '억압'되어 의식의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하게 된다.

억압된 소원충동들은 어떤 식으로든 소원의 충족을 얻고자 활동을 계속하다가 검열을 피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서 의식의 영역으로 표출된다. 이와 같이 맹목적인 소원충동(=리비도)이 현실사회에 용인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과정을 '승화(昇華)'라고 한다. 억압된 리비도가 표출될 기회를 계속 얻지 못하거나 비정상적 형태로 표출되면 여러 가지의 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의식, 무의식, 전의식은 일종의 지형학적(地形學的)인 개념 구분인 반면, '이드', '자아', '초자아'는 입체적으로 구조화된 개념이다.

'이드'에는 지형학적 구분에서 무의식이 차지하던 영역이 대체로 속하며,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충동에너지가 비등(沸騰)하고 있는 곳이다. 이드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논리적 사고 법칙이나, 가치, 선악, 도덕 등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다.

'자아'는 원초적으로 볼 때, 외부세계에 대해서 이드를 대표하고, 이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드로부터 변형된 부분이다. 자아는 지각-의식체계(知覺-意識體系)를 발달시켜서 이드의 소망추구활동을 도우며, 또한 이드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드의 소망추구에 대한 현실성검사(검열)를 행하면서 현실원칙에 맞지 않는 이드의 활동을 억제하고자 노력한다.

'초자아'는 문명생활의 결과 생겨난 규범, 도덕, 양심의 의식으로써 자아와 이드를 검열한다.

따라서 '자아'는 한편으로는 '이드'를 제어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초자아'의 통제에 따르면서, 그 비난을 피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자아는 다루기 힘든 세 명의 상대(외부세계, 이드, 초자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갈등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자아가 약하면 한편으로는 이드(본능적 충동)에 지배당하기 쉽고, 다른 편으로는 지배당하는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사(소망)를 지속적으로 이드에게 일러주고 설득함으로써 처음에는 확고하지 못했던 자아의 소망이 반복적으로 이드에 입력되어 종국에는 자아의 소망이 이드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자아는 이드를 자신의 강력한 협력자로 만듦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드 자체도 이성의 빛으로 개명(開明)되어감으로써 점점 더 이성화(理性化)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하겠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Sigmund Freud, 1856~1939)의 사진. 오스트리아의 신경과 의사였던 그는 정신분석의 창시자로 평가받고 있다. 히스테리환자를 관찰하고 최면술을 행하며, 인간의 마음에는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꿈 · 착각 · 해학과 같은 정상심리에도 연구를 확대하여 심층심리학을 확립했다.

인간 무의식의 작동 원리 규명
신경증은 억압된 무의식이 원인

무의식을 의식의 영토로 넓혀
자신을 바로 보는 게 정신분석
불교 수행과 구조적으로 맞닿아

정신분석의 작업

프로이트는 정신과의사로서 특히 신경증의 연구에 집중한 결과, 신경증의 원인이—주로 환자의 유년기에 일어났던—본능충동의 억압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런데 본능충동만 억압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감정적 반응도 억압되어 환자의 무의식 속에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는 신경증의 원인을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정신분석가는 환자의 무의식을 분석하여 신경증의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환자 자신이 자각하도록 해야 한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분석을 위해 환자의 꿈에 대한 분석에 많이 의지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분석가가 제시한 신경증의 원인을 환자가 이해하고 수용하면 신경증이 해소되는데, 프로이트는 이를 '카타르시스'(catharsis: '배출' 또는 '정화'를 의미함)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어둠속에 쌓여있던 신경증의 무의식적인 원인을 밝혀보니 실제로는 허구적인 신념이어서 문제삼을만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며, 이것은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 위로 떠올라 정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린 소녀가 부모의 성행위를 목격하고 느꼈던 충격, 공포, 불안이 무의식적인 트라우마(상처)로 남아서 성인이 되어서도 성행동에 장애요인이 되는 경우, 분석가가 이러한 무의식적 원인을 밝혀주고 환자가 이를 인정하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무의식이 의식으로 전환되는 것인데, 이것은 비단 신경증환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억압되어 감추어져 있는 광대한 무의식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잠재적 신경증 환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겉으로 표출되는 사고와 행동의 뿌리인 무의식적 동기들을 하나씩 밝혀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무의식이라는 광대한 영토를 간척하여 점차로 의식의 영토로 편입해 갈 수 있다고 프로이트는 말한다.

의식의 영토, 자아의 영토를 늘리는 또 하나의 길은 승화(昇華: sublimation)이다. 승화란 '이드'의 맹목적 소원충동(욕망)을 문명사회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드'의 맹목적 동기(動機)는 '자아'의 현실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동기로 바뀌어져야 한다. 프로이트는 개인과 문명에 있어서 비합리적 근원을 지닌 무의식적 동기를 밝혀내고, 이러한 무의식적 동기를 합리적 동기로 대체해 나가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자아와 초자아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 즉 '이성(理性)'이 다시 빛을 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로이트는 새로운 형태의 합리주의자, 이성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이성은 더 이상 전통적 이성개념과 같은 독립자존의 자율적 이성이 아니다. 그러나 자아는 이제 이성의 힘을 통하여 이드에 속수무책으로 이에 대한 초자아의 비난과 징벌을 받아 죄책감, 열등감, 우울, 불안에 빠지기 쉽다. 초자아가 너무 강해도 자아와 이드가 지나치게 억압, 위축되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롭다. 따라서 자아가 이드와 초자아를 조절하여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자아가 충분히 강하게 발달되어야 한다.

무의식이론과 불교

프로이트의 무의식이론은 특히 불교의 유식론과의 유사성을 보인다. 전오식(前五識)과 육식(六識= 意識)은 프로이트에 있어서 대체로 '의식'에 해당하고, 칠식(七識)과 팔식(八識)은 '무의식(無意識)'에 해당한다. 특히 프로이트가 "정신생활의 모든 과정은 절대로 유실되는 일이 없이, 무의식에 고스란히 저장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무의식은 함장식(含藏識)인 팔식을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다만 프로이트의 마음이론에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업식(無明業識)에 가려져 있으면서도 업식에 물듦이 없는 청정한 본원자성(本願自性)은 설 자리가 없다. 위에서 살펴본 '카타르시스'와 '승화'도 질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불교적 수행과 유사점이 없지 않다.

카타르시스는 무의식에 들어 있는 불합리한 신념의 허구성을 자각함으로써 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므로 돈오(頓悟)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승화는 무의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어나가는 과정이므로 훈습(薰習)을 통한 점수(漸修)의 과정과 유사한 면이 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정신분석은 무의식의 영토를 간척하여 의식의 영토로 바꾸는 원대한 작업이라고 하는 프로이트의 입장은 여덟 가지 식(識)을 돌려 깨달음의 지혜를 이룬다고 하신 육조대사(六祖大師)의 말씀과, 현재의식과 잠재의식(=무의식)이 합일되어야 도(道)를 이룬다고 하신 대행선사(大行禪師)의 말씀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이러한 불교의 근원적인 통찰과 유사한 결과를 임상경험과 실험을 통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밝혀냈다는 데에 프로이트의 위대성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프로이트 저술들을 불교적 관점에서, 그리고 프로이트적 관점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것은 동양과 서양의 사상적 대화의 폭을 넓히는 데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이를 통하여 불교의 우주적 진리가 서구사회와 서구화 되어가고 있는 한국사회의 지성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파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것이라고 본다.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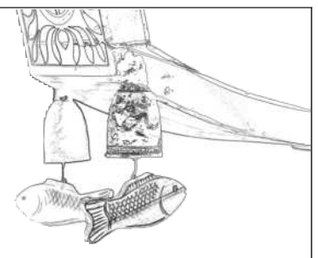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 숫타니파타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 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출가 희망자, 초보자 개인지도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 무료 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발명내용 및 효과
발명특허 획득
뒤틀린 척추, 골반, 고관절 각도, 다리길이 불균형을 바르게 교정하는 운동법. 아픈 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
네이버,다음검색 허리선생 혜경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백발백중 귀장술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 특허 : 30-0721929
수강생 모집
010-8558-234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병고액난 상담치유

- 간질(천병), 정신병(미친병), 귀신병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
- 풍파가 많고 우환이 끊이지 않는 분
* 무등산 불광사에 오시면 답이 있습니다
* 천도재,49재,산신재,산소로 인한 문제도 상담합니다
* 맞고장 쌍고장 전수합니다
불광사 해산 스님 010-7321-0404

손도사 큰스님의 生佛



정확한 방편술 책자를

4주년 기념하여
25만원을 80% 할인하여 5만원에
선착순 100분께 드립니다.
010-4735-3232
농협 352-0284-3938-73 하영옥

영 통 철 학

(1개월 완성)
-바로 상담가능
-고승 비급전수
동국대 대학원졸(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허준의 동의보감

(100가지 해독기술)
법 제 유 황
법제유황 안정성 검사필!
문의 : 삼성당 한의원
055) 972-0043, 972-0302

침구술 배우실 분

명 리 배우실 분

개인지도
(활인사 주지 직강)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2번출구
02)3487-2311

범음범패 학인모집

범음,범패,바라,나비춤,
천도재,49재,점안식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방편술 : 단기완성, 무공역학,
최면, 성명학
무상합장 : 010-4611-3738
정봉합장 : 010-3283-3658

비법 실전 사주

- 격국,용신을 뛰어넘는 쉬운 통변법
- 장애 및 조상음덕을 찾아
(빙의, 산소탈 등등) 천도재 등
각종 재로 이끄는 비법 및 방편법
* 3개월 후 새로운 비법에
눈뜨게 됩니다.
032-515-5922 (출장강의 가능)
(별도 : 빙의 퇴마법 강의)

기적의 자연전인치유

묘심기공(妙心氣功) 수련생 모집
의료 치료 기공사 과정. 손빛 氣 치료
기공 수련을 수년간 했어도
체계적인 정리가 안된분 환영
네이버까페: 묘심기공.
다음까페 : 일묘심 약사선원
전화: 02-766-1296 / 010-4611-1296
일묘심 약사선원
1호선 신설동역11번출구직진100m kt 맞은편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010-4015-949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5219-702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명산 상운사)
010-3764-3661
033-482-3382

부전스님 공양주 사찰포교원

(전문소개)
포교원 할분 서울 화곡동 위치
철학 작명 천도재 실력자 구인
010-5381-1419

천등산 조용한 산사에서 휴양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43-853-4741
010-4799-5699

극락행원 회원 모집

* 깨달음을 얻고 사후에 부처님 광명의 빛을 따라 극락세계를 염원하는 수행자 불자
- 극락으로 가는 우주행표나 싸인받고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혜안을 열고 깨달음을 원하십니까?
- 조상천도나 업장소멸이 잘 안됩니까?
- 빙의,신병,정신분열,치매,암등 확실한 치유
대우주 신통력 일광 합장
010-3586-6091

태양계 부처님으로부터 사바세계 최초 대우주신통력을 받은 비구승입니다

가장빠른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불교를 정립하고 신통력과 사후극락 세계로 가는 지름길을 알리고, 현재의 기도와 수행법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연구하실 분이나 불교학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대우주 신통력 일광 합장
010-3586-6091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로단비술의 기도법을 원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명상 기초부터 지도자과정 안내

1. 무료 명상 체험하기 (서울,광주,파주)
2. 붓다의 가피명상 기본과정 & 지도자과정
3. 태교명상 & 좋은 부모 되는 예술
4. 가족세우기, 강력한 삶의 변화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최상의 깨달음 코스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천 기 누 설

누구나,
사주를 바꾸는
기도법을 특별 전수합니다
약천암 회주 현오 합장 010-9229-3801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031-842-1070
010-9944-1075

달마스님의 칼국수집

본점 및 체인점을
운영할 비구니스님을
모집합니다
* 투자금 : 1천 - 2천만원
* 학력 : 고졸이상
* 연령 : 25 - 45세
011-301-4949

천비록 天秘錄 (하늘·땅·사람의 비밀)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등)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053)474-8228, 010-9562-8228

지장기도 및 천도법회 안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지장보궁 지장사에서는 선망부보 왕생극락발원 지장기도 및 천도재를 무주상 보시로 3년간 봉행하오니 인연있는 불자님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매월 넷째주 토-일요일 초중고 명상수련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도 봉행합니다. 오시는 분께는 네팔에서 가져온 당뇨, 고혈압, 비만에 좋은 차를 무료로 드립니다. 출가수행 할 행자님을 모십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지장보궁 지장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백마산 지장사
경북 김천시 농소면 입석길 332 / 전화 054)332-1189 www.jijangsa.net

당신도 운명을 바꿀 수 있다 !!

- 인생의 길흉화복이 이름과 주역속에 있다.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바꾸고 싶다면 이름을 함부로 짓지마라! 반드시 한글, 한문을 주역괘로 해석해야 이름의 본질과 성공여부 등을 알 수 있다.
- 실패! 고통! 고민! 병고! 막힌 운 뚫어 개운할 수 있다.
- 개인지도 : 주역성명학, 운세 등 사주통변에 도움됨.
효도역학 010-4007-9057. 02)416-2537
(신천역 4번출구 버스 정류장 앞 골목길 50m 큰손닭한마리 2층)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영가 찾는법 강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종무소 직원 구함

○ 남녀 불문 ○ PC 가능자
○ 사찰에서 숙식조건 ○ 급여는 상담 후 결정
(충남 부여)
010-5424-555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바다의 땅 통영! 아름다운 편백나무 숲으로
어우러진 조계종 사찰에서 기도하며 가족처럼
지내실 50대 공양주 한분을 모십니다
보시는 월 130만원 / 개인방사 / 2박 3일 휴가 / 초보자도 가능
기타사항은 상담 후 결정합니다
055-645-5324 (24시간 상담)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 (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 (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 (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원네스치유명상

깨어난 사람은 완전히 삶에 참여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법화선원에서는 원네스 깨어남에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깨 어 남 여정코스
원 네 스 치유명상
쿤달리니 명상수련



영적치유 마스터
트레이너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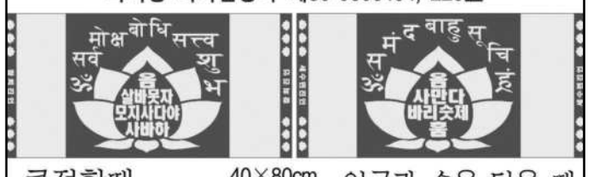
주소 : 서울 강서구 등촌2동 566-26
문의 : 010-4740-3001
하나됨 불교 깨어남 실천본부
하나됨 치유명상선원 혜웅 합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팔리어로
큰절할 때, 땀 흡수를 위해 방석위에 덮어 놓는
특허 제30-0606220호
참회진언 타올
100% 순면...



참회진언 대타올 및 가방
70×138cm, 450g, 30수, 20,000원

특허청 디자인등록 제30-0606191, 220호



큰절할때 참회진언 타올
40×80cm 160g 30수 5,000원
얼굴과 손을 닦을 때 세수면진언 타올

※ 타올에 인쇄 합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043)644-1102
팩스.0505-115-1616 / 농협 421012-52-195511 박희철 (010-5481-0194)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모든 중생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곱 가지가 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죄, 복, 인연이 그것이다.
이 일곱 가지 일은 아무리 피하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 법구비유경 -

사 찰 안 내

아름다운 사찰
- 위치 : 강원도 영월(시내 3분거리)
- 총부지 : 1300평, 건물 5동(요사채, 산신각)
- 법당 : 20평 (목조기와지붕, 연등 250등)
- 대문앞 : 계곡 (갈수기 관계없이 물 철철)
- 가액 : 3억 2천만원 (융자 1억 가능)

아름다운 토굴(자급자족가능)
- 위치 : 경남 고성
- 총부지 : 970평, 건물 4동
- 청정지역지정, 자연산 약초(봉삼, 비비초, 산초, 제피, 엉개, 산나물 등등)
- 요양처 최적지 • 가액 : 1억 8천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동 302번지 다산타워 505호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사무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 863-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중구사찰 양도
- 목조법당. 요사채등건물 4동
- 토지 900㎡. 건물 200㎡
- 전망좋으며 200년된사찰
- 양도금액 : 15억(융자있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울주군 두동면 부근
- 대지 180평, 대웅전 25평, 지장전, 삼성각, 대중방 8개 예쁜 용왕당
- 연못 및 청정지하암반수 있음
- 보증금 4,000만원에 월 30만원 (절충가능) 시설비 500만원

010-4855-7205
010-3036-7678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 여수, 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7억 2천, 조절가능

010-3855-7885
010-3604-54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언양시장 상가지역
- 전체 75평, 2층 건물 24평
- 1층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층 법당, 삼존불, 삼성각
- 마당 해수관음, 작은 텃밭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법회 즉시 가능, 시설완비

011-9542-8250

광진 사찰 안내

◎ 위치:경기수도권 ◎ 위치:경기수도권
◎ 부지:180평 ◎ 종교용지:1300평
◎ 법당:40평,전각2채 ◎ 법당:50평,전각3
◎ 요사:60평 ◎ 요사:100평
◎ 양도:5억 ◎ 양도:16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고서,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부산시 남구 2층 건물 사찰 양도
* 2층 법당 1층 요사채660㎡. 토지약1650㎡
* 뒷편은산.바다전망.포교하기좋은사찰
* 양도금액 : 15억(융자 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진구
- 조용하고 전망좋은 추후 불사하기 좋은 인법당
- 마당, 텃밭, 주차가능
- 법당, 공양간, 약사대불, 방 4
- 대지 281㎡
- 가액 : 3억 7천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이찬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

051)861-2233

포 교 원 안 내

- 부산 충무동 포교하기 좋은위치
- 평수 : 83평(법당, 공양간, 요사체로 구분)
- 보유내용 : 삼존불, 인등 (지장불 108불, 관세음보살 108불, 약사여래불 108불, 옥지장불 197불)
- 상단, 신중단, 영단, 인버터에어콘(냉 · 온방 가능)
- 가액:전세금 2천만원, 월세가 66만원 보증금 2000만원 (절충가능)

010-3628-1156(바로 입주가능)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시청 2분거리 (거제시장 2층)위치좋음
- 지장, 신중, 후불탱화
- 평수 : 40평, 방3, 주방, 법당, 방음시설 완비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 / 월 35만원(시설비 3백만원)

010-9421-0772
011-488-0316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 구산면 소재
- 평수 128평, 법당 32평 (아미타, 지장, 관세음)
- 원불 500불, 인등 1,500등, 구위패 300위
- 산신 칠성 18평, 용왕 3평, 공양간, 신도방 3개(스님방 2개, 거실)
- 절입구 아파트 1만세대 조성중
- 가액 : 3억 가격절충

010-2567-136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버스정류소 앞 큰 도로변
- 3층 중 2층 약 60평
- 큰법당, 큰공양간, 방 3, 샤워실
- 위치 환경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51)201-5667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사당동 (이수역 부근)
- 1층 30평, 삼존불(석가모니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왕, 조왕탱화, 인등, 연등 500개정도 시설 완비, 주차장있음
- 가액:보증금 3천만원 월 140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010-7173-6690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내중심 포교원
- 법당 1, 종무소, 공양실 1, 화장실 2
- 특징 : 도심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별도의 공사없이 바로 운영할 수 있는 도량입니다
- 모든 사항은 스님 상담 후 결정

010-9325-7286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재개발 내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동
- 평수 : 대지 82평, 건평 약100평
- 현대식 4층 법당 (1층 상가 2층 빌라 2동 3, 4층 법당)
- 전망: 재개발 임박지, 부산북항 대교근접지, 5분거리 난복지관, 시장, 마트, 대학교, 버스정류장 위치, 10분이내 국제금융센터 인접
- 가액 : 7억 5천 주인 직접

010-4409-1347

사찰 암자 기도터 명당자리 안내

- 위치: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곡 2길 484-3
- 면적 2,000평
- 거실, 산신각, 용왕전, 뒤산 밤나무 약 100주(매년수확)
- 소나무와 산 계곡물이 평생 마르지 않고 돌과 미륵바위 자연석이 많이 있고 자연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 천하에 명당자리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 가액 : 2억 5천만원

011-278-944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포시장 지하철1번출구. 최요지 3층
- 건물 3층 45평,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개인사정상 급 안내
- 가액: 전세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3,300만원)

010-4142-69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대지 : 157평
- 법당 : 25평(목조건물임) 요사채 2동
- 시설 완비
- 가액 : 2억 9천

010-3508-7710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6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토 굴 안 내

- 위치: 대구시 중구 대봉동 729-2
- 1층 15평, 2층 15평 합 30평
- 가액 : 보 500만 월 35만
- 보, 시, 물 합 1,700만원

010-2878-3380

부산 암자 안내

- 약 200-300평 문중땅위
- 산신각, 기와법당,
- 요사채 방3칸, 부엌, 마루 전기 수도 완비
- 가액 : 6,000만원

010-2669-7768

포교원,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북한산 근방 포교원
- 2층 건물중 2층
- 사용면적 60평 옥상전체사용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100만원
- 답사후 시설비 절충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가액 : 2억 5천만원(대출 1억 포함) 교환도 가능

010-8725-3196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북 청주시내 중심포교원
- 시설: 방3개, 거실, 창고, 주방, 심야보일러
- 특징: 도심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음. 한옥 65평
- 가액: 전세 2,000만원 월 60만원 양도 1억 7천만원

010-6369-119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4호선 당고개역 3분거리 대로변
- 12평 반 시설완비
- 가액 : 500만원에 월 30만원

010-8412-76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 평수 : 40평, 4층 건물 중 2층
- 구조 : 법당, 삼존불, 방2개, 공양간, 화장실
- 가액: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987-2338

사찰 요양 전원 주택지 안내

- 위치: 경북 영주시 조암동 (정남향) 1,240평
- 진입로 포장, 전기, 지하수, 택지조성 완비
- 양도가액 : 평당 25만원 가격절충가능

010-2826-3532

사찰(터)안내

- 위치 : 밀양시 상동면 신공리 982-1
- 땅 320평, 옆쪽 계곡 있음
- 삼면이 소나무 울창하여 먼 앞쪽에 물이 보이는 아주 좋은 터입니다
- 토성 작업 완성되있습니다
- 땅까지 포장도로 되있음. 대형차 진입가능
- 정남향 좌청룡 우백호가 잘 어우려져 있습니다
- 사찰 전원 주택 팬션 적합
- 꼭 하실분만 연락 주세요
- 가액 : 6천5백만원

010-3544-977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가 3층 48평
- 아파트 밀집, 재래시장 인근
- 시설 : 법당, 거실, 방2, 주방완비,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시설물 집기일체 양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3102-532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 2동 22-37번지 사거리 입구
- 평수 23평, 집기시설 일체, 몸 만 오시면 됨
- 스님건강상 급 안내
- 가액 : 전세 500만원 월 20만원 집기일체, 시설비 1,500만원

010-4680-9322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가격 : 215,000원
285,000원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계성면 화왕사로 66-5번지
- 총 532평중(종교부지, 308평) 요사채 55평
- 목조 전통기와 단청 (대웅전, 칠성각, 산신각)
- 산밑에위치, 도로인접, 심야보일러, 집기일체
- 가액 : 3억 5천

010-9944-1618
(010-8664-8259)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도 부천시 성무로 21번길 40-19번지 부천전철역에서 10분거리
- 수십년된 위치 좋은 사찰
- 삼불존, 신중단, 영가단 완비
- 일체 다 되어 있음. 몸만 오시면 됨
- 방 2개, 주방, 별채 방 1개, 종각
- 평수 : 98평, 텃밭도 있음, 창고 20평
- 가액 : 전세 1억 1,5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답사 후 조정

010-6674-1356

포 교 원 안 내

- 춘천 3,600평 3억 8천 전 임대지 전망좋음
- 경북 영주 3,600평 18억 사찰운영중
- 모든조건완비 대출가능 100억이상
- 수입창출가능 비교불가한 좋은 조건 환경

010-4880-7890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광양시와 순천시 접속지역
- 도시 한복판이면서 숲속 뒷산은 울창한 소나무
- 절 앞은 큰 시냇물과 저수보
- 시내 건너엔 아파트 밀집촌
- 대지 730평, 임야 3,700평, 대웅전 30평 요사 2채 50평, 방 5개 창고 등
- 가액: 5억 5천

010-2124-362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 평수 : 70평 2층
- 법당, 간사 3동 응접실, 공양간, 엘리베이터, 도시가스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3050-5055

대형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황매산 합천댐인근 해발 400m 남향
- 임야 52,000평(실사용평수 2만평이상)
- 기암괴석, 기도처
- 이동가능한 수백억원 가치 조경석,간판석
- 용바위,거북바위,입석바위 등 기암괴석 다양
- 도로 전기 수도, 순환산책로 공사완료
- 노인복지,연수원,요양원,선원,기도처
- 관광사찰 최적장소 울산함양고속도로 개통시 합천호 IC에서 5분거리 위치
- 가액:평당7만원. 답사상담후 절충가능

010-8677-093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사천시내 중심지 시장 인접 최적지
- 평수 : 60평
- 삼존불,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봉안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616-57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271평 중 법당 22평
- 칠보 5존불(석가, 미타, 관음, 지장, 약사) 칠보 호신불 204불
- 시청, 은행 등 모든 관공서 도보 10분 거리
- 투자가치 높은 지상공원 확정, 빌라지역
- 가액: 대출 3억 안고 양도 4억 5천

010-5019-5385

황토집 임대

- 위치 : 성주군 금수면 무학3길 136-1
- 12평(거실겸 주방, 방1칸, 화장실)
- 밭에 온갖 약초 재배중 (필요하면 취식가능)
- 공기 맑고 경치 좋은 곳에서 지내실 분 연락주세요

010-8591-1076

분노를 다스리는 붓다의 가르침

샤론 샐즈버그 · 로버트 서먼

〈4 · 끝〉 마지막 승리: 가장 은밀한 적

아상의 비눗방울 터뜨리면 세상 열린다

자기혐오

어느 날 오후, 티베트 망명정부와 달라이 라마의 거처가 있는 인도의 다람살라에서 학술회의가 열렸다. 달라이 라마와 일단의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참석했다. 주제는 '치유하는 감정' 이었다. 이 회의는 시작부터 흥미로웠다. 티베트어에는 감정을 뜻하는 단어가 없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티베트 전통에 따르면 우리는 마음 상태 같은 것은 갖고 있지만 그중 어느 것도 감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어느 시점에서 달라이 라마에게 물었다. "성하, 자기혐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라이 라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미국 문화 속에 너무도 만연한 자기혐오에 대해 길게 설명했다.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죄인, 결함이 많고 하찮은 피조물이라고 믿으며 증오하는 감정 등. 달라이 라마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는 의아했을까? '우리는 모두 불성을 지니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자신을 증오할 수가 있는가? 자기혐오는 정서장애의 일종인가? 그건 위험한가? 개인을 폭력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가?'

달라이 라마의 혼란스러운 표정은 문화적 차이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것이 대단히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서양에서는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은 원래 결함이 굉장히 많은 존재라고 믿는다. 아시아 문화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더라도, 동양인들은 서양인들처럼 그 흔한 믿음에 짓눌려 있지 않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불교도들은 인간의 본질적인 선함을 근본적으로 믿으며 거기에서 귀의처를 찾는다. 그 믿음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감지하게 해 준다.

개인주의, 완벽주의, 추진력, 야망, 경쟁 등을 강조하는 서양의 문화에서는 정말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을 상대로 최악의 비판가가 된다. 우리는 자신의 타고난 선함을 감지하지 못한 채 스스로가 구원이 필요한 영혼이라고 인식한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모자람 없이 완벽하고 충분한 기분을 느끼기 위해 다음번 신상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라고 생각한다. 서양 사회처럼 욕망을 부채질하는 경쟁적인 사회에서 행복한 인생이란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갖기 위해 애쓰고 더 많이 갖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인생으로 자주 정의된다. 우리는 스스로 부족하고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며 완벽하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는 느낌을 없애기 위한 필사적인 악전고투로 인생을 소모한다.

가장 은밀한 적을 물리치기 위해 샨띠데바에게 돌아가서 그의 생각을 따라가보자. 자기혐오와 자기 비하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공과 그 무한한 힘 –생과 사의 실제 모체(母體)–에 대한 가장 깊은 실상을 자신이 깨달을 수 있다고 상상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깨달음을 가능케 하는 그 힘의 원천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 동체대비로 주의를 돌리자. 먼저 우리는 자기와 타인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관조한다. 우리는 기쁨을 원하지만 고통은 원치 않는다. 다른 이들도 똑같다. 우리는 자유와 행복을 추구한다. 다른 이들도 똑같이 자유와 행복을 추구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 머물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이 모두 같다. 겉모습은 각자 다르지만 상처받거나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 같다. 그러므로 당연히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만큼 그들을 보호하고자 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요, 다른 사람들의 팔과 다리는 그들 몸에 붙어 있어요, 내 몸이 아니라. 내 팔과 다리는 그들 몸이 아닌 내 몸에 붙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지는 못해요. 그들도 내 고통을 실제로 느끼지 못해요. 어째서 내가 나를 보호하는 만큼 그들을 보호해야 하지요?"

간단히 답하자면 동체감은 그렇게 기계적인 게 아니다. 내가 내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그 고통이 내 것이라고 믿게끔 길들여지기 때문이다. 최면에 걸리면 나는 불에 데어도 무감각하다. 잠들어 있을 때는 모기가 물어도 모른다. 상대팀 선수가 발로 걷어차도 나는 골을 넣는 것에만 열중할 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서 나는 그 순간에 그 고통과 동일시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고통을 느끼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학습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공감하는 것도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감할 때 나는 그들의 고통을 실제로 깊이 느낀다. 연민이 일어서 나는 그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애쓴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정말로 느끼면 그로 인해 내 괴로움이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건 고민거리가 아니다. 모든 존재와 서로 연결돼 있음을 명확하게 알아차릴 때 그들의 고통을 부지불식중에 이미 느끼고 괴로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죄책감을 느낀다. 연민이 일어날 때 자신이 다른 존재들과 서로 연결돼 있음을 인정한다. 연민이란 다른 존재들에게 밀려드는 엄청난 괴로움의 파도를 향해 용감하게 달려가 돕는 것이다. 연민은 우리의 기운을 돋워서 우리가 그 모든 괴로움을 견디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 무엇이든 하도록 해 준다. 우리가 고통에서 물러서지 않고 고통을 향해 다가갈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니 다른 존재들의 고통을 자발적으로 함께 느낌으로써 그들과 더욱 강하게 연결되고 고통이 줄어 편안해하는 그들을 보며 몹시 기쁘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연민은 다른 존재들을 괴로움에서 꺼내 주려는 간절한 염원이다. 그 마음은 우리를 괴로움에서 꺼내준다. 연민으로 충만한 사람이 괴로움에서 제일 먼저 꺼내 주는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다.

자부심과 자기 연민

심리학자들은 자부심과 자기 연민을 구분한다. 자부심은 성공했다는 인상에 의존하고 객관적 기준 –이 정도면 내가 훌륭한가? 이 정도면 똑똑한가? 부유한가? –에 의해 측정되는 반면, 자기 연민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자신을 응원하는 조건 없이 열린 마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부심은 경쟁심을 내포하며 우리가 정말로 궁지에 몰릴 때는 쉽게 사라진다.



연민은 스스로를 괴로움에서 꺼내
타인을 이해하게 해주는 열쇠
나와 모든 사람의 '한없는 연결' 알면
존재감이 더욱 커지고 행복해진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Kristin Neff)에 따르면 자기 연민의 주된 요소는 세 가지다. 첫째는 자신을 향한 친절이다. 자기 친절(self-kindness)은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칠 때 다그치지 않고 사정을 봐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연민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할 때 분노보다 친절이 더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안다.

자기 연민의 두 번째 요소는 공통된 인간성(common humanity)에 대한 자각이다. 내부의 적과 마주칠 때 우리는 괴로워한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이 깊은 고립감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자기 혼자만 절망하거나 실수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기 연민은 누구나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해 준다. 유전자, 환경, 양육 방식과 같은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불완전함은 모든 인간이 공유한 조건이다. 공통된 인간성을 인지함으로써 우리는 부족한 자신에 대한 판단과 비난을 줄일 수 있다.

세 번째 요소는 마음 챙김이다. 자신이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 그 경험을 인간으로서 겪을 수 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지켜본다면 우리는 평정을 되찾을 수 있다. 마음챙김은 우리가 감정과 생각을 바꾸거나 부인하거나 외면하려고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꺼이 관찰하게 해 준다. 네프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는 동시에 그 고통에 연민을 느끼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자기 연민은 우리가 실수를 저지른 후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실수한 자신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 실수에 완전히 골몰하는가?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다니 난 정말 바보 천치야!' 아니면 그 뼈저린 실수를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가슴 아프게 되새기는가?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줄 알았어. 그런데 내 생각이 틀렸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는 까맣게 몰라서 그렇게 했어. 그게 너무 슬퍼.' 차이는 분명하다. 판단은 일방적이고 완고하며 근시안적이다. 반면 연민은 복합적이고 포괄적이며 유기체의 진화하는 일부다. 연민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한정된 정보와 개인적 결점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순순히 받아들인다.

우리가 영웅으로 일컫는 남성과 여성들, 즉 타인의 목숨을 구하려고 큰 괴로움이나 시련, 위험을 무릅쓴 이들은 누군가를 구조할 때 희열을 느낀다고 종종 말한다. 그러한 종류의 타인 몰두 행위는 두려움을 초월한다. 물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기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인명 구조 기술을 갖추지 못했어도 누군가를 구하러 물에 뛰어들기도 한다. 더 현명한 행동 방침은 무아행(selfless action, 無我行)을 목표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수준, 어떤 위험에 처하든지 모든 것을 용감하게 내던지고 그 위험에 뛰어들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면 덜 위험한 상황에서 당연히 아주 편안할 것이다. 우리의 목적지, 지극히 행복한 깨달음의 드넓은 바다가 항상 우리를 부른다. 다른 사람들과 자유를 공유할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즐길 수 있다. 동료 인간들과 단절된다면 우리가 무슨 자유를 느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독방에 홀로 갇혀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무엇보다 연민은 실현 가능하다. 이타심은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진리를 직시하는 것에서 연민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연민은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만듦으로써 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확장시킨다. 나보다 타인들의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나보다 그들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을지 모른다.

다른 이들의 몸과 마음과 인생이 마치 내 것인 듯, 그들에게 동체감을 느끼면 안 될 이유가 있을까? 연민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그렇게, 나와 그들을 동일시해야 한다. 자기 몰두 습관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는 쉽게 알 수 있다. 나에게만 몰두한다면 나는 아주 많은 것을 놓친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외롭고 소외된다고 느낀다. 자기 몰두라는 견고한 비눗방을 속에 갇혀 있는 동안, 내게는 긍정적인 것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비눗방울을 터뜨리고 나와서 우주적 관점을 갖고 내 결점을 자각하게 되면 나는 그 결점의 원인이 내 유전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행위에도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자기 몰두 습관 때문에 내가 줄곧 괴로워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을 깊이 인정할 때 세상이 크게 열린다. 그리고 차차 주의를 돌려서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소망과 욕구에 초점을 맞출 때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외로워하고 절망하는지 훤히 보인다. 손을 뻗어 그들의 자기 몰두 비눗방울을 터뜨려서 그들이 나와 연결돼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난제에 적극 참여한다. 나의 관심과 염려를 감지할 때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한다. 깜짝 놀라며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고, 겁내며 움츠리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받아들인다. 자기 몰두 비눗방울을 더 많이 터뜨림에 따라 타인과 연결되는 것이 실제로 난제라는 것을 깨닫는다. 꼭 알맞게 손을 뻗는 것에는 대단히 정교한 기술이 필수적이고, 그들이 내 관심과 말투와 몸짓을 어떻게 지각할지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예지력도 필요하다.

연민으로 충만해지기와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있다. 첫 단계는 진실한 동기를 갖는 것이다. 이 동기는 우리가 모든 사람과 한없이 연결돼 있다는 느낌에 근거한다. 이 교육과정에 들어서면 우리는 자신이 그저 한 가지 습관을 기르는 중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이타적 태도를 자축하는 마음을 떨쳐 낸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초점을 맞출수록 우리의 존재감이 더욱 커지고 우리는 더욱 유쾌하고 행복해진다. 이제는 그들이 우리에게 열렬히 애정을 쏟거나 우리의 관심에 보답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들의 불행에 대한 염려가 일상이 된다. 어린아이를 돌볼 때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결코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우리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요소가 수없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에게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연민 교육은 다양한 명상법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 기법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문제를 더욱 세세하게 알아차리도록 돕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철저히 동일시되면서 그들의 욕구와 소망을 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분노를 다스리는 붓다의 가르침〉(담앤북스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폴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망고, 체리, 아보카도 등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갤러리 색즉시공



공양

당신의
보살피심 받아

법의 가지에 의지하여
그 자리에 나아감에 걸림이 없으신지요?
부디
한가롭게 거닐어 자리에 앉으소서.

보공양진언
"옴 아아나 삼바바 바아라 훔"

빨간 사과
당신께
공양 올립니다.

그림 · 글=희상 스님

술은 나쁜가 내가 나쁜것인가

Buddha in Comic & Ani

㉓ 니노미야 토모코의 〈음주가무연구소〉



니노미야 토모코의 〈음주가무연구소〉 표지

연말연시는 술을 먹기 참 좋은 시절이다. 회사, 동문 등 연일 이어지는 송년모임에서 우리는 술과 전쟁을 벌인다. 실제 술자리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은 1인당 연평균 소주 84병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술은 인간이 만들어낸 식품 중 가장 매력적인 식음료다. 그래서 이에 대한 찬사도 그치지 않는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포도주는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했고, 술을 좋아했던 이태백에 대해 '이백두주시백편(李白斗酒詩百篇 · 이태백은 술 한 말이면 시가 백 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 근대 수필가였던 김진섭 선생님도 어지간한 주당이였다. 그의 수필 중에는 술을 소재한 수필이 적지 않다. 김진섭 선생님은 '취인감후' 에서 주중(酒中)의 진리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일배일배부일배(一杯一杯復一杯)에 이미 나는 내가 아니고, 너는 내가 아니다. 그럼으로써 참으로 그 때에 내가 비로소 내가 되고 네가 비로소 네가 된다. 우리의 얼굴이 장미화할 뿐 아니다. 이제 만천하가 하나의 불그레한 화단이다."

한국인의 주도(酒道)은 철저히 '권하기' 다. 일단 붓고 먹이고 본다. 그래서 과음하고 패거리로 진상을 부린다. 그래도 어쩌겠가. '음주' 는 어른만이 할 수 있는, 어른에게만 허락된 유희인 것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정뱅이는 어디에나 있다. 술을 별로 많이 먹지 않을 것로 보이는 이웃나라 일본에도 주정뱅이는 있다. 일본 순정만화가 니노미야 토모코의 프로젝트 단편집인 〈음주가무연구소〉에 따른다면.

〈천재패밀리주식회사〉, 〈노다메 칸타빌레〉등의 히트 작품을 그린 니노미야 토모코는 초기 단편집 〈음주가무연구소〉에서 자신의 음주 습관에 대해 위트 있게 보고한다. 하지만 여류 순정만화가의 음주 행태라고 하기에는 너무 엽기적이기까지 하다. 물론 주변에 대한 민폐는 말할 것도 없다. 이 만화의 포인트는 '공감대' 와 '호기심' 이다. 왕년에 술 좀 먹었던 사람에게는 "이 사람도 이렇구나"를, 술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준다.

일본 만화계의 주당으로 잘 알려진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라는 것도 이 작품의 매력이다. '술' 과 '주사' 를 테마로 편집부에 술을 얻어먹으며 만화를 그려 책으로 발간했다는 것 자체가 작가 자신이 정말 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품을 보면 알지만 작가 집안 자체가 주당이다.) 오죽했으면 자신의 화실에 '음주가무연구소' 를 만들고 자신 스스로 소장을 자처했을까.

日 만화계 주당인 작가의
음주 · 주사 일화를 만화로

'호불호' 갈리는 음주문화
불교는 '불음주계' 엄격해
다만 재가자는 '차계' 적용

일부 스님 음주 범계 '눈살'

불교의 경우는 기본 계율 다섯 가지 중에 불음주계(不飮酒戒)가 있어 음주에 대해 엄격하다. 그러나 재가자들의 경우 사회생활을 위해 부득이 술을 마시게 될 경우 남에게 해가 되지 않게 적당히 마시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차계(遮戒)라고 하는데, 이는 본래 죄는 아니지만 교단의 필요상 또는 다른 죄가 유발될 것을 막기 위해 경계하는 계율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일타 스님은 "술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우리의 근본 마음을 무명(無明)으로 덮어 지혜를 발현시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면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술을 마시는 그 자체까지도 본질적인 죄가 될 수 있으나 주 그 자체가 죄라고 하기보다는 술에 취하게 되면 살생, 투도, 음행, 망어의 성죄를 유발한다는 속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하기도 했다. 다만 차계는 재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출가자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연말이 되면 스님들의 음주 범계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한 곳에 모여 밤새 음주 파티를 열어 문제가 됐고 올해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상좌 스님 2명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망신을 사기도 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불교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면 민낯일 수 있겠다.

어찌됐던 술을 좋아하는 필자에게는 애초 술을 정당히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결론이다. 술을 싫어하는 자는 이를 나쁘다할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은 이를 좋다고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대한 좋고 나쁨은 애초 우리가 논할 것은 없다.

먹고 난 후의 결과가 중요할 뿐이다. 술이란 물건은 본래 그 같이 나쁘지도 않고, 좋은 것도 아니다. 모두 인간에 의해서 결정된 이기적인 '호불호(好不好)' 일 뿐이다.

술은 어찌 한 잔 들어가면 즐겁기 마련이다. 어차피 먹을 거라면 적정히 먹는 것이 외는 다른 방도가 없다. 연말연시 분위기에 자신을 잃지 말길 바란다.

앞서 김진섭 선생님의 수필을 인용했으니 그의 수필로 글을 가름하려 한다. 이를 보고 주자(酒者)는 마음을 추스리시길.

"물은 우리를 현명하게 만들고 술은 우리를 즐겁게 만든다. 주도는 오직 단순히 이 양자를 겸하기 위해 물과 술을 병음하는 것이다. 우리는 술에 즐겁게 취하고 물로 너그러이 깨우는 것이다. 말하자면 감적에 붙어서 속기(俗氣)를 유수에 씻음이다." 〈끝〉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나노미야 토모코의 〈음주가무연구소〉의 한 장면. 예절을 중요시 한다고 생각되는 일본에도 이런 유쾌한 주정뱅이들이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모두 주당인 작가의 자전적 일화다.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몰 무 료 배 송
칠성상회
02-879-2007
상품 문의 및 기타 사항
02-879-2007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금계좌 안내 :
신한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교세라 복사기(중고)
A3~A6용지 사용가능
팩스,복사,프린트 모두가능
금액: 950,000원

수행 중 찾아오는 피로와
손발의부기,냉기 예방에 탁월한
아시혈 패치(30매)
금액 : 33,000원

수행에 지친 분들의 원기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리산 다슬기액기스
한달분(80ml/60팩)
금액 : 115,000원


멀리 있어도 함께하며
마음과 진심을 전달합니다.
3단 근조 화환
(지정 날짜,시간에 배송가능)
금액 : 100,000원



5차 재입고,매년 인기 상품
올 겨울 따듯하게 준비하세요.
거성 온수피아 카페트 매트
금액 : 330,000원



풍수총론(風水總論)
이산 장태상선생님의 현공풍수학
연구의 절정 (무료배송)
금액 : 35,000원



대행 스님

공한 세상을 공하게 보고 공한 데다 다시 맡겨 놓아야

'말은 하면 뭘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있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천차만별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말은 하면 뭘 하나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하늘을 쳐다보고 어떤 때는 눈물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는 어떻게 걸어가는지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무심히 가는 걸 보면 아예 말하기도 싫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같이 나도 아픔을 겪나 봅니다. 보면 보는 대로 딱하고 그렇게 안됐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좋은 말을 하기 이전에 생활 속에 여러분과 같이 뛰어들어 같이 아픔을 나누고 같이 행을 해서 조금이나마 아픔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죽이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때로는 크고 작은 일을 다양하게 이끌어 나가면서 삶이 좀 더 편리해지고,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온 집안에 따뜻하게 돌아간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이 말 저 말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답답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죠.

집안이 화목지 못하거나 또는 한 가정 속에서 누가 괴롭다면은 서로가 한마음이 돼서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나도 쉽고 서로가 다 쉬울 것을, 그렇지 못한 채 그저 자기 하나만 알고 자기 아픔만 알고 마음으로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서로 뭉치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집안에서 조금만 누구가, 부부가 서로 한마음이 됐더라면 내가 더욱 쉬울 텐데, 나도 쉽고 그 집도 쉽고 서로가 쉬울 텐데 이렇게 답답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높은 부처님의 뜻과 말씀이 있기 이전에 우리들의 아픔 속에서, 그 조그마한 소용돌이 속에서 알아야만 하죠. 그걸 모른다면 부처님 말씀의 그 큰 뜻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처음 오던 해입니다. 어머니가 혼자 딸을 하나 데리고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상당히 완고하셨습니다. 아버지 없는 대신으로 엄마 몫 아빠 몫을 다 하면서 딸을 귀중하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님이 참 예쁘장하고 잘생겼는데 대학을 다니던 도중에 어느 사람을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알고는 "왜 엄마도 모르게 아무나 그렇게 만나러 다니느냐? 왜 사랑할 것 같으면 탁 털어놓고 그 집 부모와 서로 알게끔 하지 않느냐." 하니까 엄마가 알면 거부할 거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깐 따님을 늦게 다니지 못하게 했지요.



그림 · 최주현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나가고는 싶은데 나갈 수는 없고 그러니깐 음료수에다가 잠드는 약을 좀 타서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조금, 그저 주무실 동안에 내가 갔다 오리라 생각했는데 그만 너무 약을 많이 탔던 모양입니다. 나갔다 들어오니까 아,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습니까. 그런데 그 따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보니깐 이제 그 사랑하는 남자와 자기 마음대로 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끌어들이고 어린애를 하나 낳았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그쪽 남자의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여자 쪽 부모도 없으니 거기서 그냥 살도록 했습니다. 결혼을 시켜서요.

그랬는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꿈에 턱 나타나시더니 "네 사랑을 위해서, 네 남편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살맛이 나느냐?" 하시더랍니다. 너 하나 잘못된 생각으로 그것이 어느 만큼 화를 미치는지 너는 짐작도 못할 거라고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이 싫다." 그러더랍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라 깼답니다. 그런데 사흘 되던 날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배고 있던 어린애를 낳았는데 어느 날 그 집의 시어머니가 또 꿈에 보이더랍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네 남편을 잡아먹고 잘 살 것 같으냐?" 하더랍니다. 또, 그 시어머니는 살아 있는데도 꿈에 보이더니 어린애를 빼앗아서, 내 자식이니깐 내가 데리고 간다고 그러면서 빼앗아 안고선 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 꿈을 깨고서는 앞서도 어머님이 그랬는데, 시어머니로 보이면서 이렇게 되니까 너무 놀라서 어린애를 하루 종일 부둥켜안고선 놓지를 않았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경기를 하면서 숨을 몰아쉬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가니까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냥 진찰하는 도중에 죽고 말았더랍니다. 그 후엔 혼자 살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 한 생각이, 그 따님의 한 생각이 그런 불씨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끊어지느냐 하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내 연결되고 얽히고설키게 되죠.

우리에게 현재 생기는 문제들은 우리들이 지어 놓은 것이지 지금 새삼스럽게 다가온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끊는 게 아니라 녹이면서, 앞으로 개척하고 계발해서 내 마음의 차원을 질적으로 높여 가야 합니다. 그렇게 질적으로 높아졌을 때 미래에 다가올 것을 다 녹이고 윤회 속, 유전 속, 업보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벗어나야 어디고 아니 닿는 데가 없는 손 없는 손, 눈 없는 눈이 돼서 방방곡곡 어디에고, 누구한테나 이익을 줄 수 있고 불쌍한 사람들을 다 거두어 줄 수 있는 능력의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남을 건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보살행이거든요.

우리가 꼭 머리를 깎고 안 깎고 간에 생활 속에서 이익이 없다면 왜 종교를 가져야만 합니까? 종교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이고 내 마음으로부터 이루는 것이고 내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넓으면 넓은 대로 우리가 한데 합쳐진 공(空)한 세상을 공하게 보고, 공하게 돌아가는 이 살림살이를 공한 데다가 다시 맡겨 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산다면 급급하지도 않을 겁니다. 가난해서 밥을 굶는다 하더라도 급급한 생각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옛사람 말처럼 '나물 먹고 물 마시니 이만하면은 만족할 것을 그렇게 그랬다.' 고 말씀하실는지도 모르죠.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도 되지 않고 말입니다. 없는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압니다. 각자 없는 것도 더 잘 알고 아픈 것도 더 잘 알고 매사의 문제들을 본인 자신들이 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걸 알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공심(共心)으로 돌아가는 능력으로써 우리는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여축해서 먹으려고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여축해서 먹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오히려 구덩이에 빠지는 수가 허다합니다.

이 부처님 법이라는 건 그렇게 묘한 법이고 광대무변한 법이며, 불가사의한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이 우리들 생활에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생활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생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그 마음의 능력은 누가 그것을 좇아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보배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바깥으로 돌고 '내가 이렇게 해야 살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그만 거기에 눈이 어둡게 되고 귀가 밝지 못하게 되고 또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뭘 하나.' 하는 생각에서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이 법을 소상히 알지 못한 탓입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맘대로 죽습니까, 살았다고 맘대로 삽니까? 그렇지만 그런 틈바구니에서도 한생각은 저 강물 흐르듯이 여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없어지라 해서 없어지고 생기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죠? 물은 우주를 덮고도 남고 싸고 돌아도 남습니다. 그렇듯이 한생각의 법도 여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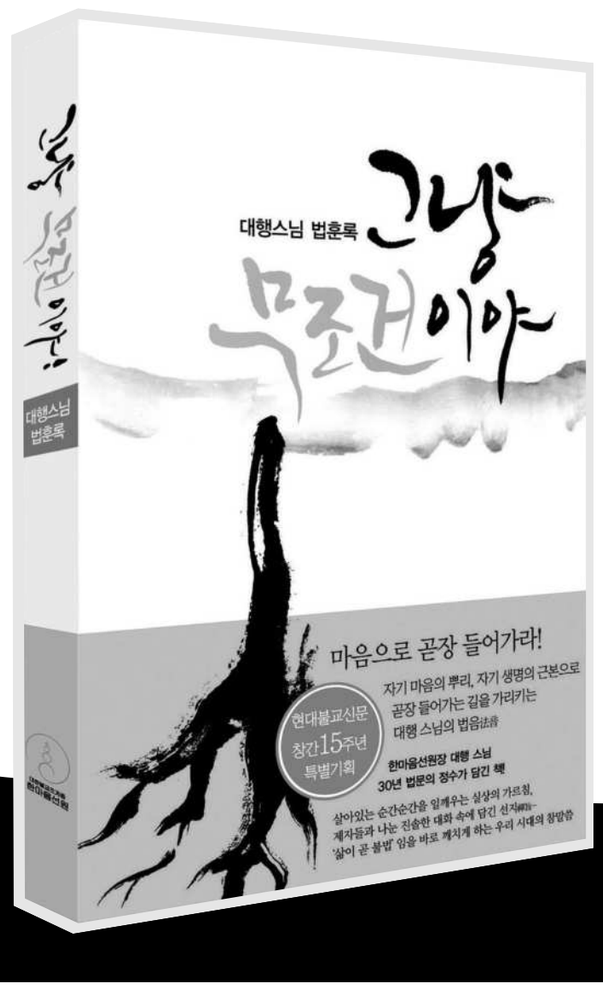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또 물과 같이 인간의 마음이 지혜롭다면 내 몸의 피도 물 흐르듯 흐르고, 만약 지혜가 모자란다면 피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피가 잘 소통되질 않는다, 어디가 잘못됐다, 눈이 어둡다 하는 게 다 어디서 오겠습니까? 내 한생각이 매사에 적합하지 않게 자꾸 일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속상해하니까 은근히 그것이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누적되어서 찌꺼기가 되고, 이렇게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니까 위막이나 장막이나 간막에 음식을 먹어도 찌꺼기가 항상 누적이 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누적이 되니까 역시 물질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병이 오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군데가 아프다 그래서 꼭 거기서 고장이 난 게 아닙니다. 딴 데서 고장이 나서 거기까지 오는 것이지.

이런 문제 등등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우리 생활 속에 다양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마음이 천차만별로 찰나찰나 화(化)해서 돌아가는 이 만법의 진리를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알아야 합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진리를 말입니다. 그게 바로 참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 한 번만 속 끓여 보십시오. 숨이 차고 벌써 눈이 게슴츠레해지고 귀가 멍멍하고 보이는 게 없고 누구가 잘하든 못하든 벌써 보면 신경질이 납니다. 이런 지경에 이를 때는 자기 몸을 자기가 긁어서 피를 내는 거나 같죠. 그러고 아파서 애를 쓰는 거죠.

어저께 텔레비전에서 '추적 60분'을 보니까 맨손으로 수술하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여러분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너무 요지경 속 같아서…. 예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는 요지경이다 이거예요. 부처님 법은 손이 가지 않고도 손이 갈 수 있는 마음의 법인 것이지 요술꾸러기처럼 하는 그것은 마술과 같은, 인간의 자비성이 아니라 그것은 사기성이에요. 그런 예가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어저께 텔레비전에 그런 문제들이 나오더군요. 그러니 얼마나 요지경입니까? 인간의 마음들이 진실치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항상 이익하게 마음을 내 주는 데 목적이 있다

☞ 29면에서 계속

못하고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낫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중한 것은 마음입니다.

또 그렇게 남을 속여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속고 또 속고…, 자기한테도 속고 남한테도 속고. 그것은 허영심과 욕심 때문이 아닐까 봅니다. 또는 기독교인들이 안수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뼈가 부러지도록 안수 기도를 해서 죽이고 또 안수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도 그냥 마음을 이리저리 돌려서 마취시킨 것처럼 해 놓고선 하는 문제들….

또 한 가지는 온통 날뛰고 손을 들고 입으로 떠들고 그러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마구니 짓을 하기 때문에 죽어서 요다음에 다시 생산이 된다 하더라도 마구니로밖에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이 있음으로써 선신도 있고 마구니도 있지, 인간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느니라. 너희가 마음, 행, 말 이 세 가지를 다 하기에 달린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게 별나게 마음을 쓰고 별나게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에이그, 세상은 요지경 속이야. 저 사람네 마음들이 왜 저럴까? 저렇게 짐승같이 사는 사람은 요다음에 짐승의 모습밖엔 또 쓰고 나올 게 뭐 있겠나.' 이러는 겁니다.

물론 부처님이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행하시고, 행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해 나왔으니 선종(善種)일 테지만 그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인간 도리도 지키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 진실함이 없는 사람네들이 있기 때문에 선신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마구니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 제자라고 한다면 바로 부처님은 자기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이렇게 나도 약을 팔고 있습니다마는 이 약 파는 소리가 한데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도 모든 것을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그 점을 아시고, 나한테 닿지 않는 말이라고 해서 비웃고 나한테 닿는 말이라고 해서 간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스무드하게 그거는 그것대로 받아서 한번 굴려놓고 좋은 말도 한번 받아 굴려 새겨 놓고 항상 그릇이 비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그럼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전에 큰 조사 스님네들은 말씀도 안 하시고 법상에 앉으셔서 주장자를 한번 꽝 치고선 "이 눈이 보이느냐." 하시곤 낚싯밥을 던져서 건지게끔 하는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너무들 말로는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처님 법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손가락을 드는 사람도 있고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일어나서 걸음 걷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많습니다. 그리고 "참 맛이 좋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물을 떠다 놓는 사람도 있고 합장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많아요. 그것은 생략하고, 그런 말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의 그 깊은 잠재의식 속에, 참나가 공(空) 안에 들었다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에게 맡겨 놓으라고 하는 그것도 내가 공했고 이 세상이 다 공했으니 포함해서 공한 주인공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부처도 이루고 세상이 공한 줄 알았고 나도 공한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공(主人空)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일체 생활을, 들이고 내는 것을 다 몰락 놓고 '다 당신이 하는 거, 들이고 내는 걸 바로 당신이 하는 거니까 당신이 다 알아서 길잡이가 돼 주실 거다.' 하고, 또 길잡이가 될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도 안되는 거는 나를 테스트해 보는구나 하고선 놓고, 또 되는 거는 감사하게 믿고 놓고. 모든 것을 맡겨 놓을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의 은사 아닌 은사, 참 은사를 만날 것입니다. 진짜 은사. 자기를 수시로 이끌고 다닐 수 있는 참자기를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가졌을 때 그것을 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죠? 땅에서 싹이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고 어른들이 어린애 낳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어린애를 출산했을 때 갓 나와 가지고 어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한 소식 얻었다 할지라도 어린애 갓 낳은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내가 한 소식 했다는 말 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내가 갓 나와서 사리를 알고 판단을 할 정도로 커졌을 때는 이 세상 돌아다니면서 크고 작은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하면서 놓고 다시 또 체험하면서 놓고, 참자기가 그렇게 거침없이 여여하게 돌고 행한다는 걸 알았을 때 어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 소식 얻었다고 결론지어서 꽂아 놓지 말라는 얘깁니다. 한 소식 얻었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될 수도 있고 늙을 수도 있고 늙었다가 또 애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는 어른이 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심부름도 해 주고 심부름 하는 걸 받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 높은 일만 합니까? 어린애를 낳아 가지고 똥 기저귀도 빨고 똥을 씻기도 하고, 어린애를 기를 때에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궂은 일을. 어른이 돼서 애의 밑을 씻어 줘야 하고 애는 애기 때문에 또 애 노릇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높아도 높은 게 없고 얕아도 얕은 게 없이 평등한 진리의 그 뜻을 항상 생활 속에서 파악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스스로 샘물이 솟듯, 솟아나는 그 샘물의 맛을 알고 역력하게 나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나의 참주인공이 진짜 생기는 것입니다, 홀연히. 그저 생산이 되기만 하면은 그때 가서는 언젠가는 성불할 단계가 오고 언젠가는 열반할 단계가 오죠. 어린애만 낳아 놓으면 저절로 어른 되고 늙어지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 차원을 알고 차원이 높아져서 나중엔 백지로서 크고 작은 게 없고 내세울 게 없을 때는 또다시 요다음에 모습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따로이 모습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유스럽게, 여기만 내 집이 아니라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다 내 집이니 그저 한 찰나에 이 집도 내 집이요, 저 집도 내 집인데 따로이 내가 내 몸을, 내 모습을 그려서 또 내놓을 게 뭐 있겠습니까?

알아듣기 쉽게 요렇게 말을 해 드리는 건데 이 차이가 어느만큼 크고 귀중한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이 도리를 완벽하게 안다면 내가 당신이 될 수 있고 당신이 내가 될 수 있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모습은 다를지언정 마음이야 어찌 다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음이 둘이 아닐진대 당신 하나가 이 나라의 임금이라면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문제가 잘못돼 돌아갔을 땐 내가 그 대통령 속에 들어가서 내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그거를 잘 지켜 나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커버해 나갈 수 있고. 대통령의 마음도 그렇겠지마는 그 마음과 이 마음이 둘이 아니어서 마음으로부터 오관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자기가 잘못 끌고 간다는 걸 알게 됨으로써 그것을 확 고쳐서 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을 따로이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창살 없는 감옥이나 매한가지인 이런 세상에 내가 그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그 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 저기 나 아님이 없다 이겁니다.

그 뜻은 미생물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선신에 이르기까지, 부처에 이르기까지 어디고 아니 닿는 데가 없이 내 몸 아닌 게 없다는 얘깁니다. 내 자리 아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것이 옳다 저런 것이 옳다, 이런 것이 좀 낫다, 이것은 정법이 아니다, 사법이다, 무당이다, 이렇게 흉볼 것도 없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높이 보이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를 흉보지 말고 '저런 거는 이렇게 해야할 텐데….' 마음속으로, 겉으로 입 밖에 내어 구업을 짓지 말고 항상 이익하게 마음을 내 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얘깁니다.

어린애들을 기를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그 자녀들이 잘못한 거를 드러내겠습니까? 도둑질을 했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숨길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 자식을 사랑하듯이 숨기면서 거죽으로는 말없이 안으로 굴리면서 이익하게 마음을 내 주는 그것이 바로 무주상 보시(無住相布施)며 부처님의 뜻이며 바로 보살의 행이라고 봅니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우리가 남을 해하게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아마도 억겁을 거쳐 가면서 요만한 거 하나라도 내가 한 것만치 내게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에 만약에 조그마한 소나무가 없다면 중치 소나무가 없고 중치 소나무가 없다면 큰 소나무가 없고, 또 삐뚤어진 게 없다면 바로 선 게 없을 겁니다. 조화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진리라고 이름을 지었고 산천초목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자연의 조화가 이렇게 보기 좋다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삐뚤어진 사람, 똑바로 곧게 올라간 사람, 옆으로 굴려진 사람, 땅 끝에 붙어서 자라지도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마음이 그러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그런 행을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중하지 몸이 중한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비롯되어서 모든 것을, 몸은 행하게 되고 앉게 되고 서게 되고 말하게 되니깐요. 우린 부처를 이룬다 하기 이전에, 깨치기 이전에 이 도리를 알아야 깨쳐도 '아하, 다 이렇게 하나하나 나투어 가면서 놓아 가고 돌아가는 이 텅텅 빈 그릇을, 괜히 여기다가 내 마음으로 담아 놓고 무겁게 애를 썼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서야들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서로 토론하지도 않고 담선법회를 안 한다면은, 주장자를 열 번을 들면 뭘 하고 백 번을 들면 뭘 하고, 또 저 해가 거꾸로 있어서 땅 속에 있다고 해도, 저건 해가 아니라 똥덩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그 뜻을 알아야 어떻게 해 보죠. 그 말은 해서 뭘 합니까? 그것은 약 파는 데 쓰이는 방편이라고 봅니다. 뭐든지 그 방편에 속지 마시고 진실하게 내가, 조그만 거라도 진실하게 체험하면서 내가 한번 굴려 보고 지켜보고, 지켜보고 또 굴리고 하다 보면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해 보십시오. '부처님 법에 하고 안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러지마는 우리가 만약에 마음만 있고 육신이 없다면 그것은 혼백만 있는 거지 실상이 못 됩니다. 상이 없다면 부처를 어떻게 이룹니까? 움죽거림이 없어서 어떠한 계발도 할 수가 없고 더 높은 차원의 지혜를 넓힐 수가 없어서 부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있을 때 비로소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그 차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높다고 높다랗게 앉아서 움죽거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거기엔 바로 두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몸으로 움죽거리며 행하는 것이 있고, 생각하고 몸 아닌 몸으로서 움죽거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생각이라는 건 모습도 없거니와 상대방이 모습을 바랄 때에 그 모습을 보여 주는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산신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 때에, 마음은 착하고 곱고 인정 있고 진정한 사람인데 고만 모르니깐 '산신님, 나 좀 살려 주시오.' 한다면 그 사람은 모르니깐 산신의 모습으로 보여 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납득하고 '어이구, 산신이 도와주셨구나.' 하는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믿고 방황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러는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으로 보이고 산신으로도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도 보이고 마리아로도 보이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걸로 인해 믿게 하고 알게 하는 거죠. 지성스런 그 마음으로 산신이 나타나서 나를 살려줬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부처님을 믿게 되는 미끼가 돼 가지고 다시금 이 길을 더위잡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부를 하게 되면 '아, 그 모습도 없는 것이구나. 내 마음에서 스스로 모습이 천차만별로 화하는 거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겠죠. 그때는 바로 '자기가 마음 쓰기에 달려 있고 참나의 생명수의 맛을 보게 하는 나의 스승이 바로 내 마음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현재 생기는 문제들은 우리들이 지어 놓은 것이지 지금 새삼스럽게 다가온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끊는 게 아니라 녹이면서, 앞으로 개척하고 계발해서
내 마음의 차원을 질적으로 높여 가야 합니다.**

※위 법문은 1985년 1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hyunbulshop.com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살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해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현불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 (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타인을 부처로 보았는지 돌아봅시다



선업 스님
봄행복치유센터 원장

올 한 해 무엇이 나를 울고 웃게 만들었을까?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놓은 8종(이익, 손실, 명예, 훼손, 칭찬, 비난, 고통, 즐거움)의 세찬 바람도 인연의 산물이니 주요한 대상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해의 살림살이를 정리해 보자.

〈육방예경〉에서는 대인관계 중 때로는 보호요인으로 때로는 위험요인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관계를 부모, 선생, 배우자, 친구, 아랫사람, 선지식 등으로 나누고 있다.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부터 돌아보자. 바쁨을 핑계로 후 순위 연락대상으로 밀어 놓고 '다음에 하지' 만 반복했다면 지금 연락드리자. 그리고 "죄송합니다"와 "미안합니다"로 용서를 구할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자. 내년으로 넘기기에는 마음이 너무 무겁고 찜찜하다. 용서의 단계 중 첫 번째는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용서해 달라는 자녀들의 표현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무한한 사랑의 힘을 동반한 '자동용서 장치' 를 가동한다.

두 번째로 '선생님' 으로 대표되는 윗사람과의 관계를 되짚어 보자. 실수가 있었으면 반성의 힘으로 바루면 되고 권력 관계로 인해 손해가 두려워 윗사람의 불의를 참기만 했다면 마음 저 편에 숨겨둔 '용기' 를 찾아 제대로 쓸 순간을 위해 갈고 닦기를 발원해 보면 어떨까? 비굴 모드에 '용기' 가 탑재되면 'Be Cool' 한 멋진 삶이 펼쳐진다는 점 마음에 새기자.

세 번째로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점검해 보자. 부부 프로그램으로 쓰이는 '상대방 귀 잡고 눈동자 쳐다보기' 를 해보면 배우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거울인 배우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자. 눈길을 마주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이 있음이다. 자기반성 거울인 배우자를 통해 용서 중 가장 어렵다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을 익혀보자.

네 번째로 살펴 볼 관계는 친구이다. 친구에는 음식처럼 매일 필요한 친구, 약처럼 가끔가다가 있어야만 하는 친구, 질병처럼 피해야만 하는 친구 등 여러 종류가 있다. 혹시 친구가 꿀을 가지고 있다 하여 파리처럼 그 친구 주변을 맴돈 적은 없는지 혹은 지출은 헤아리지 않고 수입만 헤아리는 불편한 친구 때문에 마음 고생한 적은 없는지 알아차림하고 친구 관계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평생 도반이 될 좋은 인연을 만났다면 주저하지 말고 함께하자. 인생의 겨울 시기에 도반은 모닥불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자녀를 포함한 아랫사람과의 관계이다. 이 관계는 '무조건적인 존중' 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점을 익히지 못하면 역할의 차이를 계급의 차이로 착각하여 자신의 모자란 인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게 된다. 항공기 되돌리기, 어린이집 아이 구타하기 등 사회면을 어지럽히는 일들의 대부분이 위-아래 관계 맺기의 실패와 관련되어 있다. "나는 아랫사람을 상불경보살의 정신으로 대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해 보자.

여섯 번째는 정신적인 스승인 선지식과의 관계이다. 정신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지식을 뵙고 자문을 구했는지 아니면 엉뚱한 곳에 가서 자신의 미래를 상의하거나 그런 유혹에 시달린 적은 없는지 돌이켜 볼 일이다. 선지식은 내담자를 밑에 두지 않고 곁에 두고 내면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켜 세상에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이라고 한다. 그런 분을 만나는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자.

며칠 남지 않은 올해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미안한 이들에게는 사과를, 고마운 이들에게는 감사를, 자신을 아프게 한 이들에게는 용서를 선물하자. 더불어 바람 부는 날들을 살아내는 자신에게 무한 자비를 보내자. "불구하고 본래 행복한 존재"로 힘내라고.

이제 새로운 해를 준비할 시간이다. 무언가는 또 나를 울고 웃게 하겠지만 주요한 관계와의 소통에 만전을 기한다면 화합으로 어울려 행복한 매일이 내년을 가득 채울 것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민추본 통일주제 송년대담

12월 15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송년특집 대담으로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와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초빙, 다사다난했던 남북관계를 되짚어봤다. 사회를 맡은 김진환 건국대 교수는 이들에게 올 한해 북한사회의 변화를 짚은 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의견을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편집자 주

남북갈등, 불교계서 해결 단초 마련되길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김정은 정권이 민생경제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덕분에 올 한해 물가가 많이 안정됐다. 한때 쌀 1KG이 7천원까지 치솟았지만 현재는 4천5백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내부 산업이 복구되지 않고 있고 고환율로 인해 북한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식량생산량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의 시장경제는 성숙하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모든 재화를 구매한다. 시장이 커지면서 신흥부자 세력이 성장하고 있다.

자본은 권력과 결탁하기 마련이다. 2인자 그룹의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을 주시해 본다면 신흥부자세력 중에도 권력의 중심에 올라서게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놀라운 것은 탈북자 계층도 점차 세분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평양에서 외화벌이 사업을 했다는 탈북자 가족을 만났는데 딸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못마땅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양에서는 넓은 곳에서 부유하게 살았는데 한국에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공존, 상생, 합심을 주제로 불교통일담론 연구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무릇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방에서 힘을 북돋아주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때문에 불교계의 이러한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더 보태자면 불자들이 불교적 가치에 기반한 화해 정신을 지니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한국사회가 가진 내부 갈등부터 치유해야 한다. 신은미씨에게 테러를 가한 일은 소름끼치게 폭력적인 일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사람들의 마음이 난폭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답답함과 자괴감이 앞선다. 사회의 인간성 회복을 위해 불교계에서부터 관련 운동이 시작됐으면 한다.

총체적 위기… 사회정화위해 불교계 나서야



김근식
경남대 교수

올 한해 김정은 정권은 안정적으로 권력을 행사했다. 북한 경제가 살아났으며 내부적으로도 군을 장악함으로써 힘을 키웠다. 장기적으로 북한의 변화는 경제발전으로 정치와 경제권력 사이에 어떻게 유착이 생겨나는지에 달렸다. 중국에서 들어온 물자와 외국에서 들어온 특권 등의 혜택을 입는 소수 경제권력이 생겨나고 있다. 나진에 들어선 중국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는 거액의 뭉칫돈을 들고 오는 북한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숙청당하는 이들도 있다. 북한 사람들이 점차 돈의 가치를 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김정은 체제도 언젠가는 안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적 도움에 북한은 별로 기대지 않는다. 남북관계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만 올해 북한이 남한에 내민 여러 번의 화해 제스처를 번번이 놓친 것은 아쉽다.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 고위급인사 3명이 참석한 것은 최고 명장면이었다. 이후 남북간 2차 고위급회담 성사 가능성이 타진되는 등 남북관계 분위기 호전의 계기가 마련됐으나 한국이 이를 잘 살리지 못했다.

사실 정부차원에서 소통이 막히면 민간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다. 남북관계라는 큰 틀에서 경색국면이 해소되어야 한다. 하지만 남북통일, 교류를 논하기 전 한국 사회를 돌아다봐야 한다. 외부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가 더 큰 문제다. 한국이 위기상황이 아니었던 적은 없었지만 이번은 전 분야에 걸쳐 구조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 정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우리 스스로가 사회를 정화시키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는 종교적 차원의 접근만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다. 불교계가 사회 정화를 위해 힘써줬으면 한다.

社說

연기된 동국대 총장 선거를 보며

동국대 제18대 총장 선출이 종단 외압에 의한 후보사퇴 논란 속에 결국 연기됐다. 학교법인 동국학원은 12월 16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이사회를 열었지만 격론 끝에 총장 선출안의 안건상정을 못한 채 폐회했다.

별 문제가 없어보였던 동국대 총장 선거가 파행으로 치달은 것은 조계종의 외압 논란이 불거져서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11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종단 수뇌부와 회동 후 "종단 뜻을 받들겠다"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종단 유력 인사들이 '스님 총장' 의 공감대를 어필했다는 것이 전해지면서 외압이 작용했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14일에는 함께 후보로 나선 조의연 교수가 "종단 개입으로 선거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했다.

이후 진행된 이사회를 보면 입장 차가 분명히 갈린다. 종단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측은 선거 진행을 주장했고, 반대 측은 종단 외압을 주장하면서 맞섰다. 결국 이사장 정련 스님은 "교육부 질의 후 이사회를 열자"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전후 사정을 뒤로 하고 상황만을 놓고 보면 종단의 과오가 커 보인다. 이사회를 앞두고 이사가 아닌 종단 원장 스님들이 유력 후보를 찾아가 '스님 총장' 을 운운한 것은 미리 언지를 주는 선의였더라도 외압으로 비춰질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동국대 교수협의회나 차기 총학생회가 성명 등을 통해 "종단의 개입으로 민주적 절차가 훼손됐기에 총장 선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동국대 발전을 위한 인물을 모시는 자리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태 속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학생들이다. 종단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모교의 총장을 선출하는데 종단이 개입됐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불교에 대한 불신만 커질 뿐이다. 물은 쏟아졌다. 명확한 수습책을 종단과 학교 이사회가 내놓아야 한다.

'불교 통일선언' 에 거는 기대

공존과 상생, 합심을 기치로 한 불교 통일선언이 이르면 5월께 발표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특히 내년은 분단 70년을 맞는 해이어서 더욱 뜻 깊다. 또한 남북통일문제에 관한 조계종단의 입장과 방침이 명확해질 전망이어서 더욱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12월 18일 '공존과 상생, 합심의 불교통일담론 연구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보고된 주요 내용의 골자는 화쟁사상에서 통일원리를 찾고 공존과 상생을 중심으로 남북이 합심해 통일을 이루어나가자는 것이다.

사실 남북불교간 교류는 꾸준히 이어져왔지만 불교적 통일 방법론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담론 형성하지 못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추본 본부장 지홍 스님이 이번 사업을 두고 "통일에 대한 불교의 이론 · 실천적 지침을 세우는 의미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날 보고를 살펴보면 화쟁적 통일론의 일편을 알 수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화쟁 통일론의 핵심은 이문일심(二門一心)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남북간 합심이 통일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분단 70년은 우리 민족에게 아주 비정상적이고 비극적인 시간이었다. 단순히 영토가 반토막난 것이 아니라 한 민족 안에서 서로를 반목하고 증오하게 만든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물리적 분단보다 '마음의 분단' 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조계종이 추진하는 '불교 통일선언' 은 시기와 담론 면에서 적절한 조치다. 현재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권 이후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치만으로는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불교계와 민간단체가 나서서 통일의 물꼬를 터야할 필요가 있다. 화쟁적 통일담론이 담긴 '불교 통일선언' 이 통일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담허대사 저/ 송상섭 편역(여시아문 刊)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말만 풍성하고 핵심이 빠진 내용은 읽을 수록 심혼만 산란해지고 해탈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 책은 그런 폐단이 없다.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고 싶은 더없이 보배로운 책이다. 경전이나 선정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경건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내용이다. 그윽이 조심스러운 것은 행여 아상이 높거나 법을 불신하거나 경망한 사람이 이 책을 가볍게 대할까 크게 두렵다. 여래께서 간절히 일러주신 해탈의 돈법(頓法)이 숨김없이 확연히 설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해탈은 문도 없고 길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삼계를 벗어나 불국토로 왕생하는 염불수행 조차도 선정이 기초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의 큰 집중력은 마련되기가 매우 어렵다. 선정이 깨달음이든 극락왕생이든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순일한 집중력을 배양하는 지(止)와 밝은 통찰에 이르는 관(觀)을 고루 닦는다는 말이다. 줄여서 이를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도 말한다. 집중 위주의 사마타와 관찰위주의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융합적인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수행도 만약 너무 한쪽만 쏠려 닦으면 절름발이처럼 원만한 수행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광신도처럼 집중은 잘 하는데 단순하고 지혜가 없거나 지식만 최고로 아는 사람처럼 머리는 있으나 실행력이 빈약하면 지혜와 실천 즉 안팎을 고루 갖춘 큰 수행은 못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 염불과 참선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이 읽으면 수행의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책으로서 일독을 권한다.

■ 책 속의 한 구절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

우리의 의식 즉 한 생각 속에는 열 가지 법계(十法界)가 구족하다. 즉 온 우주가 통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두 잠겨 있다. 이른바 십세고금(十世古今, 영원한 시간)이 이 한 생각(우리의 의식)을 여의지 않았으며 티끌과 같은 찰토(刹土, 온 세계)가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영겁의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이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다 숨어있다는 말씀이다.

"만약 발심하여 염불하면 일념염불이 일념의 깨달음이고,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즉 다시 쉽게 해설하면 염불하는 그 생각마다 밝게 깨쳐있는 마음이고 순간순간 외우는 그 마음 안에는 순간순간의 더없이 밝은 깨달음이 아주 신령스럽게 작용한다는 그 말씀이다. (23p)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과거의 조사님들 천태지자(智者)대사, 영명선사, 우익(藕益)대사, 철오(徹悟)선사 등과 같은 분들도 나중엔 정토로 귀의해 염불을 전념하셨다. 또 남에게도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수행을 하면 근기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상당(相當)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아주 쉽고 그 병폐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불하는 사람은 서천에 대한 믿음(信), 가고자 하는 원력(願), 지속적인 염불의 실천(行)만 구족하면, 이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력에 의지하니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설 염려가 없다.

그러기에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다른 수행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삼계(생사를 반복하는 우주)내의 견혹(見惑, 잘못 보아 생기는 미혹)과 사혹(思惑,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미혹)을 완벽할 만큼 남김없이 끊어야만 진리를 증득하여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말이야 상당히 쉽지만 실제로 상당한 공부가 없으면 결과는 성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34p)

한마디 아미타불은 최상승의 법이며 무량한 법문(法門)을 포괄한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무문자설(無問自說, 제자들의 질문이 없는데 붓다 스스로 말씀하심)하셨는데, 서방극락세계의 의정 이보장엄(依正二報莊嚴, 즉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한 장엄)과 염불하여 극락왕생할 것을 설하셨다.

그의 의미는 법화경과 같다. 왜냐하면 법화경도 사리불존자에게 설하셨으며 제자들의 어떤 질문도 없이 붓다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무문자설(無問自說)이었다.

부처님은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후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들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미간의 백호상광(白毫相光)을 내뿜으며 동방 팔천토(東方八千土)를 비추고 갖가지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어 법문을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하셨다.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대중을 위해 의심을 해결한 후에, 부처님은 곧 삼매에서 편안히 나오셔서 청하여 묻는 질문자가 없으나 사리불존자에게 말씀 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일체성문 벽지불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매우 깊은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하고..." (52p)

저자 소개

〈염불론〉의 저자 담허대사(1875~1963)



중국 하북 영하(河北 寧河, 현 天津) 출신. 속성은 왕(王)이고 이름은 복정(福庭), 법호(法號)는 융함(隆銜), 자(字)는 담허이다. 17세에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혼인을 하여 다섯 명의 자식을 낳았다.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아울러 작은 장사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후에는 다시 의술을 익혔다. 경자사변(庚子事變)을 당하여 영구(營口, 용령성 남부)로 피신하여 한의원을 열었다. 40세에 〈법화경〉을 듣고 즉시 속진을 떠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민국6년(1917) 43세 되던 때, 천진에 있는 청수원(淸修院)의 청지법사(淸池法師)의 인도로 내수 고명사(高明寺)의 인괴법사(印魁法師)를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이듬해 남쪽으로 내려와 영파(寧波) 관종사(觀宗寺)의 제한대사(諦閑大師)를 의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아울러 제한대사 슬하에서 천태교관(天台教觀)을 익혔다. 민국10년(1911) 심양(瀋陽) 만수사(萬壽寺) 불학원에서 강석을 열어 법문을 하였다. 1915년에는 제한법사(천태종 43世)의 부촉(咐囑)에 의해 보정(寶靜, 1899~1940), 정권(靜權, 1881~1960) 법사와 더불어 천태종 44세가 되었는데, 이때 금함(金銜)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후 동북지방 각지에서 경전을 강설하며 불법을 널리 폈으며 아울러 많은 도량을 창건했다. 그 중에서 하얼빈의 극락사(極樂寺), 장춘의 반야사(般若寺), 영구의 능엄사(楞嚴寺)가 가장 규모가 크다. 그 후로 청도 담산사(湛山寺)의 주지가 되어 스스로 담산노인(湛山老人)이라 불렀다.
만년에는 홍콩에서 홍법하면서 화남불학원(華南佛學院)을 설립하여 원장을 맡았으며, 또한 중화불교도서관(中華佛教圖書館)과 불교인경처(佛教印經處), 천태정사(天台精舍), 홍법강당(弘法講堂), 청산(靑山) 극락사(極樂寺) 등을 설립하였다. 1963년 봄에 (중화불교)도서관에서 〈능엄경〉과 〈금강경〉을 강의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대중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가부좌하고 시적(示寂)했다. 세수 89세였다.
대사가 일찍이 평생의 사적을 구술한 것을 제자인 대광(大光)이 기록하여 〈영진회억록(影塵回憶錄)〉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주요저작으로는 〈금강경강의〉, 〈심경의소(心經義疏)〉, 〈심경강의(心經講義)〉, 〈기신론강의(起信論講義)〉, 〈보현행원품수문기(普賢行願品隨聞記)〉, 〈능엄경강의〉 등이 있다. 나중에 제자들이 스승의 법문과 저작을 모은 〈담산대사법회(湛山大師法匯)〉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12선사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깨침의 노래 禪詩 '완전 이해'



(맨윗줄 왼쪽부터) 효봉 혜암 한암 학명 스님, (둘짯줄) 용성 만해 만공 동산 스님,(셋짯줄) 고암 경허 경봉 만암 스님. 모두가 근현대 한국불교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이다.

염화시중의 미소만 미소랴. 한국 근·현대의 불교를 이끌었던 선지식도 중생제도를 위해 한 없는 자비의 웃음을 날렸다. 그러한 웃음을 선가(禪家)에서는 '황금털사자(金毛獅子)의 미소'라고 일컫는다. '황금털사자'란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뜻이리라. 선사들은 삶 속에서는 물론, 법문에서, 제자 사랑에서 그 미소를 강물처럼 쏟아냈다. 이것이 노래로 우러 나오니 바로 선시(禪詩)가 됐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송준영 지음, 여시아문 펴냄)는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선시를 씨줄로, 이들의 삶과 수행을 날줄로 해서 이들 고승들의 진면목을 다루고 있다. 한국불교 근대 중흥조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용성·학명·만공·한암·만암·만해·효봉·혜암·동산·경봉·고암 스님 등 12명의 걸승이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이들 선사를 개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많았고, 또는 모두를 한곳에 옮겨놓은 책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선사들의 자취가 오랜 시간 구전되다보니 더러는 뒤섞이기도 하고, 어느 것이 어느 분의 행장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계간 '시와 세계' 발행인겸 주간으로 있는 지은이가 18세때 선문에 든 이후 동암·탄허·고송·성철·서옹 스님 등 여러 고승들을 만나고, 특히 서옹 선사에게서는 7년간 7차례나 의문나는 점을 물었고, 그 답을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선시를 통해 선사들의 생애를 조망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시도다. 하지만, 선시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없어도 가능할까. 지은이는 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시와 선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다만 선시는 중생을 눈뜨게 하는 한 방편으로 읊어졌다는 데 차이점을 둔다.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한 선시 고유의 수사학(修辭學)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했던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선시여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시를 이해하다보면 조사들의 선풍은 물론, 실험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12명 선사들의 게송, 법어나 소참법문, 직접 쓴 서간문, 투고글, 대담, 각 선사들의 법맥, 행장, 연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가능한 문도회에서 만든 어록이나, 학자들의 근거 있는 기록,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묶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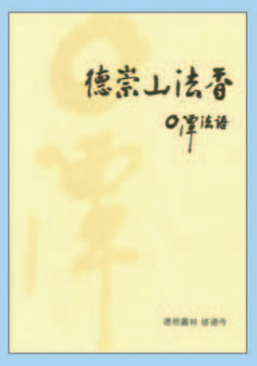
경허 스님의 '졸음' '돌사람' '심우송' 등 게송은 제목만 들어도 다정다감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들면 극도로 탈속된 담담한 경지를 보여준다. 만해 스님이 학명 선사의 깨침에 대해 준 지어준 게송(일에 다다르면 고생이 많고/사람을 만나면 이별이 있다/원래 세상이치 이러하니/남아라면 '이것' 마음대로 살라 · 臨事多難處/逢人足別離/世道固如此/男兒任所之)은 수선납자의 목숨을 빼앗을만큼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본래 선시는 인도의 '가테(gata)'가 중국으로 들어와 '게(偈)'로 음사되었다고 한다. '가테'는 언어를 빌려 언어 밖의 현묘한 이치를 읊은 것. 이 게가 본래 있었던 '송(頌)'과 합쳐져 게송이 된 것이다. 지은이는 선시가 시라는 장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를 차용한 성격이 짙다고 본다. 그래서 선시를 문학이라는 장르에 가두지 말고, '선문화에 대한 진검, 혹은 지혜의 검'으로 승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문염송 강의록 〈현대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로 선시연구의 일가를 이뤘다는 평을 들어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선시에 대한 해박한 이해며, 고승들의 진면목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돋보이는 책이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경허에서 고암까지)
송준영 지음 | 양장
575쪽 | 신국판 | 25,000원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천진불 원담스님의 사자후



덕숭산 법향
(원담법어)

수덕사 엮음 | 566쪽 | 188*257 | 30,000원 | 여시아문 펴냄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故 원담(1926~2008) 선사의 1980년 하안거 결제부터 20여년 간의 법어를 모아 엮은 선(禪)법문집. 법상에 오른 노 선승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스님의 어투가 최대한 살려진 활구법문(活句法門)을 접할 수 있다.
평생을 참선수행에 매진해온 선사의 활발한 선지(禪旨)와 고준한 법(法)의 향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선어록이다. 원담선사는 한국불교의 선맥을 중흥시킨 경허, 만공 스님의 선풍을 계승, 평생을 참선과 공부에 매진한 선승이다. 특히 12살의 나이부터 만공 스님을 시봉, 스님의 열반(1946)까지 옆에서 지킨 마지막 법손(法孫)으로서 '천진불(天眞佛)'로 일컬어졌으며, 서예에 능해 당대 최고의 선필(禪筆)을 남긴 고승이다.

"무정설법이 별것 아니니 목전에 역력하여 다만 이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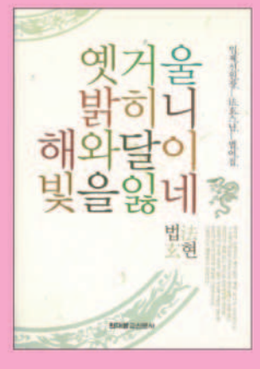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대원스님 지음 | 양장 | A5 | 347쪽 | 13,000원 | 여시아문 펴냄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지극한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밥먹고 똥 싸고 잠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심이 진정으로 성성해져서 매(昧)하지 않으며, 그 의정을 그대로 깊이깊이 끌고 나가면, 내가 의식이 없는 세계에 가서도 그 의심 덩어리 하나가 그대로 성성하게 됩니다.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나 깨어 있을 때나 관계없이 순수하게 성성한 지경에 가면 비로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다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어떠한 경계든 경계에 부딪혀서 뒤집어 집니다. 번신일전(飜身一轉) 즉 몸을 뒤집어 엎어서 한번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비로소 '아! 하고 본인이 깨달아서 알 뿐입니다."(본문 중에서)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의 법문과 대담, 전법의 현장에서 밝히는 좌선의 기초방식과 화두 참구법의 핵심을 담은 선(禪)법어집이다.

화두는 분별 없는 마음거울 밝히는 공부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법현 저 | 양장 | 신국판 | 416쪽 | 15,000원 | 여시아문 펴냄

"생사에 대한 분별심은 옛거울(古鏡)의 체와 하나로 같으면서도 그 자체가 허망한 영상으로서 옛거울에는 본래 없는 것이다. 본래 없는 것인 줄 알아버리면 생사를 초월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공포가 없으니 생사의 허망한 그림자로부터 근본적으로 해탈할 수 있다."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의 선(禪) 법어집이다.
생사를 근본적으로 해탈하는 방법은 분별심을 끊어 버려야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말세의 범부라도 허다한 분별심이 본래 없는 옛거울의 지혜로 관조하여 화두를 심두(心頭)에서 끊임없이 일념으로 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생사의 뿌리인 분별심을 근원적으로 끊어버리고 의단을 타파하게 된다고 한다.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 중 • 출판 및 구입 문의 (02)2632-8739 • 도서출판 여시아문과 비움과소통은 자매 출판사입니다